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Uzbekistan Students in Korea



2019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교육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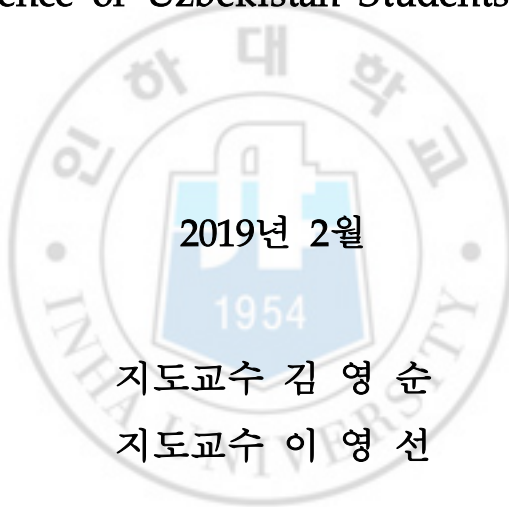
Dilnoza Kalanova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Uzbekistan Students in Korea

The logo of Inha University is a circular emblem. It features a central shield with a stylized building and the year '1954' below it. The Korean text '인하대학교' is written around the top inner edge of the circle, and 'INHA UNIVERSITY' is written around the bottom inner edge. The text '2019년 2월' is centered over the logo.

2019년 2월

지도교수 김 영 순

지도교수 이 영 선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교육전공)

Dilnoza Kalanova



이 논문을 Dilnoza Kalanova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9년 2월





##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분석하고, 유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함양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상호문화소통 교육이 자국문화 및 타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언어 및 문화를 존중하여 배려할 수 있는 지식, 능력, 태도 및 인식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8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후 심층인터뷰 내용을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어린 시절, 중·고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시절 등 시간별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사람들에게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이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 사람들과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의 유학생들과 그들이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다음으로 Arasaratnam과 Banerjee(2010)의 ‘자극선호와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을 활용하여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극선호(Sensation seeking)가 그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 형성 및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자극선호가 ‘따뜻한 마음’이었던 연구참여자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공감 → 글로벌 태도 → 동기 → 상호작용 참여’ 등 과정을 통해서 함양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따뜻한 가정환경에서



낮선 나라와 문화에 왔기 때문에 소통에서도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찾고 자기에 맞는 상대방을 만나면 감정 교환하기도 하고 유학생들의 어려움 및 외로움을 극복하기도 하였다.

둘째, 자극선호가 ‘새로운 경험’이었던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글로벌 태도 → 상호작용 참여’를 통해서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향상하였다. 그들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나 관심, 또는 서로 간의 차이점을 개방적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신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유학 초기적응 단계에서 상호문화소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상호문화소통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 상황에서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교육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으로는 자문화 및 타문화에 대한 언어적·비언어적, 사회적·문화적 지식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호문화소통 교육은 이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타문화권 사람과 만났을 때 서로 간의 느끼는 차이점을 ‘틀림’이 아니라 ‘다양함’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상호문화 교육은 타문화와 만남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생각한다면 상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상호문화소통의 의의를 인식하게 해주는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문화소통 교육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알기 위한 배움, 행하기 위한 배움, 함께 살기 위한 배움, 존재하기 위한 배움 등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표에 맞춰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한국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하면서 한국 유학생들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방향을 제언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활용해보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한국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유학생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내러티브, 상호문화소통, 상호문화소통 역량, 상호문화소통 교육

# 목 차

국문 초록 .....	i
목차 .....	iv
표 목차 .....	vi
그림 목차 .....	vii
<b>I. 서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와 연구의 내용 .....	4
3. 선행연구 분석 .....	6
4. 연구 동기 .....	10
<b>II. 이론적 논의 .....</b>	<b>13</b>
1. 재한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실제 .....	13
2. 상호문화와 상호문화소통 .....	25
<b>III. 연구 방법 .....</b>	<b>55</b>
1. 연구 설계 .....	55
2. 연구참여자 .....	57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64
4.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적 고려 .....	72
<b>IV.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내러티브 .....</b>	<b>75</b>
1. 연구참여자 A: 소통으로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마음 .....	75
2. 연구참여자 B: 자기만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	85
3. 연구참여자 C: 소통을 통해 공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	97

4. 연구참여자 D: 소통에 근거한 학문적 성향 .....	107
5. 연구참여자 E: 친절한 소통으로 열리는 마음의 문 .....	120
6. 연구참여자 F: 적극적인 소통에서 온 기쁨 .....	129
7. 연구참여자 G: 소통을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	136
8. 연구참여자 H: 웃음에 기초한 소통에서 온 즐거움 .....	147
9. 소결 .....	160
<b>V. 상호문화소통 역량 내용 분석 .....</b>	<b>162</b>
1. 자극선호 .....	164
2. 상호문화소통 공감 .....	168
3.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 .....	172
4. 상호문화소통 동기 .....	178
5. 상호문화소통 참여 .....	184
6. 상호문화소통 역량 .....	186
7. 소결 .....	195
<b>VI. 결론 .....</b>	<b>197</b>
1. 요약 .....	197
2. 논의 및 제언 .....	200
<b>참고문헌 .....</b>	<b>205</b>
<b>ABSTRACT .....</b>	<b>213</b>
<b>&lt;부록 1&gt; .....</b>	<b>217</b>

## 표 목차

<표 II-1>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 .....	15
<표 II-2> 상호문화소통 역량 개념의 범주화 .....	38
<표 II-3> AIE 평가 내용 .....	52
<표 III-4>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	58
<표 III-5> 질문 개요 .....	65
<표 III-6> 연구참여자들의 면담일정 .....	67
<표 IV-7> 연구참여자 A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성 .....	75
<표 IV-8> 연구참여자 B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성 .....	85
<표 IV-9> 연구참여자 C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성 .....	97
<표 IV-10> 연구참여자 D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성 .....	107
<표 IV-11> 연구참여자 E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성 .....	120
<표 IV-12> 연구참여자 F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성 .....	129
<표 IV-13> 연구참여자 G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성 .....	136
<표 IV-14> 연구참여자 H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성 .....	147
<표 V-15> 상호문화소통 역량 내용 분석 .....	163

## 그림 목차

[그림 II-1] 1971~2018년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 현황 .....	14
[그림 II-2] 1994~2018년 한국 체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현황 .....	22
[그림 II-3] Byram(1997)의 상호문화 역량 모델 .....	40
[그림 II-4] Fantini(2000)의 상호문화 역량 모델 .....	42
[그림 II-5] 상호문화 역량의 피라미드 모델(Deardorff, 2004) .....	43
[그림 II-6] 상호문화 역량의 과정 모델(Deardorff, 2006, 2009) .....	45
[그림 II-7]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Arasaratnam, 2006) .....	47
[그림 II-8] 자극선호와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Arasaratnam & Banerjee, 2010) .....	48
[그림 III-9] 연구 절차 .....	56
[그림 III-10] 내러티브 탐구 절차 .....	71
[그림 V-11]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따뜻한 마음’ 모형을 통한 상호문화소통 역량 함양 과정 .....	162
[그림 V-12]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새로운 경험’ 모형을 통한 상호문화소통 역량 함양 과정 .....	162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8년도 외국인 입국자 수는 3,936,221명, 1999년도에 3,601,095명 그리고 2000년도에는 5,044,269<sup>1)</sup>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한류 열풍으로 2000년 초반부터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학생들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강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의 문화와 접촉하게 된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시기는 “자기가 공유하는 문화를 가지고 사회로 이주하여 그 사회의 문화를 배우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시기” (김영순 외, 2016)이다.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2018년 12월 기준 총 160,671명으로, 이들 중 유학(D-2)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이들은 102,690명, 한국어연수(D-4·1)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이들은 57,971명이다. 이들 중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총 7,840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유학생들의 국적으로 따지면 4위에 해당하는데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 확대이다. 소련이 1991년에 붕괴한 후에 우즈베키스탄은 공화국이 된 한국과 1992년에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 이후에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에서 고려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모국어교육이 모든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1999년에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온 한국드라마가 청소년 사이에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한류 열풍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주로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 청소년들에

1) 1984-2016출입국국가별월별통계(2017.10.16. 검색)

2) 2018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에 따르면 국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중국(한국계 포함)과 베트남, 몽골에 이어 4위이다. 총 7,840명 중에서 유학(D-2)은 4,365명, 한국어연수(D-4-1)는 3,475명이다(<https://immigration.go.kr>, 2019.02.11. 검색)



게 한국은 경제·기술·의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한 나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여러 분야가 발전한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많은 젊은 이들의 꿈이 되었다. 넷째, 한국 유학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 매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유학 박람회 및 인하대학교의 타슈켄트 캠퍼스 입시 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알게 된 한국 대학에서의 수준 높은 IT 전공 교육 및 공부에 대한 열정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내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자문화와 다른 소통 방식(이미정 외, 2015), 한국의 사회 및 문화와 관련된 언어·비언어적인 표현(김영순·갈라노바 딜노자, 2017) 등을 배우고, 특히 대학 초기 적응 시기에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과제이다(강현민 외, 2014; 오세경 외, 2015). 엄미정 외(2012)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들이 유학생 생활 이후 유학 전에 생각했던 것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식생활 및 문화적응 요인(31.0%)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유학생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이고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끼리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수업에서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와 같은 협동학습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주휘정, 2010; 김영순·갈라노바 딜노자, 2017). 대학생들은 팀별 과제나 협동이 필요한 대학 생활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언어적인 측면보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더 어려워하였고 석·박사 원생들은 교수님이나 선·후배 관계를 힘들어하였다(강현민 외, 2014).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한국 언어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창한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육도 요구된다. 그동안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함께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유학생들 중,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4번째로 많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한국사회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왔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함양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문화소통 교육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위해 요구되는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의미한다. 상호문화소통 교육은 자국 및 타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언어 및 문화를 존중하여 배려할 수 있는 지식, 능력, 태도 및 인식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소통 교육은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넘어 어떤 사회나 문화 속에서 문화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그들의 성공 발판이 될 수 있다.



## 2. 연구 문제와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분석하고, 유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함양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대해 탐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상호문화소통 교육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위해 요구되는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을 심층인터뷰하였다. 그리고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어린 시절, 중·고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계획 등의 경험을 시간 변화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그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가정·학교·사회 등의 사회와 기관 영역에서 살펴보고 연구참여자들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변화를 연구자의 말로 재구성하였다.

연구 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 1에서 추출한 범주를 다시 통합하고 Arasaratnam과 Banerjee(2010)의 ‘자극선호와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을 활용하여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분석하였다.

I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 연구 문제와 연구 내용을 제시하고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 재학 중인 중앙아시아 유학생과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독창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연구자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연구 동기를 제시하였다.

II 장에서는 먼저 한국 내 외국인 및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현황과 특

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상호문화의 개념과 특성,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와 출현 배경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셋째, 상호문화소통의 개념,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중요성 그리고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평가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III 장에서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먼저 연구의 개요와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설명하였다. 내러티브 연구 방법은 개인의 경험을 형성하고 질서화함으로써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 선정동기, 선정기준,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성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였다.

IV 장에서는 연구 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어린 시절, 중·고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계획 등으로 분류하고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가정·학교·사회 등의 사회와 기관 영역에서 살펴보고 이를 연구자의 말로 재구성하였다.

V 장에서는 연구 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Arasaratnam과 Banerjee(2010)의 ‘자극선호와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을 활용하여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분석하였다.

VI 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여 제언하였다.

### 3. 선행연구 분석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연구를 바탕으로 상호문화소통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다. 두 번째 범주는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는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변화되면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연구들은 총 291편이며 그중에서 국내석사논문 174편, 국내박사논문 30편과 국내학술지논문은 87편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이들의 한국사회, 문화 그리고 대학적응에 관한 연구들(나임순, 2006; 김선남, 2007; 임지혜·최정화, 2009; 박은경, 2011; 박미숙 외, 2014; 강현민 외, 2014; 이미정 외, 2015; 오세경 외, 2015; 심미경 외, 2015; 김현진·김영주, 2015)이다.

외국인 대학생들의 적응을 학업, 사회, 정서적과 환경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미숙 외, 2014). 유학생들이 학업 적응에서는 한국어, 빠른 수업 방식 그리고 논문에 대한 스트레스, 사회적 적응에서는 교수님이나 선배들과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어 실력이 좋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친해질수록 대학이나 지역사회에 더 빠르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경, 2011). 그리고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주로 개인적인 문제로 나타났고 환경적 적응에서의 스트레스는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였다. 그중에서 학업 문제나 장래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다(나임순, 2006).

한국에 유학 온 유학생들의 대학 문화적응에 있어서 한국어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자, 전공 용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현진·김영주, 2015). 또한 향수병은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나임순, 2006).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및 미디어 사용 간의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정서적 욕구 충족, 문화적 형태학습 그리고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임지혜·최정화, 2009). 미디어는 단순히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줄이고 과점이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대부분 연구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적응을 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았다.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한국문화와 대학적응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사회 및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언어적이나 비언어적 적응, 또는 이에 대한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에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나임순, 2006; 주휘정, 2010; 전재은·장나영, 2012; 주동범·김향화, 2013; 남부현 외, 2014)의 비중이 크다. 재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차별감이다(나임순, 2006).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한국어 수준, 성별, 그리고 한국 체류 기간 등의 변인이 있다. 또한 유학생의 한국체류 기간과 한국어 수준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주동범·김향화, 2013).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나 대학생활원생들을 위한 서비스의 미흡 문제, 또는 급식과 관련된 문제도 그들의 문화적 스트레스의 요인 중 하나였다(심미경 외, 2015).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특히, 팀 프로젝트나 팀 발표 같은 협동 활동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협동학습 활동이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주휘정, 20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학생과 유학생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인 학생들이 본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 학생들이 냉담하고 목적 위주의 관계만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전재은·장나영, 2012). 사회문화의 차이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적응하면서 점차 갈등요소에서 제외되지만, 한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 문화에 대한 편견은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요소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

하여 이문화 간 의사소통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학생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주휘정, 2010).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생생활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제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한국인 학생들과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이미정 외, 2015; 강현민 외, 2014; 오세경 외, 2015; 김영순·갈라노바 딜노자, 2017)을 살펴보았다. 한국 대학에서 재학 중인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10편 미만이며 국내석사논문 3편과 국내학술지논문은 6편과 국내박사논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한국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지위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의 인사예절과 의사소통 방식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학생들은 가족생활보다 직장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이미정 외, 2015). 그런데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한국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위해서 결혼생활, 또는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으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존중이나 인정을 받기 어렵다.

또한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교육 시스템 부적응을 1위로,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을 2위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강현민 외, 2014)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들(정영근, 2000; 조운정, 2013; 장석연, 2014; 민춘기, 2015; 서영지, 2015; 최승은, 2015; 장한업 2016; 윤영, 2016)을 살펴보았다.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총 9,371편이며 그중에서 국내박사논문 1,108편, 국내석사논문 3,551편과 국내학술지논문은 2,090편이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성공적인 관계 또는 효율적인 상호문화소통을 위해서는 상호문화 학습(민춘기, 2015)이 요구된다. 상호문화소통이란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윤용선, 2006)이다. 상호문화접근과 기존 문화 학습 방법과 차이점은, 원만한 관계의 출발점은 타인에게 아니라 자신에게 달

려 있다는 점(서영지, 2015)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주의는 자문화 및 타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윤용선, 2006).

상호문화교육의 철학은 ‘상호문화성’이라는 용어에 기반을 두는데 이는 사람들 간의 심리적 관계, 즉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상호문화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상호문화교육이란 ‘더불어 더 잘 살기’라는 지구촌 시대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이다(장한업, 2016). 세계화 시대에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자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정영근, 2000)에 있다. 최근 들어 다문화 수업 속에 상호문화교육 원리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문화를 기술하는 것에 그치는 등 낮은 수준의 이해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상호문화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상호문화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개선을 해야 한다(조운정, 2013).

이와 같이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외국어교육은 문화학습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소통이 언어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에서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상호문화교육 또는 상호문화 학습을 통해, 다른 문화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화와 비교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자기 성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재한 외국인 유학생들 중심으로 된 연구 중에 중앙아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몇 가지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분석하고, 유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함양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대해 탐색하였다.



#### 4. 연구 동기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본 연구자는 2006년에 우즈베키스탄 국립 대학교 우즈베크어문학과에 입학하였다. 대학교 3학년 때에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한국어를 한국교육원에서 배우기 시작하였다. 매일매일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로 구성된 자아를 찾게 되었다. 2011년에는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세종학당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거기에서 1년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고, 바로 그 학당에서 우즈베크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거의 모든 한국어 교과서가 러시아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모르는 사람은 한국어를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어-우즈베크어와 관련된 좋은 문법책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2012년에 우즈베키스탄 국립 대학교 우즈베크어문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석사 과정에서 ‘외국의 사회언어학’ 이란 과목을 한국의 대학에서 우즈베크어 교수로 오랫동안 근무한 교수님께 배우면서 한국에 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

2013년 6월 25일에 우즈베키스탄 국립 대학교를 졸업하고, 7월 15일에 타슈켄트 국립 기술 대학교에서 러시아어 반 대학생들에게 우즈베크어를 가르치는 우즈베크어 교사로서 취직하였다. 거기에서 1년 동안 일하다가 2014년 9월 2일부터 한국에 유학으로 올 때까지, 즉 2015년 2월말까지 타슈켄트 국립 동방대학교 통역 이론 및 실습학과에서 대학생들에게 한국어와 동시통역이론을 가르쳤다.

나는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문화, 한국역사와 한국생활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국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문화를 직접 체험해야 한다. 즉, 한국문화와 한국생활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한국에 있는 대학원에, 그중에서도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에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2015년 3월에 인하대학교에서 다문화교육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시작하였

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통해 한국을 배움으로써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전통, 특히 새로운 국가를 찾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고향에서 배웠던 한국어 어휘나 표현, 한국문화는 한국 사회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로 내가 경험했던 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는 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대학교에 처음 간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대학교 캠퍼스를 걸던 중 누군가의 ‘안녕하세요, 선배’ 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한 여학생이 나이가 거의 같아 보이는 여학생에게 고개와 허리를 90도까지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큰 충격을 받은 나는 나이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의 있는 인사를 받은 ‘선배’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선배’를 계속 지켜보기로 결심하였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 그 ‘선배’는 앞에서 오고 있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학생에게 좀 전에 자신이 받았던 그 ‘예의 있는 인사’를 하였다. 여학생이 그렇게 감동적인 인사를 했지만 ‘선배’라는 그 남학생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안녕’ 하면서 지나갔다.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나는 놀란 가슴을 안고 계속 그 여학생을 따라갔다. 처음에 ‘선배’였던 학생은 나중에 ‘후배’가 되었고 교수를 만나고는 인사를 하며 ‘학생’이 되었다. 이는 굉장히 사소한 사건이었지만 ‘선배’라는 개념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온 지 일 년이 지나고는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선배’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사전에서 나오는 ‘선배’의 의미와는 다른 이 의미는 한국 문화와 사회에서 깊은 뿌리를 내린 개념으로 한국 문화에서 많은 의사소통이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무리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더라도 ‘선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모르면 의사소통의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선배’ 개념의 내부적인 의미를 찾는 것은 내가 한국 문화에서 경험한 나의 첫 여행이었다. 선·후배 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던 나의 한국 유학 생활은 내가 선배가 되면서 또 다른 문화적 여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한 나라의 전통 문화와 역사는 자기 언어로 표현되기 마

련이다. 사람들은 오늘까지 다양한 생활 방법과 사고방식으로 살아 왔기 때문에 사람마다, 국가마다 문화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다양성을 틀림이 아니라 다양함으로 바라볼 시선이 필요하다.

한국 유학생할 첫 날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쓴 동기가 되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도 경험하고 있는가? 고향에서 몇 년 동안 배우고 왔던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실제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인가? 한국문화를 자기문화와 비교함으로써 배우고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상호문화소통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찾기 위해 이 주제를 선택하였다.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한국문화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자기 자신의 경험을 검토하고 이에서 나타난 상호문화소통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함양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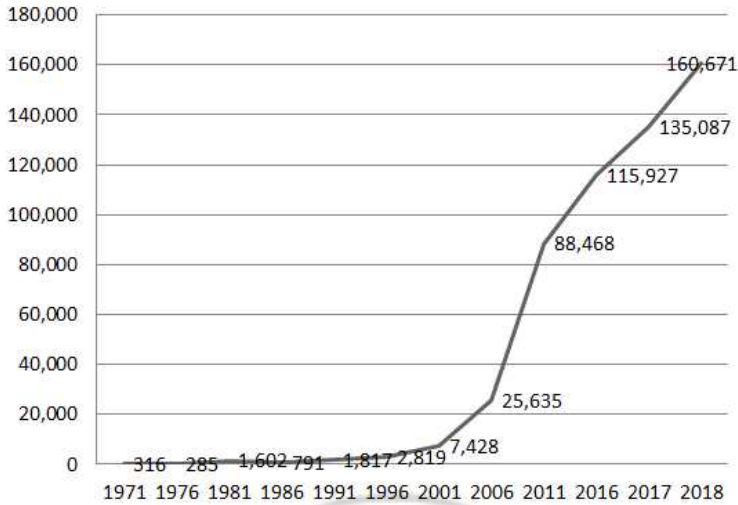
### 1. 제한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실제

#### 1.1.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에 공부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1967년 국립국제교육<sup>3)</sup> 기관이 운영하는 Global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이후 GKS로 칭함,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시작 이후에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사업 초기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의 유학으로 시작했지만, 차츰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1971)에 따르면 한국에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1971년도로 총 316명이다. 이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162명), 일본(46명), 중국(37명), 인도네시아(10명), 영국(10명), 홍콩(6명), 독일(4명), 필리핀(3명), 뉴질랜드(2명), 말레이시아(1명), 스위스(1명), 프랑스(1명) 등이다.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하고 이들에게 장학사업을 함으로써 국제적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 GKS 사업은 한국 내 유학생 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197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3) 한국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국제교육 전문기관인 ‘국립국제교육’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재외동포교육과 국제교육 교류를 위해 1962년에 서울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로 설립되었다가 나중에 1992년도에는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되었으며 2001년대부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장학사업과 국제교육 교류협력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 기관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한국의 인재개발 및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 기관으로서 한국의 교육국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 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교육 협력 또는 인재교류 확대를 위한 한국정부국제장학 프로그램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 등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 체류하는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 모국 방문연수사업 그리고 외국어 공교육 지원을 위한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강사 선발사업 등 국제교육과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71-2018년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 현황



[그림 1] 1971-2018년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위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71년에 316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1977년 483명, 1978년 694명, 1979년 1,107명, 1980년 1,212명, 1981년 1,602명). 이때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5년에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감하였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스리랑카, 미국과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 오는 유학생들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1984년에 말레이시아 74명, 인도네시아 168명, 인도 29명, 이란 39명, 스리랑카 34명, 미국 350명, 캐나다 81명이었으면 1985년에 말레이시아 61명, 인도네시아 3명, 인도 13명, 이란 4명, 스리랑카 0명, 미국 324명, 캐나다 15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1985년보다 약 2.5배 많은 수인 2,000여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한류 열풍과 2002년 한일월드컵의 영향으로 읽혀진다(박장순, 2012). 또한 한국에서 시행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힘입어 한국 체류

외국인의 수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1992년에 2,000여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은 2001년에 약 7,500명, 2003년에 약 12,000명, 2008년 약 70,000명, 2016년 약 11만 5000명으로 급증하였다.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약 16만 명이다. 이 수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64%(102,690명)는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이고 36%(57,971명)는 한국어 연수과정이다. 한국어 연수과정 이후 학위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통해 한국의 학문의 위상을 가능해 볼 수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내 체류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

구분	총계	유학(D-2)	한국어연수(D-4-1)
<b>총계</b>	<b>163,671</b>	<b>102,690</b>	<b>57,971</b>
중국	68,994	57,616	11,378
한국계	881	704	177
베트남	45,143	11,952	33,189
몽골	8,650	4,411	4,239
우즈베키스탄	7,840	4,365	3,475
일본	2,676	1,848	828
파키스탄	1,720	1,649	71
미국	1,720	1,561	157
네팔	1,636	1,426	210
인도네시아	1,520	1,340	180
인도	1,411	1,260	151
(타이완)	1,354	955	399
미국	1,210	1,061	147
방글라데시	1,206	1,139	67
말레이시아	1,075	894	181
프랑스	956	846	110
카자흐스탄	947	755	192
러시아(연방)	884	541	343
미얀마	790	526	264
(홍콩)	702	431	271
기타	11,957	9,675	2,27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위 <표 1>에서 제시한 국적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중국계 외국인 유학생들은 총 68,994명(한국계 881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은 45,143명으로 2위, 몽골은 8,650명으로 3위, 우즈베키스탄은 7,840명으로 4위 그리고 일본은 2,676명으로 5위이다. 그 다음 순위에 파키스탄(1,720명), 네팔(1,636명), 인도네시아(1,520명), 인도(1,411명), 타이완(1,354명), 미국(1,210명), 방글라데시(1,206명), 말레이시아(1,075명), 카자흐스탄(947명), 러시아(884명), 미얀마(790명), 홍콩(702명) 그리고 기타(11,957명) 등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을 통하여 각 대학이 세계화 시대에 맞는 대학교육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대학의 국제화란 국내 대학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체계를 지니고 외국에 있는 대학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육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대학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여 발전하게 된다(박시홍, 2011). 두 번째 목적은 ‘한류’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형성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 수요를 높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데 있다(김선태, 2005).

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기 위하여 시행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KS는 2004년의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과 2008년의 학생 유치 확대 발전방안(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사업과 연계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해외유학박람회개최,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내대학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은 2004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외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활용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구성한 정책이다(한경숙, 2012: 17). 2004년 11월에 교육과학기술부는 ‘Study Korea Project’를 수립하면서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을 유치를 목표로 하였지만 이 목표는 2007년도에 달성(49,270)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근 3년간의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를 고려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Study Korea

Project’ 수행으로 올린 성과와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2008년 제시하였다. 이 발전방안은 유학생들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둔 ‘Study Korea Project’에서 더 나아가 유학생들의 질을 제고하여 2012년까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

교육과학기술부는 ‘Study Korea Project’를 추진하면서 2004년 1만 6천명에 그치던 유학생 수를 2012년에는 8만 7천 명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2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Study Korea 2020’ 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질적 유학생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한국고등교육 브랜드 가치를 질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12).<sup>4)</sup>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가에서 시작하여 질적 증가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통하여 국내 대학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한국 입국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사회 및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Study Korea Project 2020’는 이런 목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로, 매년 해외에서 ‘한국유학 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국내에 유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사회나 문화, 또는 한국어교육 등 유학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국내 대학은 국제화되고 국내 학생들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되었다. 또한 거꾸로 한국에 유학으로 온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한국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노종희, 2003; 김오숙, 2014). 반면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변화에 아직 준비가 안 된 한국사회에서 이와 관련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다(정남조, 2010; 조수현, 2010; 김오숙, 2014).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학업성취가 저조해지면서 수학 중에 개인적 사유나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의 속행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옮기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들이

4) [http://www.moe.go.kr\(2017.11.09.검색\)](http://www.moe.go.kr(2017.11.09.검색))



나타나고 있다(나랑가라브, 2016).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질적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대학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를 도입하였다(김의수·이정현, 2017). 이는 보다 매력적인 유학환경을 조성하여 유학생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sup>5)</sup>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율, 외국인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화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학을 인증대학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17년 기준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 인증대학은 총 103개교(기준 1개, 신규 93개)다<sup>6)</sup>. 대학은 인증을 받은 후 외교부 재외공관과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대학으로 소개되는데 이런 인증대학 중에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평가된 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학생의 재정이나 학력입증 서류 없이 입학허가서만 제출받아 유학비자(D-2)를 심사한다(백성준, 2015: 72). 즉,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 인증제는 한국 대학 유학생 지원 또는 관리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14년 3월 6일에 교육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sup>7)</sup>. 지속해서 고등교육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성공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 등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정체되고 있었다. 또한 여전히 학업이나 생활 부적응, 또는 배타적 문화 등으로 반한감정을 지닌 유학생들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글로벌 친한(親韓)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유학생들의 생활 및 학업

5) <http://www.studyinkorea.go.kr>(2017.11.09.검색)

6) <http://www.studyinkorea.go.kr>(2017.11.10.검색)

7) <http://www.studyinkorea.go.kr>(2017.11.10.검색)

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현장 실천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 이 방안은 전략적 유학생 유치 가속화, 학업·생활적응 지원 강화, 그리고 취업 지원 확대 등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포함한다.

첫째, 전략적 유학생 유치 가속화 전략은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유학박람회 개최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교육원 역할을 강조하여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유학 브랜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업·생활적응 지원 강화는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맞춤형 어학기준 설정하여 유학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재학 중 시간제 취업 주당 허용시간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취업 지원 확대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뿐만 아니라 기업 및 연계한 국내외 취업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체류 자격 변경 허용 대상을 확대하고 Contract Korea 시스템으로 외국인 유학생 구인 및 구직 정보 탐색과 활용 기능을 강조한다(백성준, 2015: 73).

이와 같은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미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5년 2월 10일에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는 정부가 2014년 12월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휴먼 FTA(Free Trade Agreement)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sup>8)</sup> 휴먼 FTA(Free Trade Agreement)<sup>9)</sup>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8) [https://m.moj.go.kr\(2017.11.10.검색\)](https://m.moj.go.kr(2017.11.10.검색))

9) 2015년 한국 정부는 외국 인력에 대한 문호개방을 경제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다. 이는 낮은 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손질해 직종별 인력 비율 조정을 통해 기술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http://dic.hankyung.com;); 2017.11.15.검색)

(법무부, 보도자료).

첫째, 국내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고용하고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한국의 언어 및 문화를 잘 이해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국내 경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에서 제시된 체류요건 완화의 내용은 취업이나 구직자격 비자 취득의 요건 완화, 외국인 유학생들의 창업 환경 조성, 영주자격 취득 요건 완화, 그리고 부모 초청 허용 등 네 가지 차원을 포함하여 우수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 증가하는 다음과 같은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첫째, 1967년에 시작한 국립국제교육 기관의 Global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을 찾아오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둘째,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와 2002년 월드컵 경기는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한국에 대한 선진국 나라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어 한국에 유학으로 오는 동기가 되었다. 셋째, 1990년 말부터 시작한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한국문화나 한국사회, 또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성하여 한국에 유학을 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드라마를 통해 생긴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많아지게 되어 한국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게 되었다. 넷째, 한국 정부의 유학생 정책 특히 ‘Study Korea Project’는 해외에서의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에 유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프로젝트로 인하여 해외에서 매년 개최된 ‘한국 유학 박람회’가 한국 및 한국 대학에 대한 홍보가 되어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유학 박람회는 국내 대학의 국제화와 우수 해외 자원 유치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 대학별 입학 정보를 마련하는 행사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31개국의 169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다<sup>10)</sup>. 2017년

10) <http://www.yonhapnews.co.kr>(2017.12.06.검색)

에는 전 세계 11개국의 14개 지역(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아스타나, 대만의 타이페이, 이란의 테헤란, 러시아의 모스크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과 하노이)<sup>11)</sup>에서 이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 서울대, 부산대 등 모두 42개 국내 대학이 참여하여 대학별 입학 상담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즉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도 함께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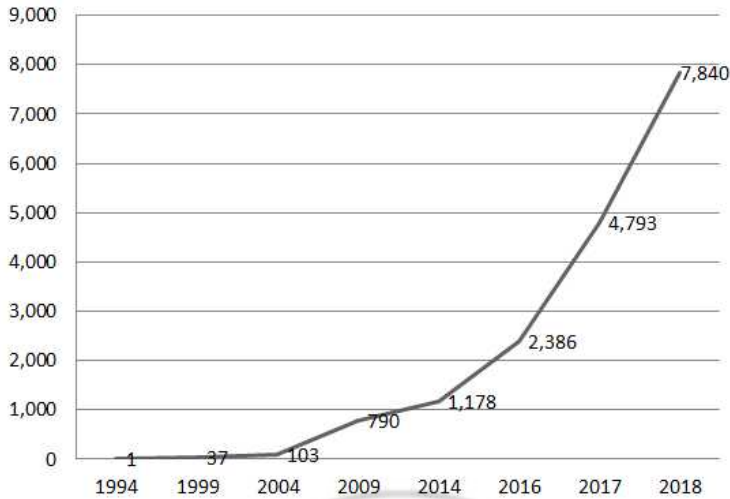
## 1.2.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1991년 소련이 붕괴한 후에 우즈베키스탄은 공화국이 되고 1992년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외교관계가 시작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것은 1992년으로, 그 목적은 외교(32명), 공무(7명), 단기자격(14명), 기타(14)이다. 두 나라간의 외교관계가 성립된 이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4년,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유학을 온 남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 이후 한국에 오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수는 증가하였는데 제시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

11) <http://www.niied.go.kr>(2017.12.02.검색)

1994-2018년 한국 체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현황



[그림 2] 1994-2018년 한국 체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현황

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은 1994년 이후 1999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였다(1994년 1명, 1995년 3명, 1996년 23명, 1997년 27명, 1998년 60명, 1999년 37명).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1999년 갑자기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그 다음 해인 2000년에는 유학생 수가 다시 전년과 같은 증가추세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그 전보다 증가추세가 급증하였다(2000년 61명, 2001년 73명, 2002년 76명, 2003년 103명, 2004년 139명, 2005년 185명, 2006년 236명, 2007년 486명, 2008년 790명). 이처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즈베키스탄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전공이나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1937년에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 1956년에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 사범대학교(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에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국어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1년에 우즈베키스탄이 공화국이 되고 1992년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외교관계가 설정된 이후에 이 교육은 모든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어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1992년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이 설치되었고 현재 우즈베키

스탄의 5개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이나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교, 1956년도 한국어 전공과정 개설; 타슈켄트 국립 동방대학교, 1991년도 한국어 전공과정 개설; 타슈켄트 국립 외교경제대학교, 1994년도 한국어 강좌 개설; 타슈켄트 국립 세계 언어대학교, 1998년도 한국어 강좌 개설;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교, 2000년도 한국어 강좌 개설).

둘째, 1999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주로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 청소년들에게 한국은 경제·기술·의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한 나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가 발전된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많은 청소년 및 젊은이들의 꿈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드라마에서 봤던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한국드라마 장면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한국드라마에서 느꼈던 공부에 대한 열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한국드라마에서 들었던 귀엽고 부드러운 한국말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배우고 한국사회 구성원들과 직접 대화해보고 싶은 희망과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유학으로 오게 된 큰 동기가 되었다.

현재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수는 2014년 1,178명, 2016년 2,386명, 2017년 4,793명, 2018년(12월 기준) 7,84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 통계월보(2018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재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160,671명이며 이 중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7,840명으로 한국 내 전체 유학생의 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체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56%는 유학(학사·석사·박사)과정이고 44%는 한국어연수 과정이다.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다음의 네 가지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외교적 차원이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1992년에 외교관계가 설치된 후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뛰어난 인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5개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이나 한국어 강좌가 설치되었다.

둘째, 문화적 차원이다. 1999년 말부터 우즈베키스탄의 방송국에서 우즈베키어나 러시아어로 방송된 <별은 내 가슴에>, <겨울 연기>, <대장금>, <주몽> 등 한국드라마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한국을 비롯해서

한국의 문화나 사회, 또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울러 한국드라마를 통해서 형성된 한국의 특히 경제·기술적 발전 이미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유학으로 온 동기가 되었다.

셋째, 경제적 차원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373개의 한국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투자자를 비롯한 외국투자자관의 19개의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다.<sup>12)</sup> 그러므로 이런 기업들에 취직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인재들이 한국에 유학 및 한국어 연수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넷째, 교육적 차원이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행하고 있는 한국 유학 박람회<sup>13)</sup>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유학 오는 큰 계기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은 2016년 5월 28일(토) ~ 6월 2일(목)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유학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 박람회에서 42개의 한국 대학은 타슈켄트에서 유학생 유치에 관한 한국유학 홍보를 하였으며 이 행사에서 10,000명 이상의 현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교육부 소식, 2016).

아울러 2014년에 인하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인하대 타슈켄트 캠퍼스(Inha University in Tashkent: IUT)<sup>14)</sup>를 개교하였다. 이 대학은 최근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IT교육 전문대학교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국내 및 국제 대학 중, 5위(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 인하대학교는 외국인에 대상으로 한 국제학부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에 더 많이 오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다. 국제학부의 목적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다. 이 학부의 2017년 1학기 첫 입학생은 총 49명이며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46명과 카자흐스탄 유학생 3명이다. 그리고 2017년 2학기 입학생은 모두 30명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sup>15)</sup>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타슈켄트 인하대학교 및 IT 전공이 우즈

12) 주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대사관(<http://uzbekistan.or.kr>, 2017.12.01.검색)

13) 한국 유학 박람회란 국내 대학의 국제화, 우수 해외 자원 유치 등을 으로 하여 해외에서 국내 대학별 입학 정보 등을 마련하는 행사이다(<http://www.yonhapnews.co.kr>, 2017.12.01.검색).

14) 인하대학교 홈페이지(<http://www.inha.ac.kr>, 2017.12.01.검색)

15) <http://www.inha.ac.kr>(2017.12.02.검색)

베키스탄에서 끝났던 인기와 관심을 끌면서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2018년 한국의 부천대학교가 타슈켄트에서 분교(Bucheon University in Tashkent)를 설립하였다. 이 대학교는 유아교육학과와 유아심리학과를 포함한다.

## 2. 상호문화와 상호문화소통

### 2.1. 상호문화의 이해

#### 2.1.1. 상호문화성의 특징

모든 문화는 보편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지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차이점도 가진다. 주변 환경에 대한 인간의 대응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즉, 문화적 차이는 다른 문화권과 대비되고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타문화를 배척하고 자기중심문화를 내세우는 위험성을 가진다.

문화는 타문화를 배척하고 자기문화만을 내세우는 경향을 지니기보다는 상호결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하자면, 문화는 타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즉, 문화와 문화 간의 접촉 및 교류는 궁극적으로 어떤 공유될 수 있는 지점으로 수렴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더 나아가 보편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박인철, 2015). 이처럼 문화와 문화 간의 접촉 및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개 문화의 변화, 또는 이에 수반되는 상호융합의 현상과 가능성을 ‘상호문화성’이라고 정의한다.

상호문화는 문화 간의 대화 및 연결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현남숙·김영진, 2015). ‘Inter’라는 접두사의 의미를 최대한 고려한다면, ‘interculture’이라는 단어는 상호작용, 교환, 장벽 제거, 상호성, 진정한 연대성을 의미한다(Carlo, 1998: 50). 아울러 ‘inter’의 일차적 함축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이미 언제나 주어진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소통’ (허영식, 2015: 57)을 강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상호문화는 영어로 ‘intercultural’ 또는 ‘cross-cultural’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개념 간의 차이점이 있다. ‘intercultural’은 내부적 문화 및 상대주의적 문화 관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간에서 발생하는 이질성에 기반을 둔 상호교류적인 개념으로 에믹(emic)의 관점을 지닌다. 반면에 ‘cross-cultural’은 한국어로 ‘교차문화간’이라고 번역되며 대조문화, 또는 보편 문화적 관점에서 두 개 이상의 문화권에서 유사한 점으로 발견되는 공통적인 개념 및 요인에 관련된 현상으로 에틱(etic)의 관점을 가진다. 앞에서 볼 수 있듯이 ‘intercultural’의 교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룹이나 다른 문화권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현상과 차이점이 있다. Gudykunst(2002)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intercultural’ 용어를 통해 ‘대면’ (face-to-face)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이 현상은 특성 문화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개념이다(Arasaratnam & Doefel, 2015; Kim, 1991).

‘Intercultural’을 표현하기에는 ‘문화간’, ‘이문화간’은 다른 문화라는 특징이 강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상호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0세기 초에 독일 사회학자인 G. Simmel은 상호문화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Simmel은 타자, 이방인 또는 이주민의 긍정성 및 사회적 필연성을 연구하고 언급하였다. 그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이주현상을 분석하였으며 이주가 일시적, 우연적 현상이 아니라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학적 및 인식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며, 그는 특히 ‘다양성의 인정’을 언급하였다. 그의 주장은 특히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떠난 독일 학자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의 결과로 인하여 1924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에서는 상호문화교육국이 생겼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기존의 동화주의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에서는 다문화주의와 그에 기초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상호문화 개념은 개발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에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국내에 유입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을 통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

데, 이로 인하여 서유럽국가에서 상호문화 개념이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장한업, 2014: 118).

상호문화 개념이 한국에 도입되고 사용되고 있는 배경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1990년 이후에 유입이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 고령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2001년과 2004년에 한국 정부가 실행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으로 인하여 학문 목적으로 한국을 찾아오기 시작한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인종·민족이 혼합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히 언어 및 문화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문화 및 상호문화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상호문화성의 핵심은 문화와 문화 간의 관계맺음에 있다(박인철, 2015). 상호문화성은 문화와 문화의 단순한 접촉 및 교류가 아니라 문화 속에 내재한 보편적 성격과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유대감, 또는 내적 연관성이다(선행철 외, 1997). 즉, 상호문화성은 개방성을 가지고 자기가 공유하는 문화와 같은 자리에서 타문화를 바라보고 공감하며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호문화성의 본질을 탐구하려면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상호문화 개념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등장한 철학이며 이는 자기중심성을 비판하여 문화들 간 동등한 만남 및 소통을 강조한다. 상호문화는 ‘상호문화성(interculturally)’이라는 개념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며 이의 주요 목적은 “서구 철학이 보편 철학인 듯 자기 우월의 방식으로 다른 문화권의 전통을 대상화시키며 그들이 가진 철학적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을 비판하고 다양한 문화들의 사유가 평등한 권리를 지니며 진정한 세계 철학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기획”이다(최현덕, 2009: 303). 상호문화성은 1990년대 이후에 교통 및 인터넷 등의 통신 발달, 그리고 경제적인 교류의 확장,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됨으로 인하여 주목받게 되었다.

상호문화성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성을 논의한 학자들은 Mall, R. A., Fonet-Betancour, R., Wimmer F. M. 등이다. Mall은 상호문화 논의에서 해석학의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Fonet-Betancour는 문맥성 및 현실변혁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Wimmer는 대화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 (주관승, 2016). 상호문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Mall은 상호문화 개념의 대상과 더 나아가 상호문화 그 자체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Mall에 따르면 상호문화성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문화 - 이것이 유럽적 문화이건 비-유럽적 문화이건 간에 - 의 보편화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문화성은 초-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교육적 관점 등을 지닌 하나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철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의 철학을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종교를 특정 종교가 절대적-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호문화성은 여러 이름을 가진 하나의 진리를 원-종교적으로 확신하는 상호 종교성 내에서 자기 자신의 대응물을 지니게 된다. 정치적 관점에서의 상호문화성은 정치적 지혜를 어떤 정당, 집단 및 이데올로기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태도를 말한다. 아울러 교육적 관점에서의 상호문화성은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다른 관점, 즉 종교, 정치, 교육 등을 통찰하며 조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Mall, 1996).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관점은 열린 사회를 전제할 뿐만 아니라 열린사회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Mall의 동일성 모델이 자문화적 전통을 보편적으로 설정하며 그중심으로의 통합을 시도하기에 다른 문화의 고유성을 말살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차이의 모델은 타자 인정의 측면에서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들 간의 차이를 절대시하기에 대화 가능한 출발점을 찾을 수 없고 상호관계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을 근거로 하여 말은 문화의 ‘동일성’ 또는 ‘차이성’을 넘어 문화의 유비적 ‘겹침’으로 상호문화관계성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모더니즘이 동일성과 초포스트모더니즘의 차이 모델의 양극단을 극복하면서 문화들 사이에 소통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조해정, 2014; 최현덕, 2009 재인용). 주관승(2016)은 Mall이 주장한 유비의 해석학, 또는 겹침의 해석학은 아직 완결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고 비판하였다.

Fornet-Betancour는 문화 간 철학적 소통을 위해 철학이 이론 및 사상을 형상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세계에 대한 지혜로서의 앎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구체적 맥락 및 세계에 대한 앎을 나누는 상호문화적인 철학 안에

서 자기 방법을 찾게 된다고 주장한다(이선, 2008; 최현덕, 2009 재인용). 다시 말하자면, Fernet-Betancour에 있어서 상호문화 철학은 “문화의 다성적 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에 대한 탐구”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문맥성이란 다양한 사고방식 간의 내용이 풍부한 대화의 한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다양성은 대화를 가능하고 필요하게 만드는 문맥으로부터 구성된다. 아울러 Fernet-Betancour는 대화의 또 다른 조건으로 시간을 제시한다. 그는 대화나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 소유된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 얻었던 배움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주관승, 2016). Fernet-Betancour에게 있어서 배움이란 타인이나 타인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나 가치를 포함한 자기의 것을 타인의 입장이 되어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상호문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Wimmer은 중심주의를 비판하여 Polylog의 모델을 세웠다. Wimmer는 서구 중심주의뿐만 아니라 ‘종족적 철학(Ethnophilosophie)’에도 거리를 두는데 이는 객관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는 “각각의(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맥으로부터 벗어나서 “객관적이며 사태에 맞게” 되기를 원한다. 주관승(2016)은 Polylog 모델을 특유의 형식주의라고 보고 Polylog과 비슷한 대화 및 소통, 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위 학자들의 상호문화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Mall은 상호문화에서 해석의 문제, Wimmer는 대화의 방향성 문제 그리고 Fernet-Betancour는 문맥성 및 현실변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Mall은 유비적 해석학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그에 따르면 타자와 차이의 파악을 방해하는 한 해석학은 대화 및 소통 또는 상호 변혁을 추구하는 상호문화의 필수적 조건이다. 그러나 Mall의 유비 및 겹침의 해석학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한계점이 있다(주관승, 2016). Mall에 의하면 논리학들의 겹침은 ‘추론들의 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지만 사실상 이 겹침은 모호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Wimmer는 자기의 ‘Polylog’ 모델에서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이론을 만들었다. Wimmer의 Polylog는 특유의 형식주의이며 위선적이 될 우려가 있다(주관승, 2016).

위에서 살펴본 세 명의 학자들은 상호문화 이해가 이루어지 위해 자기중심주의를 없애야 하고 타자의 입장이 되어 자기 자신을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유사하게 주장한다.

상호문화성은 개별문화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문화적 보편성을 제시하고 자기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타자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는 태도나 행동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호문화성은 우리가 사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 필수적이며 이는 특정한 문화가 다른 문화들을 지배하거나 획일화하는 것을 비판하고 전 세계의 문화가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의 접촉과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성은 자국 문화에서 볼 수 없거나 느낄 수 없는 다른 세계관 및 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게 한다. 최근에는 굳이 외국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갈등이나 소외 없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상호문화성이 지닌 깊은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 2.1.2.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와 출현 배경

상호문화교육을 파악하기 위해 상호문화와 교육이라는 용어들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C. Clanet(1993)는 상호문화는 문화들이 맺는 관계의 복합성 개념과 교류의 상호성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성은 상호문화교류의 관계 내에서,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존중이라는 관점 속에서 문화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 심리적, 관계적, 집단적, 제도적 -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장한업, 2013). 다시 말하자면, 상호문화는 문화와 문화가 접촉할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의 독특한 양식, 또는 그것으로부터 발생한 일련의 변화 및 변형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Clanet(1993)는 교육이라는 개념을 “아동을 맡고 있는 성인이 이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발전시키며, 이 아동이 살아갈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실행하는 행위” 라고 설명

한다(장한업, 2013). 즉, 교육은 인간이 한 사회 속에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Doye는 상호문화교육 개념이 등장한 이유 및 수행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상호문화교육은 1970년대 초에 모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런 초기 시도의 특징은 학교로 하여금 차이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시도는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다양한 출신 문화들을 존중하고 인정함으로써 외국인 출신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기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980년대부터 상호문화 개념은 점점 외국어교육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외국문화 학습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 및 의사소통능력의 습득은 학습자가 자라온 사회, 즉 그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신념, 정의, 가치, 태도, 행동 그리고 모국어 습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언어학자들이 외국인에게 원어민의 문화 능력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에 속하는 기제를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학습자는 자신이 공유하는 문화의 암시적인 분류기준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외국문화가 세계를 나누는 암시적인 원칙을 그만큼 깊이 객관화하여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호문화교육은 한편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미지의 사람이 주는 불안감을 감소하게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함정 속에 빠지지 않고 외국문화와의 접촉 경험을 일반화하게 한다. 이것은 외국 언어 및 문화 교수법이나 교육학의 과제이다 (Carlo, 1998).

상호문화교육은 자기가 가진 민족중심주의, 이국적 취향, 범주화, 고정관념 그리고 선입견을 배제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상호문화교육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Abdallah-Preteille(1999)에 따르면, 상호문화교육은 자기와 자기 집단에 대한 활동이고 ‘너’ 나 ‘그들’ 만큼 ‘나’ 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모든 질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과 겹친다고 주장한다. 그는 상호문화교육의 다음 세 가지 필요성을 제시한다(장한업, 2015).

첫째, 현재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사회는 다문화사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다.

둘째, 각각의 문화는 고유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있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주의는 잠재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Abdallah-Pretceille가 주장하듯이 현재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고 이때의 상호작용이나 상호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럴 때에는 원활한 상호관계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이 바로 상호문화교육이다.

상호문화교육의 ‘목표’, ‘내용’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학자들은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Abdallah-Pretceille는 상호문화교육을 단순한 교육적 선택이 아니라 교육철학이자 현사회의 지향점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장한업, 2015).

첫째, 현대 사회는 교통수단 및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교류와 지적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고 있다. 이 결과로 개인은 일상생활 내에서 이질성 및 다양성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다.

둘째, 세계화와 지구촌화로 바꾼 우리 사회에서 단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며 공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행동하기’가 요구된다.

셋째,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주의, 자민족중심주의 그리고 자문화중심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및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1세기 교육에 관한 국제 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의 결론에 의하면, 상호문화교육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서종남, 2012). 첫째, 알기 위한 배움이다. 이는 보편적인 아는 지식을 이용하는 것을 배움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교육은 한 인간을 타 언어 및 지식의 영역에 접하도록 이끌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둘째, 행하기 위한 배움이다. 이 개념은 직업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및 조직을 이루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에 대한 배움을 뜻한다.

셋째, 함께 살기 위한 배움이다. 이는 다원주의의 가치와 상호이해 그리고 평화, 또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비롯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 공동체 안에 갈등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에 대한 배움을 말한다.

넷째, 존재하기 위한 배움이다. 이 개념은 자신의 개성을 보다 더 개발시키고 보다 더 높은 자율성 및 판단력, 또한 책임감을 지니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존재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경험도 해보는 것, 현대 다문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는 데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과 접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상호의존성 및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율성, 판단력 및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등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Clement(2001)은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한다(장한업, 2015). 첫째, 자기중심에서 벗어나기이다. 이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집단을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둘째,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이다. 이는 공감이나 감성이입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과 더불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셋째, 협력하기이다. 이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타인이 현실과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기이다. 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해독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Clement(2001)가 제시한 상호문화교육 방법에 근거하여 제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Clement가 주장한 상호문화교육 방법은 이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UNESCO의 상호문화교육 지침(2006a)은 상호문화교육을 강조한다. 상호문



화교육 분야에서 국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UNESCO, 2013).

첫째, 상호문화교육은 규정을 통해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한다. 모든 학습자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신속한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상호문화교육은 모든 학습자에게 사회에 적극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문화적 지식, 태도 및 기술을 마련하게 한다.

셋째, 상호문화교육은 모든 학습자에게 개인, 민족, 사회, 문화 및 종교 단체 및 국가 간의 존중, 이해 및 연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지식, 태도 및 기술을 제공한다.

위에서 제시된 원칙은 교육의 세 번째 기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함께 사는 법 배우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정신으로 다원성, 상호이해 및 평화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관련된다. 이는 또한 ‘모든 민족, 인종 및 종교 단체 간의 이해, 관용 및 우정을 증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인권 선언의 조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UNESCO, 2013). 이와 같이 상호문화교육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촉할 때 원활한 소통을 제공해주며 모든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호문화교육은 한 개인이나 여러 가지의 집단들 간의 존중과 이해를 위해 필요한 요소인 문화적 태도와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것이다.

## 2.2. 상호문화소통과 역량

### 2.2.1. 상호문화소통 개념의 정의

각 나라는 국경이 있지만,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 국가 간의 교류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당 국가 출신이 아닌 외국인을 만날 수 있으며, 다른 문화를 가진 외국인과의 소통은 피해가기가

어렵다. 소통은 문화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소통은 언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측면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침묵을 지킨다고 해도 소통은 이루어진다. 소통은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관계를 지니는 행위나 과정이고, 이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상징체계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감정과 사상, 정보 등을 주고받는 현상이다.

접두어 ‘상호’로 형성된 ‘상호문화소통’ 개념의 함축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소통’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 현상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접촉이나 소통에서 발생한다. 상호문화소통을 “한 문화권의 사람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처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Samovar, Porter, McDaniel, Roy, 2015) 또는 “상호작용에서 문화가 문 제시될 때의 소통”(Piller, 2011; 문영인, 2017)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영어로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개념은 한국어로 ‘상호문화 의사소통’, ‘상호문화소통’, ‘문화 간 의사소통’, ‘문화 간 소통’, ‘다문화 간 의사소통’ 등의 여러 개의 용어로 번역이 된다. 소통’이나 ‘의사소통’의 영어 대응어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라틴어로 ‘나누다(communicare)’라는 의미를 지닌다.<sup>16)</sup>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은 소통의 개념을 두 가지 나누어서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고 둘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다(표준국어대사전: 4888). 이 두 가지 뜻은 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아무 오해나 갈등 없이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

16)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이나 ‘의사소통’ 개념을 유사한 점으로 본 학자들(김순임, 2005; 윤용선, 2006)이 있는 반면에 이 둘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 학자(이성범, 2015)도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이 둘 개념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한국어로 ‘소통’은 ‘잘 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반면, 영어 ‘커뮤니케이션’은 라틴어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현재 다음과 같은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첫째, 말하기, 쓰기 또는 다른 매체를 사용하여 정보를 나누거나 교환하는 행위(The imparting or exchanging of information by speaking, writing, or using some other medium)이다. 이는 통신 의미이다. 둘째, 전화선이나 컴퓨터와 같은 것으로 정보를 보내거나 받을 수단(Means of sending or receiving information, such as telephone lines or computers)이다. 이는 전달 의미이다. 셋째, 도로 또는 철도와 같은 여행이나 교통수단(Means of travelling or of transporting goods, such as roads or railways)이다. 이는 교통수단 의미이다(이성범, 2015).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커뮤니케이션은 통신, 전달 그리고 교통수단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이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며 이를 의미의 공동 구축 (또는 공동 건설)으로 간주되어야 한다(Galanes & Leeds-Hurwitz, 2009; 유네스코, 2013)”라고 정의하므로 이 개념을 한국어로 ‘소통’ 또는 ‘의사소통’으로 번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필자는 이 둘 개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소통’에서의 ‘소’는 ‘트다, 트이다, 조밀하지 않고 성기다’라는 뜻을 낼 수도 있고 ‘발’을 의미하는 ‘足’에 ‘흐르다’는 뜻에 ‘傳’가 붙으면 ‘물처럼 잘 흐르다, 잘 통하다’라는 의미를 낸다. 뿐만 아니라 ‘소통’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다’ 또는 ‘공기 소통이 잘 되어 쾌적하다’ 등과 같이 말의 뜻 밖에도 다른 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 ‘말의 뜻이 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소통’ 앞에 ‘의사’(意思)라는 ‘뜻’과 ‘의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붙어 ‘의사소통’이라는 표현으로 특성해서 사용한다(이성범, 2015: 11).

학문분야로서의 상호문화소통은 1960년대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등장하였다. 상호문화소통이라는 용어를 미국의 민족학자이면서 행동연구자인 Hall은 “The Silent Language(1959)”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Hall에게 있어서 상호문화소통이란 문화적 특성 및 소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집단과 집단 간의 문화적 패턴이나 언어 및 비언어적 코드, 인간관계의 규칙 및 역할, 그리고 사회적 인식(Lusting & Koester, 2006) 등에서 잘 드러난다.

1980년대 이후 특히 독일·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 상호문화소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호문화소통은 유럽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상호문화소통의 목적은 다른 문화, 다른 관습, 역할 규칙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행동 방법을 이해하고 즐기고 도와주는 데 있다(구현정·전영옥, 2017: 27). 상호문화소통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은 상호문화소통 개념 정립(이수범, 2004; 유수연, 2012; 김순임·민춘기, 2014), 한국인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접촉할 때 일어나는 상호문화소통(김숙현 외, 2001; 최윤희·김숙현, 1997)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수범(2004)은 상호문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실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탐색하였다. 그에 따르면 비영어권자들은 다른 비영어권자와 상호문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있어서 반복과 간섭을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소통하지만 영어권자들과 상호작용 경우에는 이러한 소통이 줄어든다.

유수연(2012)은 상호문화 의사소통능력을 네 가지, 즉 인지적 지식, 언어학

적 지식, 상호문화성 그리고 상호작용 내 행위능력 등으로 분리하여 이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상호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라는 강의를 개발하고 한 학기 동안 수행하였다.

상호문화소통은 자기 문화와 낯선 문화가 접촉하면서 관계를 맺게 되면 발생한다. 고유문화가 이방문화와 만나면서 나타난 이러한 중간지대 상호문화소통은 때로는 위협적으로, 때로는 고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그의 특성 및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문화뿐만 아니라 자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이 두 문화가 접촉하면서 이루어지는 상호문화 행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상호문화는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상호문화소통하면서 만들어내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문화이다.

## 2.2.2.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개념 및 모델

상호문화 역량에 관한 주제가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데 상호문화 역량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 나이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의지력과 역량으로 개발되고 개선될 수 있다. 상호문화 역량은 모든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 능력으로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사회에서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관, 견해, 삶과 사고방식에 대한 민감성과 이해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는 상호문화 역량의 개발을 통해 가능하다.

21세기 들어서 상호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은 모든 영역에서의 핵심자질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상황이 보이는 사회집단과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대학원의 경우, 상호문화 역량증진을 커리큘럼이나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대학원의 특성으로서 '글로벌 시민 정신'에 관한 논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많은 다른 정의와 이해를 이끌어 낸 많은 연구가 이 분야에서 착수되었다.

상호문화 역량은 특정 태도, 상호문화 지식, 기술 및 반성에 근거하여 상호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이며 이것을 Chen과 Starosta(1996), Byram(1997), Guilherme(2000), Deardorff(2006), Hunter, White, Godbey(2006), Fantini(2009), Moloney와 Harbon(2010) 등의 학자들이 개념화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상호문화 역량 개념의 범주화

학자	구분 내용
Bayram(1997)	언어 능력, 사회언어 능력, 담화 능력, 상호문화 능력
Schugk(2004)	언어, 비언어적 요소, 사회적인 행동양식, 사회적인 관계, 동기,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Chen & Starosta(2005)	개인의 태도(자아 노출, 자아 인식, 자아 개념, 사회적 이완), 의사소통 기술(메시지 기술, 사회적 기술, 융통성, 상호작용 관리), 심리적 적응(좌절, 스트레스, 소외감, 모호성), 문화 인식(사회적 가치, 사회적 관습, 사회적 규범, 사회적 체계)
Fantini(2006)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상호가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는 능력, 최소한의 오류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상호적 관심이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
Deardorff(2006)	지식, 기술, 태도

위<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Chen과 Starosta(1996)는 상호문화 역량을 특수한 물리적이거나 상징적인 환경을 지닌 사람들 간의 적절하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ayram(1997)의 상호문화 역량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상호문화 역량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상호문화소통에 대한 지식, 낯선 것에 관심 및 공감을 가진 태도, 해석, 관련 그리고 발견 기술 등을 포함하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 간의 접촉을 즐기는 능력이다. 그리고 Paige 외(1999)는 상호문화적 현상에 관한 지식(문화적응 단계, 문화 충격, 상호문화 개발, 문화학습,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소외 등), 상호문화 행동 기술(문화학습 전략, 스트레스 관리 전략, 상호문화소통 역량, 상호문화적 관점 취하기, 문화적응 가능성 그리고 초문화적 능력 등), 문화 보편적 차원의 태도(상이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문화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문화 차이에 대한 민족상대주의적 태도 등)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상호문화 역량이라고 설명한다(김순임·민춘기, 2014). 상호문화 역량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언어적인 의미를 강조한 Fantini(2006)에 따르면 상호문화 역량은 언어적이거나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이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다. Deardorff(2006)에 있어서 상호문화 역량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호문화적 지식, 기술과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작용, 즉 상호문화적인 상황에서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 또한 Tomas(2003)는 상호문화 역량을 오해를 피하거나 문맥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 과정을 형성하는 한편, 모든 관련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협동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상호문화 역량에 대한 UNESCO(2013)의 정의에 따르면, 상호문화 역량이란 특정 문화에 대한 적절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구성원이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용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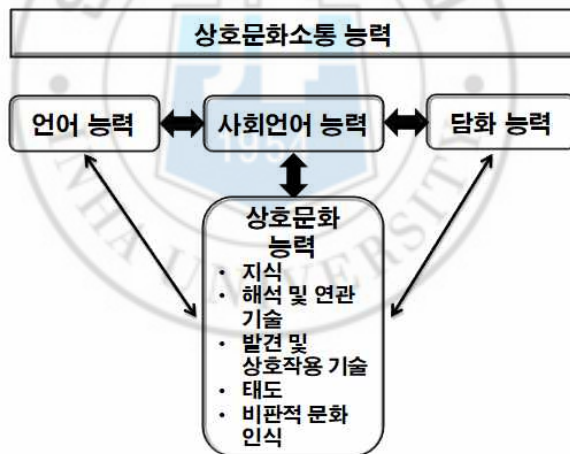
상호문화 역량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문화 역량은 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촉할 때 효과적이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위한 요구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상호문화 역량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능력이다. 상호문화 역량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소통 역량(ICC: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sup>17)</sup>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이루어져왔다. 상호문화 역량은 상호문화 대면 상황에서 상이한 의미 및 기대를 충족시키는 대인 사이에 고도의 소통 역량을 말하며 상호문화소통 역량이란 성공적인 목표 충족을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상호작용 또는 맥락에 적절한 방식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민춘기, 2015).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개념은 다양한 이론적 렌즈를 통해 연

17) 1970년 초에 심리학자인 David McClelland는 역량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에 따르면 역량이란 직무와 높은 고성과자를 분리해주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Boyatzis(1982)는 McClelland의 역량과 관련 연구를 관리자 영역으로 확장하고 12개 조직에서의 2000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21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역량 모델을 만들었다. 그에 의하면 역량이란 어떤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개인이 지닌 내재적인 것이다. David McClelland과 유사한 관점을 가진 Spencer와 Spencer(1993)는 역량은 다섯 가지로, 즉 ①동기(motives), ②특질(traits), ③자아개념(self-concept), ④지식(knowledge), ⑤기술(skill)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역량이란 직무나 상황에서 뛰어난 수행, 또는 준거 관련 효과 및 연관된 개인의 특성에 기초를 의미한다. Sparrow(1996)는 역량을 ①조직역량(핵심역량), ②관리역량, ③개인역량(직무역량)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http://learnx.tistory.com>, 2017.03.08.검색).

구되어 왔다. 상호문화소통 관점에서 상호문화 역량의 다음과 같은 모델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상호문화 감수성 발달 모델(Bennett, 1986), 불안/불확실성 감소 모델(Gudykunst, 1993, 1995, 2002; Stephan, Stephan & Gudykunst, 1999), 정체성 협상 모델(Ting-Toomey, 1993), 상호문화 역량 모델(Spitzberg, 1997), 상호문화 역량의 차원적 모델(Byram, 1997), 상호문화 역량의 피라미드 모델(Deadorff, 2004), 상호문화 역량의 과정 모델(Deadorff, 2006),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Arasaratnam, 2006), 상호문화 역량의 차원 모델(Fantini, 2000, 2005, 2006) 등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상호문화소통 역량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yram(1997)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의 문화적 차이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감소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상호문화소통 역량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Byram은 다음 [그림 3]과 같이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림 3] Byram(1997)의 상호문화소통 역량 모델

위의 [그림 3]과 같이 Byram은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먼저 4가지, 즉 언어 능력, 사회언어능력, 담화능력, 상호문화능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이 중에서 특히 ‘상호문화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호문화 역량을 5가지로, 지식, 해석 및 연관 기술,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 태도 그리고 비판적 문화 인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지식이다. 이는 자기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나 문화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타인, 즉 소통하고 있는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특히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은 상대방에게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편견이나 차별 나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 해석 및 연관 기술은 자국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역량이다.

셋째,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이다. 이는 자국과 타문화에 대해 이미 배웠던 지식, 습득한 기술 및 태도를 실생활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넷째, 태도이다. 이는 타인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감과 호기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언어 및 문화를 머릿속에 아무리 잘 습득하고 존중해도 그것을 자기의 태도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다섯째, 비판적 문화 인식인데 이는 타인에 대해서 배웠던 지식이나 태도를 통해 발생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말한다. 아울러 이런 정체성을 통해서 형성되는, 고유문화와 타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도 여기에 속한다.

위에서 살펴본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대한 Byram의 분류를 종합해보면,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언어, 사회언어, 담화 그리고 상호문화 역량 등으로 구성되며 이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성공적인 상호문화소통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Fantini(2000, 2005, 2006)가 구분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소연, 2017). 첫째, 개인적 특성으로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선천적과 후천적 특성으로 분리되고 공감이나 호기심, 유머, 흥미, 유연함, 참을성, 개방성, 관용, 판단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관계를 맺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 최소한의 오류로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상호간의 흥미 또는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능력 등 세 가지 영역이 포함된다.

셋째, 지식, 태도, 기술, 인식 등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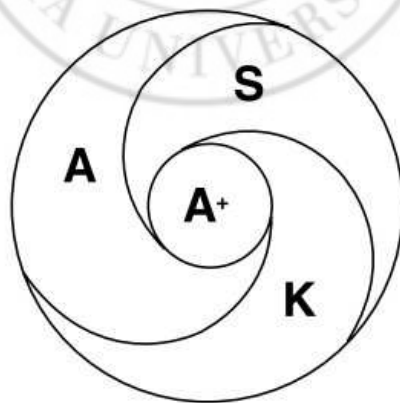
넷째, 목표 언어의 속달도이다.



다섯째, 발달 단계이라고 하며 이는 학습 여행자 단계(1-2개월), 체류자 단계(3-9개월), 전문가 단계, 상호문화 전문가 단계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Fantini가 제시한 상호문화소통 역량 구성 요소는 제2언어를 가르치거나 습득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상호문화소통을 할 때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Fantini가 언급한 네 가지 차원은 효과적인 상호문화소통을 마련해주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인식, 태도, 기술 및 지식을 포함하는 Fantini(2000)의 상호문화 역량 모델은 Byram(1997)이 제시한 모델과 유사점이 많으며 그는 언어 교육에 있어서 상호문화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 학습자가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더 나은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인식, 태도, 기술 및 지식을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언어로 다른 사람들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Fantini는 자기 인식과 반성에 관한 인식은 “자신의 발달로 인해 더욱 강화된 것처럼 더 깊은 인식, 기술 및 태도를 이끌어낸다”고 언급한다. 아울러 그는 상호문화 역량 개발을 위한 좋은 조건은 긍정적인 환경에서 다른 언어 및 문화권 사람들과의 접촉 및 경험이라고 강조한다. Fantini(2000)가 제시한 상호문화 역량의 모델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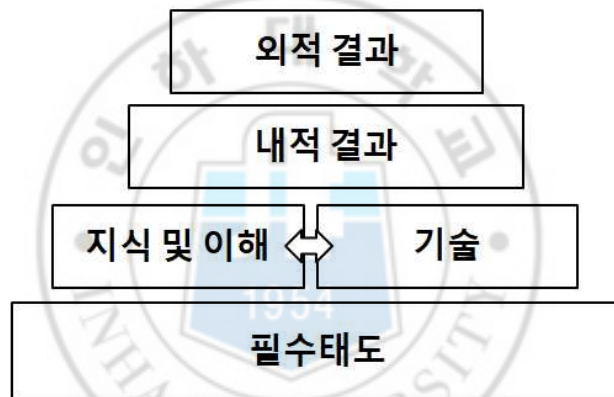


[그림 4] Fantini(2000)의 상호문화  
역량 모델

위에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앞에서 살펴본 Byram(1997)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구성 요소와 유사하다. 다만 Byram은 상호문화소통 역량 중에 ‘태도’와 ‘지식’을 중요하다고 본 반면에 Fantini는 ‘인식’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자국문화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타문화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느꼈던 차이점을 존중하며 이런 상황에 맞게 적절한 태도를 보여주고 자기와 타문화 간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Deardorff(2004)는 상호문화 역량의 피라미드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상호문화 역량의 피라미드 모델(Deardorff, 2004)

위 [그림 5]에서 제시한 피라미드 모델의 첫째 요소는 외적 결과(Desired External Outcomes)이며 이는 상호문화 지식, 기술, 태도에 근거하여 자신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행동 및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요소는 내적 결과(Desired internal outcome)이다. 이는 준거틀(Informed frame of reference/filter shift)는 적응능력(다른 의사소통 방식, 행동, 새로운 문화 환경), 융통성(적절한 의사소통 방식과 행동 선택, 인지적 유연성), 민족상대주의적 관전(ethnorelative view), 공감(empathy)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셋째, 지식과 이해(Knowledge & Comprehension)이다. 이는 문화적 자기 지각(cultural self-awareness),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문화의 맥락, 역할과 영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 포함), 특정 문화의 대한 지식(cultural-specific information), 사회언어학적 지각(sociolinguistic awareness)을 포함한다.

넷째, 기술(Skills)이다. 듣고, 관찰하고, 해석하기(민족 중심주의를 확인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인내를 사용하여 문화적 단서와 의미를 찾는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관련짓기(분석의 비교 기술을 사용하여 연계, 인과 관계를 찾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필수태도(Requisite Attitudes)이다. 이는 존중(다른 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인정), 개방성(상호문화에 대한 배움과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에 대한 판단 보류), 호기심과 발견(모호함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용인함)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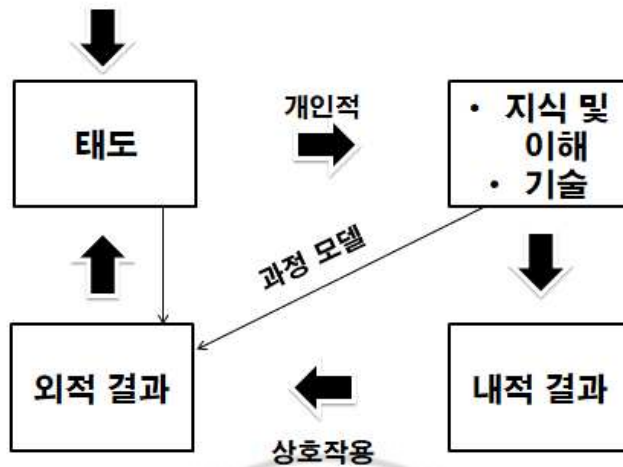
Deardorff에 따르면 태도란 배웠던 지식이나 기술을 존중이나 개방성, 또는 호기심 등 태도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식, 기술과 태도는 융통성 있고, 적용 가능하며, 공감을 얻는 법을 배우고 친척 관계의 관점을 채택하는 개별 학습자의 내적 결과(internal outcomes)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관찰 가능한 행동 및 의사소통 스타일을 나타내는 외적 결과(external outcomes)에 반영된다. 그들은 개인이 상호문화적으로 유능한지, 또는 배우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이다. 다시 말하자면, 배운 지식이나 기술, 또는 태도는 행동을 통해서만 실천에서 이루어진다. 실천에서 볼 수 없고 내부적으로, 즉 머릿속에서만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는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다. 상호문화 역량 형성을 위해 내부 및 외부 결과가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문화 역량은 우리가 사는 다문화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상호문화 역량은 유전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다. 상호문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은 상호문화교육이라고 칭하며 이 교육의 목적은 상호문화 역량을 넘어서 학습자를 세계시민으로 키우는 데 있다.

Deardorff(2006, 2009)는 상호문화 역량 발달하기 위해 피라미드 모델을 토

대로 하여 [그림 6]에서 제시한 과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림 6] 상호문화 역량의 과정 모델 (Deardorff, 2006, 2009)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과정 모델의 구성요소는 피라미드 모델과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 간에 발생하는 이동 과정과 방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은 개인 수준에서 대인 수준(상호문화 상호작용)으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피라미드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태도와 기술, 지식을 외적 결과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결과의 적합성과 효율성의 정도는 전체 사이클이 완료될 때보다 높지 않은 상태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내적과 외적 결과의 고유한 요소는 이 과정 모델에서 유지 관리되며, 실제로 개인은 내부적인 성과를 완전히 달성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의사소통하는 외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내적 성과가 달성된 경우보다 적절성과 효과성의 정도가 더 제한적일 수 있다.

Deardorff가 제시한 상호문화 역량의 과정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첫째, 자국문화와 다른 타문화권 사람들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한다.
- 둘째, 이런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효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제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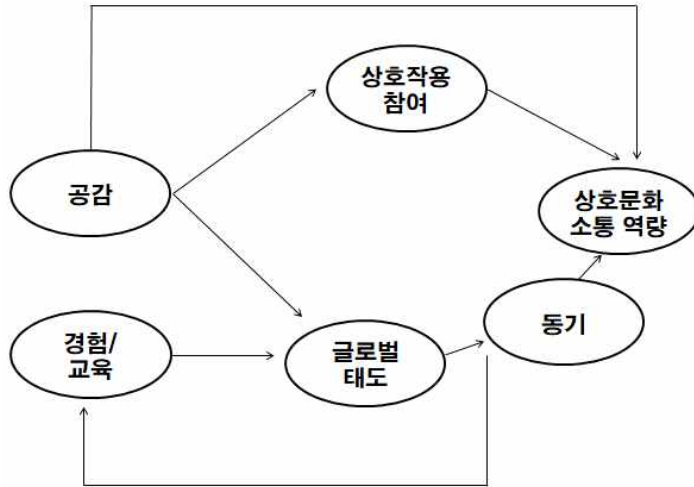
게 한다.

셋째, 이런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넷째, 상대방의 다양함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인정하며 존중하게 한다.

따라서 상호문화 역량은 우리가 사는 다문화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상호문화 역량은 유전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다. 상호문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은 상호문화교육이라고 칭하며 이 교육의 목적은 상호문화 역량을 넘어서 학습자를 세계시민으로 키우는 데 있다.

다음 모델은 동양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최근에 개발된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Arasaratnam, 2006; Arasaratnam & Banerjee, 2007, 2011; Arasaratnam, Banerjee, & Dembek, 2010a, 2010b)이다.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The Integrated Mode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MICC)은 Arasaratnam을 비롯한 몇 명의 학자들의 현장연구를 통해 2003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개발된 모델이다. Arasaratnam과 Doerfel(2005)는 15개국에서 37명을 대표로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의미론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 후 다섯 가지 변수, 동기 부여, 상호문화소통 경험, 듣기 능력, 타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그것은 상호문화 역량에 대한 새로운 모델의 새로운 존재였다. 이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Arasaratnam, 2006)

위 [그림 7] 모델은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맥락에 따라 종교성 변수를 추가하여 만들어졌다. 이슬람 종교와 아시아 문화가 말레이시아 문화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서구 문화에서 종교는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종교가 문화 간 상호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Mahmud 외, 2010).

공감은 “인지 및 정서적 역할을 수행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을 적응시키는 개인의 능력”(Arasaratnam, 2004)으로 묘사된다. 대리인은 능숙한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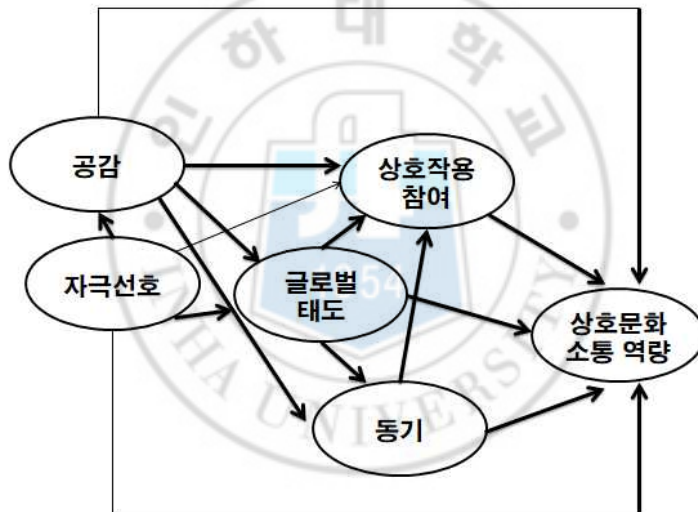
동기 부여는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과 이해의 결정을 위한 문화 간 상호 작용에 참여하려는 열망으로 정의된다(Arasaratnam, 2004). Arasaratnam(2006)은 동기 부여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위해 문화 간 상호 작용에 참여하고자하는 욕망” 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글로벌 태도 또는 긍정적 태도와 같은 변수(ATOC), 즉 세계적인 태도는 세계관 외에 새로운 문화에 관하여 사람의 직접성을 정의한다. 국제적 접근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민족 중심적이지 않다” (Arasaratnam,

2004).

소통에 참여로 묘사된 예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잘 듣는 능력은 “대화에서 인지 및 행동적 참여의 정도” (Arasaratnam, 2004)를 표시한다. 관심을 잘 기울이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 사항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Arasaratnam은 2006년에 개발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에서 측정하지 못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감정적 측면, 즉 ‘자극선호 (sensation-seeking)’ 를 추가하여 2010년에 자기의 동료와 함께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Arasaratnam & Banerjee, 20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그림 8]과 같다.



\* → 유의미한 가설 경로

→ 수정 색인을 기반으로 추가 된 경로

[그림 8] 자극선호와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Arasaratnam & Banerjee, 2010)

위 [그림 8]에서 말한 자극선호란 “상호문화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적 특성인 자극을 중시함으로써, 모험적 상황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을수록 적극적으로 상호문화소통에 참가하는 특징을 의미한다(Arasaratnam & Banerjee, 2010).”

앞에서 살펴본 모델 중에 동양 문화와 이슬람 종교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Arasaratnam과 Banerjee(2010)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상호문화소통이란 둘 이상 문화적인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상호문화소통을 피할 수 없다. 해외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타문화권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문화와 문화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소통 역량이 현재 시대의 필수적인 역량이자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소통 교육이 필요하다.

### 2.2.3.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목표 및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평가

#### 1)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목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문화소통 역량이 요구되며 이런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상호문화소통 교육이다. 상호문화소통 교육은 자국 및 타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언어 및 문화를 존중하여 배려할 수 있는 지식, 능력, 태도 및 인식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인지적 차원, 감정적 차원 그리고 의사소통 행동적 차원이 있으며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목표는 3 가지, 즉 인식적 목표, 정서적 목표 그리고 행동적 목표가 있다(Herbrand, 2002).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각각의 목표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목표는 자국문화와 타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양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둘째, 정서적 목표란 자기와 타문화의 차이점에 대한 평가 및 해석, 또는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공감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셋째, 행동적 목표는 자국 및 타문화에 대해서 배웠던 지식을 실천에서 활용하고, 상호문화소통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3가지 목표들을 종합해보면, 상호문화소통 교육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할 때 요구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둔다.

## 2)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평가

Byram(2009)는 상호문화 역량의 평가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제안한다. 그는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Autobiography of intercultural encounters(AIE)’를 제시하는데 이는 자기와 타인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평가 가능하게 한다. 현재 AIE는 유럽공통참조기준, 유럽언어 포트폴리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AIE 평가에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만났을 때 경험한 사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이 사건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파악한다. 학습자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머릿속에서 분석하고 이런 문화적 접촉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상호문화소통을 위해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E는 자기의 상호문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인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이기도 하다.

AIE의 질문은 학습자가 상호문화소통 경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답을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AIE의 질문 내용은 Byram이 제시한 상호문화소통 역량 모델의 네 가지 요소인 지식과 마음가짐과 느낌, 인식 그리고 실행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AIE 평가의 질문에 대한 세분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과 기술은 다른 문화구성원들에 대한 지식, 지식 발견, 해석과 연관 그리고 비판적 상호문화소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란 자국문화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속한 사회,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 또는 특징을 말한다. 지식 발견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지식을 토대로 한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지를 의미한다. 해석과 연관은 상호문화소통을 하는 사람들 간의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발견하고 ‘다름’을 ‘다양함’으로 파악하며 존중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비판적 상호문화 의식이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지식을 통해 없애고 자국 및 타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태도는 유연함과 소통하는 방법에 민감해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연함은 타문화권 사람과 상호문화소통을 할 때 있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태도를 취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소통하는 방법에 민감해지기는 상대방의 소통 방식에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마음가짐과 느낌은 타문화권 사람들의 정체성을 인정, 타자성의 존중, 감정이입의 태도, 애매모호함 관용 등을 포함한다. 상호문화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기와 상대방이 지닌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함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호문화소통을 할 때 있어서 감정이입의 태도가 요구되는데 이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상호문화소통을 위해서 긍정적 및 부정적인 감정이 필요하며 이것을 예전에 알게 된 지식이나 태도와 연관시켜야 한다. 그리고 타문화권 사람들도 자기와 동일하게 입장에서 신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

넷째, 실행은 이는 앞에 제시된 모든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소통 능력이 발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 AIE는 10개의 질문과 조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맨 처음에는 자기소개(‘Who I am? / 나는 누구인가?’)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서술해야 한다. 그 다음에 상호문화소통 평가를 위한 질문 또는 조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AIE 평가가 속한 질문이나 조언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AIE 평가 내용(Council of Europe, 2007; 김옥선, 2011)

No.	항목 제목	내용
1	상호문화 만남 상황 (The encounter)	학습자는 상호문화소통 경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이 상황의 제목을 붙이고 이 사건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 및 장소에 대한 정보도 요구된다.
2	다른 사람 (The other person or people)	상호문화소통을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서술한다. 이런 만남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어떻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는 그(들)의 나이,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등이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기술한다.
3	여러분의 느낌 (Your feelings)	상호문화소통이 이루어진 그 당시에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어떻게 생각이 어떤지를 서술한다. 더불어 그 당시 일어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한다.
4	다른 사람의 느낌 (The other person's feelings)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 그 당시 그(들)이 느꼈던 어려움을 상상해보도록 노력해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행복함 아니면 화가 남?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의 생각을 주어진 예시를 보충하면서 생각해 본다.
5	같음과 다름 (Same and different)	상호문화소통을 하면서 학습자가 느낀 것과 생각했던 방식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6	서로 이야기하기 (Talking to each other)	학습자가 소통했을 때 학습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는 상대방과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말하거나 썼을 때 조절했는지를 기술한다.
7	좀 더 많이 알아내기 (Finding out more)	학습자는 상호문화소통 경험에서 좀 더 많이 알아내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서술한다. 만약에 그 후에 대담을 찾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술한다.
8	비교를 통해서 이해하기 (Using comparisons to understand)	보통 사람들이 다른 집단이나 문화에 속한 것을 자신의 공통적인 것과 대조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주어진 상화에서 어떻게 하고 자국문화와 비교하면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이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서술한다.
9	되돌아 생각하고 앞서 예견하기 (Thinking back and looking forward)	뒤로 바라보면 상호문화소통 경험에 대한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지, 그 결론은 무엇인지를 서술한다.

위 <표 3>에서 살펴본 것처럼 AIE 평가는 총 9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평가를 하기에 앞서 학습자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던진다. 그 이

유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는데 평가의 첫 질문은 ‘상호문화 만남 상황’이다. 학습자는 자기 자신의 경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한 상황에 맞게 제목을 짓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를 적는다.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습자의 상호문화 역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AIE 평가의 두 번째 항목은 ‘다른 사람’이라고 명명되며 학습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하는 행동이나 태도, 또는 인식을 고찰하여 평가한다.

AIE 평가의 세 번째 항목은 ‘여러분의 느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타문화권 사람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을 알기 위한 질문이다. 자기와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의 긍정적인 행동이나 태도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행동이나 태도만 긍정적이고 마음으로 부정적인 것을 느낀다면 이런 감정이 나중에 얼굴 표정이나 눈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느낌’은 AIE 평가의 네 번째 항목이고 이는 타문화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 그들에게 이해받는 것을 바란다. 그러나 상호문화소통에서의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같음과 다름’은 AIE 평가의 다섯 번째 항목이며 이는 타문화권 사람을 만나고 상호문화소통할 때 있어서 느꼈던 서로 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이런 상대방에 대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이런 차이점을 ‘틀림’으로 아니라 ‘다양함’으로 볼 수 있게 때문이다.

AIE 평가의 여섯 번째 항목은 ‘서로 이야기하기’라고 명명하며 이는 타문화권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걸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많이 만나보고도 그 사람과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좀 더 많이 알아내기’는 AIE 평가의 일곱 번째 항목이며 이 항목에서 성공적인 상호문화소통을 위해 요구되는 요소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적는다.

AIE 평가의 마지막 항목은 ‘비교를 통해서 이해하기’인데 이는 학습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다른 문화권 사람과 대조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모국어는 어떤지를 알고 싶으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라’ 라는 말이 있듯이 자국문화에 대해서 알기 위해 타문화에 대해서 알고 비교해봐야 한다. 그래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

지금까지 AIE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상호문화소통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므로 AIE 평가는 학습자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함양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대해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선행과 문헌연구들을 통해서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때 언어적인 측면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살아 온 한국인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큰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 점에서 상호문화소통 교육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에게 상호문화소통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혔다. 상호문화소통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 혹은 자신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는 경험 연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경험은 개인이 내러티브로 조직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그중에서도 내러티브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내러티브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이며 특정한 맥락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 경험된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함으로써 더 큰 이해와 의미를 얻는 데 목적을 둔다(신경림 외, 2010). 또한 내러티브 연구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의 방법(유기웅 외, 2012)이며 생애 경험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즉, 내러티브는 경험을 형성하고 질서화함으로써 의미를 도출하며 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고 사건과 대상을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하며 행위 및 사건들의 시간에 따른 결과를 연결하고 인식하는 방식이다(Denzin & Lincoln, 2011).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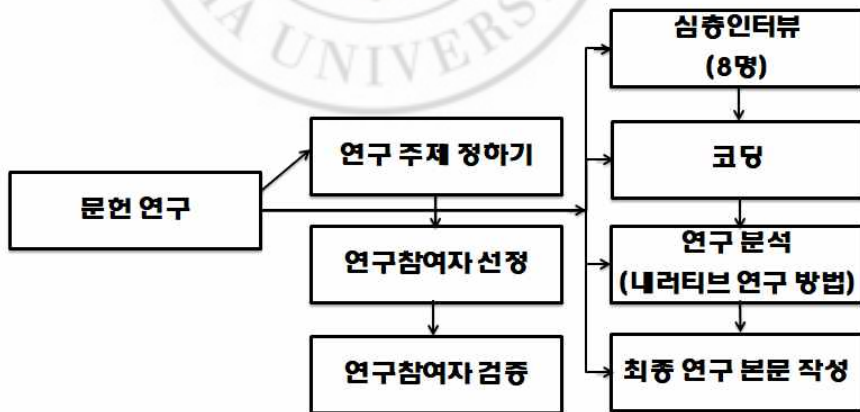
첫째, 내러티브 연구 방법은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고 그 경험을 이야기로

기술하는 방법(신경림 외, 2010)이기 때문에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에 근거한 본 연구에서 이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내러티브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연구주제와 관련 자신의 경험을 떠오르게 하고 뒤로 돌아보면서 그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경험을 이해해야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Cladinin & Connelly, 2007).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동일하게 우즈베키스탄 출신이고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내러티브 연구 방법은 개인의 경험을 형성하고 질서화함으로써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 및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고, 사건 및 대상들을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하고, 행위와 사건들의 시간에 따라 결과를 연결하고 인식하는 연구 방법(Denzin & Lincoln, 2011)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 및 의미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건 및 대상들을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 [그림 9]와 같은 연구 절차로 이루어졌다.



[그림 9] 연구 절차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유형과 의미로 구분하고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 2. 연구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선정은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이고 그들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8명이다. 연구참여자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중 한국 체류 기간이 1년 이상 된 학생을 선택하였다. 한국문화를 접촉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한국 체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지닌 우즈벡 민족이나 부모님 중에 하나가 우즈벡인 혼혈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우즈벡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이야 한국과 우즈벡 문화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한국어능력시험 급수가 3급-6급으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선택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 3급-4급은 ‘중급 수준’, 5급-6급은 ‘고급’ 수준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윤리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SNS모임(Uzbek students in Korea)에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식을 통해 모집하였다. 최종 연구참여자는 연구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해서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간단한 면담 이후에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참여자 8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학과	학년	유학 동기	구성 언어	TOPIK 등급
A	여	21	컴퓨터공학과	3학년	IT 전문가가 되기	러·우·영·한·독	6급
B	여	24	정치외교학과	4학년	한국어를 한국사회와 문화 속에서 배우기	우·러·한·영·독	5급
C	여	24	국제통상학과	3학년	좋은 직장을 얻기	우·러·한·영	5급
D	여	32	국어문학과	박사 5차	한국어 전문가가 되기	우·러·타타르어·영·한	6급
E	여	28	경영학과	석사 4차	한국어를 한국사회와 문화 속에서 배우기	우·러·영·한	6급
F	여	24	국어문학과	석사 2차	한국어 전문가가 되기	우·러·영·한	5급
G	남	23	경영학과	3학년	인생에서 자기 길을 찾기	러·우·영·한	4급
H	남	23	경영학과	3학년	인생에서 자기 길을 찾기	러·우·영·한	3급

\*구성 언어 중 ‘러’는 러시아어, ‘우’는 우즈베크어, ‘영’은 영어, ‘한’은 한국어, ‘독’은 독일어를 의미한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는 총 8명이며 국내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성 6명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는 20대 초부터 30대 초까지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소속 학과를 살펴보면, 3명은 경영학과, 2명은 국어문학과 그리고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은 컴퓨터공학과,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국제통상학과 등이다. 연구참여자는 학부생 5명, 석사 과정 학생 2명 그리고 박사 과정 학생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이 전문가가 되거나 한국어를 한국사회 및 문화 속에서 배우기 위해 한국에 유학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일부분 연구참여자들이 인생에서 자기 길을 찾거나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 독일어, 타타르어 등을 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준은 3급에서 6급까지이다.

## (1)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A는 1996년에 우즈베키스탄의 지역 중 하나인 카슈카다라 주에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 A의 가족은 모두 다섯 명으로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그리고 연구참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의 가정은 우즈벡, 타타르, 러시아 등의 세 가지 피가 섞인 혼혈 가정이다. 연구참여자 A는 가족 중 막내딸이지만 오빠나 언니와 달리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독립적인 성격이다.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연구참여자 A는 중학생일 때 우즈베키스탄 대학교 안에 설립된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참여자 A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진학하였다. 그녀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고등학교에서 IT를 전공한 연구참여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IT가 발전되어 있다는 점과 한국이 교육열이 높고 교육 기관 안에서의 경쟁(상대평가 등)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A는 경쟁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그녀는 인천에 있는 I대학교의 3학년 학생이다.

## (2)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는 1993년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에 있는 ‘치르치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 B의 가족은 우즈벡 민족으로 어머니, 오빠 3명 그리고 그녀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에서 막내이자 유일한 여성으로서 태어난 연구참여자 B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

연구참여자 B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마음의 깊은 곳에 숨기고 이를 아무에게도 열고 싶어 하지 않는 편이다. 연구참여자 B는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았을 때 안전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감이 없어져 불안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사람들

이 쉽게 하는 개인적인 질문은 그녀를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연구참여자 B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수가 적다’ 나 ‘차분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에게는 자신만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국어 동아리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타슈켄트 국립 동방고등학교 한국어학과에 들어갔다. 타슈켄트 국립 동방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2년 동안 KOICA에서 가이드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초·중학교에서의 동아리 및 타슈켄트 국립 동방고등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를 보다 실제로 배우기 위하여 한국행을 선택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현재 서울에 있는 D대학교의 4학년 학생이다.

### (3)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C는 1993년에 타슈켄트 도시에서 우즈베크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 C의 가족은 모두 3명으로 어머니와 여동생, 연구참여자 C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의 성격은 마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 완벽주의자에 가깝다. 그녀는 큰딸이고 동생에게 하나밖에 없는 언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완벽하려는 의지에서 이러한 완벽주의 성격이 형성되었다. 그녀의 이러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드러난다. 그녀는 무엇을 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한다.

연구참여자 C는 타슈켄트 국립 재정고등학교에서 공부하던 2010년 여름 방학 때 한국인 대학생팀이 그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하여 2개월 동안 그들에게 IT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그때 연구참여자 C는 그 대학생들과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타슈켄트 국립 재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래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유학을하기로 하였다. 유학 국가를 검토하던 그녀는 한국을 선택하

였다. 현재 연구참여자 C는 서울에 있는 D대학교의 3학년 학생이다.

#### (4)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D는 1986년에 타슈켄트 도시에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 D의 가족은 모두 4명이며 아버지, 어머니, 그녀와 28살인 남동생을 포함한다. 그녀는 우즈벡, 타타르, 타지크 등 세 가지 피가 섞인 혼혈 가족의 큰딸이다.

연구참여자 D는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깊이 느낀다. 또한 그녀는 지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가족의 큰 자녀로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그녀를 지도자로 만들었다. 아울러 연구참여자 D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녀는 어떤 일이든 잘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찾아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학교 때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어 동아리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타슈켄트 국립 동방고등학교의 한국어 전공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를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서울에 있는 E대학교의 박사 5차 학생이다.

#### (5)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 E는 1990년의 타슈켄트 주에서 우즈벡 가정에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 E의 가족은 모두 다섯 명이며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연구참여자 D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는 큰딸이기 때문에 동생들이 힘들어 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동생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해야 한다.

연구참여자 E는 굉장히 활발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잘 소통하는 편이다. 그녀는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얼굴과 방긋한 미소로 바라본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소통을 시작한다. 연구참여자 E는 인간 간의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없으면 혼자서 외롭기도 하고 삶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 간의 잘 건설된 네트워크는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한국드라마를 통해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녀는 한국어를 스스로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연구참여자 E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사범대학교 1학년 때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4개월 정도 공부하였다. 그리고 대학교를 마친 후 그녀는 서울에 있는 S대학교의 국제경영학과 전공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다. 현재 그녀는 이 대학교에 석사 4차 학생이다.

#### (6) 연구참여자 F

연구참여자 F는 1994년에 우즈베키스탄의 지역인 페르가나에서 우즈벡 가족에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 F의 가족은 모두 6명, 즉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그녀와 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F는 명랑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과 쉽게 친구가 되고 잘 어울리는 편이다. 게다가 그녀는 성격이 급하고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잊어버리는 편이다.

연구참여자 F는 제2 언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다녀 초등학교 2학년 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를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한국교육원에도 다녔다. 한 언어는 그 민족에 대한 거울이기 때문에 한 민족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먼저 그 민족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믿는 연구참여자 F는 국어문학과 전공으로 한국에 유학을 왔다. 그녀는 현재 인천에 있는 I대학교의 석사 2차 학생이다.

#### (7) 연구참여자 G

연구참여자 G는 1994년에 우즈베키스탄의 지역 중 하나인 나만간에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 G는 우즈벡 가족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식구들 간의 대화는 러시아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모국어는 러시아어이고 우즈벡어, 영어 및 한국어를 제2 언어로 하고 있다. 가족은 어머니와 연구참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G는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숨기고 친구를 사귄 때 조심스러워한다. 그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넬 수 없는 성격을 고치고 싶지만 이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그는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섬유고등학교의 회계과 전공으로 지원하였다. 한국으로 이주한 친구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던 연구참여자 G는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한국어를 한국어능력시험 1급 정도만 배우고 한국에 들어왔다. 어학당에서 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인천에 있는 I대학교의 경영학과 전공으로 입학하였다. 그는 현재 이 대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다.

#### (8) 연구참여자 H

연구참여자 H는 우즈베키스탄의 나만간 지역에서 1995년에 태어났다. 연구참여자 H의 가족은 모두 6명이고 할머니, 어머니, 이모, 그와 2명 남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H는 우즈벡인과 러시아인의 피가 섞인 혼혈 가족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자기가 태어난 도시인 나만간에서 졸업하였고 중학교를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녔다.

연구참여자 H는 농담을 잘 하고 소통을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매우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

중요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타슈켄트 국립 기상학교등학교에 지원하였다. 연구참여자 H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모든 가족식구들이 2003년에 한국으로 이사하였으며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에 어머니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현재 인천에 있는 I대학교의 경영학과의 3학년 학생이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3.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 이후에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SNS모임(Uzbek students in Korea)을 통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식, 즉 첫 연구참여자의 소개로 둘째 연구참여자를 찾는 방법을 통해 모집하였다.

연구 방법은 내러티브 연구로 연구참여자들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느낀 한국-우즈벡 간 문화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1차 질문지를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답변을 연구참여자들에게 편한 언어(우즈벡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받았다. 그리고 연구자가 카테고리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2차 질문지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질문지를 전송하였다. 이후에 이메일로 보낸 질문지를 기초로 한 연구자와 1:1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사건과 경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자는 심층인터뷰를 실시할 때 그들을 지속적으로 참여관찰하며 필요한 부분을 연구자의 현장 노트에 적어 놓았다. 심층인터뷰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연구참여자에게 편한 장소에서 90분에서 120분 정도 2~3회에 걸쳐 그들에게 편한 언어(우즈벡어, 러시아어 및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의 질문지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질문 개요

구분	내용
상호문화와 만남 상황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무엇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다른 문화권 사람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고 그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다른 문화권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가?
	타문화권 사람과 소통에 도움이 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가?
같음과 다른 서로 이야기하기	타문화권 사람과 만났을 때 자문화와 유사한 점이나 다른 점을 느꼈는가? 느꼈으면 어떤 부분에서?
	타문화권 상대방과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사람과 주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언어적 및 비언어적 측면에서)
	타문화 사람과 상호문화소통을 통해 알게 된 서로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런 다른 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좀 더 많이 알아내기 비교를 통해서 이해하기	타문화 사람과 상호문화소통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로는 무엇이 있는가?
	타문화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데 유용한 기술은 무엇인가?
	타문화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데 주의해야 할 기술은 무엇인가?
	다양한 타문화와 소통하기
되돌아 생각하고 앞서 예견하기	타문화권 사람과 이루어진 소통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가?
	뒤로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타문화권 사람과 만나서 서로 간의 이루어진 소통 경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자기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타문화권 사람과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위해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문화권 사람과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위해 어떠한 상호소통 문화교육이 필요한가?

위 <표 5>와 같이 ‘상호문화와 만남 상황’ 부분은 연구참여자들이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무엇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연구참여자의 생각에는 우즈벡 문화는 어떠



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질문을 포함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다른 문화권 사람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으며 그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다른 문화권 사람은 연구참여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타문화 사람과 소통에 도움이 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질문지의 ‘같음과 다름’, ‘서로 이야기하기’ 부분은 연구참여자가 타문화권 사람과 만났을 때 자문화와 유사한 점이나 다른 점을 느꼈는지, 그럴 때 느꼈던 서로 간의 차이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타문화권 상대방과 주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으며, 타문화 사람과 상호문화소통을 통해 알게 된 서로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타문화권 사람과 상호문화소통할 때 주로 어떠한 행동과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를 스스로 평가하게 된다.

질문지의 ‘좀 더 많이 알아내기’, ‘비교를 통해서 이해하기’ 부분의 핵심은 타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내기, 자문화와 타문화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를 이해하기이다. 그러므로 질문지의 이 부분은 타문화권 사람과 상호문화소통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유용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질문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떠오르게 하여 그때로 돌아가 부족했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인식하게 하고 앞으로의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보장하고 가능하게 한다.

‘되돌아 생각하고 앞서 예견하기’에 관한 질문지 내용의 핵심은 연구참여자가 자신을 되짚어 생각하고 미래의 모습을 예견하는 데 있다. 질문지의 이 부분은 타문화권 사람과 이루어진 소통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고, 타문화권 사람과 만나서 이루어진 소통 경험이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기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타문화권 사람과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위해 어떠한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문화권 사람과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위해 어떠한 상호문화소통 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상호문화소통 인식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타문화권 사람과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경험이 자기 자신에게 갖는 의미를 찾아냄으로 새로운 ‘나’를 인식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편한 곳에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구참여자의 면담일정

구분	진행 언어	1차 면담			2차 면담			3차 면담		
		일시	장소	시간	일시	장소 / 방법	시간	일시	장소/ 방법	시간
연구참여자 A	한국어	2018. 1.23	기숙사	110분	2018. 3.15.	집 / 면담	40분	2018. 3.25.	집	15분
연구참여자 B	우즈베크어	2018. 1.16	기숙사***	120분	2018. 3.16.	화상통화	30분		-	
연구참여자 C	우즈베크어	2018. 1.16.	기숙사	100분	2018. 3.16.	화상통화	40분	2018. 3.25.	화상통화	15분
연구참여자 D	우즈베크어	2018. 1.27.	커피숍	120분	2018. 3.17.	화상통화	30분		-	
연구참여자 E	한국어	2018. 1.31.	커피숍	120분	2018. 3.18.	커피숍/면담	40분		-	
연구참여자 F	우즈베크어	2018. 2.01.	교실	100분	2018. 3.17.	화상통화	40분		-	
연구참여자 G	러시아어	2018. 2.02.	커피숍	110분	2018. 3.18.	커피숍/면담	40분		-	
연구참여자 H	러시아어	2018. 2.02.	커피숍	100분	2018. 3.18.	화상통화	40분	2018. 3.25.	화상통화	20분

위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심층인터뷰는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 A과의 심층인터뷰는 2018년 1월 23일, 그녀가 사는 기숙사에서 한국어로 120분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심층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1차 인터뷰에서 부족한 부분을 2차 인터뷰를 통해서 보완하였다. 2차 인터뷰는 2018년 3월 16일, 그녀의 집에서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내용 보완을 위하여

2018년 3월 25일에 그녀의 집에서 3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하였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전사하였다.

연구참여자 B와의 1차 인터뷰는 2018년 1월 16일, 그녀가 사는 기숙사에서 우즈베크어로 120분 동안 진행되었다. 1차 인터뷰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2차적으로 2018년 3월 16일에 화상통화를 통해 우즈베크어로 하였다. 심층인터뷰 내용은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사하였다. 번역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번역된 전사내용을 연구참여자에게 전달하여 그녀의 확인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C과의 1차 인터뷰는 2018년 1월 16일, 그녀가 사는 기숙사에서 우즈베크어로 110분 동안 진행되었다. 1차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 3월 16일에 화상통화를 통해 2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차 인터뷰 내용 보완을 위해서 2018년 3월 25일에 화상통화로 3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심층인터뷰 내용은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사하였다. 전사 이후에 연구참여자에게 보내고 그녀의 검토를 받았다.

연구참여자 D와의 1차 심층인터뷰는 2018년 1월 27일, 커피숍에서 120분 동안 우즈베크어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차 인터뷰에서 부족한 부분을 2018년 3월 17일에 화상통화로 2차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심층인터뷰 내용은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사하였다. 이후에 연구참여자에게 보내고 그녀의 검토를 받은 후에 논문에 인용하였다.

연구참여자 E와의 1차 인터뷰는 2018년 1월 31일, 커피숍에서 120분 동안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도출되어 이를 위해 2018년 3월 18일에 2차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차 인터뷰는 커피숍에서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허락을 받고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연구참여자 F과의 1차 심층인터뷰는 2018년 2월 1일, 인천에 있는 I대학교 교실에서 100분 동안 우즈베크어로 진행되었다. 1차 인터뷰에서 부족한 부분은 2018년 3월 17일에 화상통화를 통해 2차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보완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연구참여자에게 보내고 그의 검토를 받았다.

연구참여자 G와의 1차 심층인터뷰는 2018년 2월 2일, 커피숍에서 110분 동안 러시아어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차 인터뷰 내용을 보완을 위해 2018년 3월 18일에 2차 인터뷰를 커피숍에서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내용은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사하였다. 전사 완료 후에 연구참여자의 검토를 받고 논문에 인용하였다.

연구참여자 H과의 1차 심층인터뷰는 2018년 2월 2일, 커피숍에서 100분 동안 러시아어로 진행되었다. 1차 인터뷰에서 부족한 부분은 2018년 3월 18일에 2차 인터뷰를 통해 추가하였다. 그리고 내용 보완을 위해 2018년 3월 25일에 화상통화를 통해 3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사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에게 보내고 검토를 받았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도록 그들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심층인터뷰 내용은 전사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검토를 받고 다시 한 번 동의를 얻은 후에 논문에서 활용하였다.

### 3.2. 자료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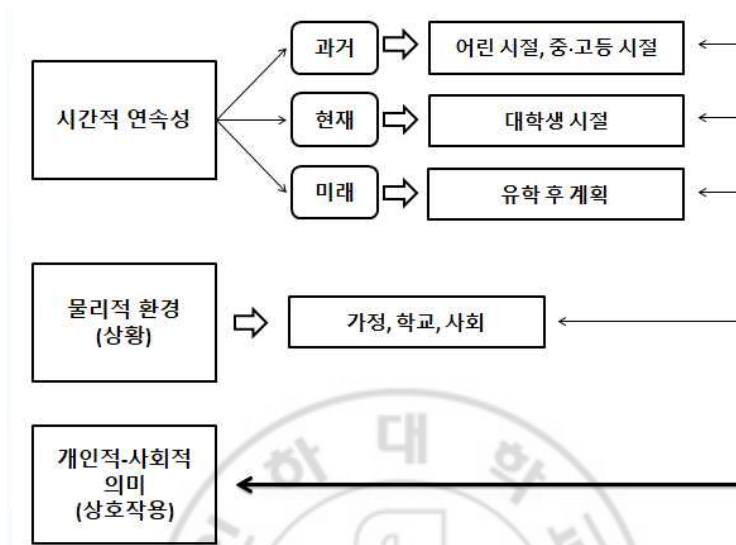
연구자는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전사한 파일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이란 수집한 자료들을 범주화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자료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는 것(Bogdan & Biklen, 2007; 유기웅 외, 2012)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laser와 Strauss(1967)가 개발한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으로 이루어졌다. 반복적 비교분석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 (유기웅 외, 2012) 단계로 이루어진다. 개방 코딩이란 수집한 자료를 다시 읽음으로써 중요한 개념을 찾고 명명하며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다시 말하면, 개방 코딩 작업은 수집된 자료를 양쪽에 여백을 많이 두고 출력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

에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양쪽의 여백 부분에 연구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하거나 자료를 명명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심층인터뷰 내용을 전사 파일로 만든 다음에 각 전사 파일을 다시 읽으면서 단어나 문장, 또는 문단에 이름을 칭하고 개념화하였다. 그 이후 두 번째 단계인 범주화 단계로 들어갔다. 범주화는 개방 코딩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로 개방 코딩을 통해 같은 코딩의 이름으로 분류해 놓은 자료들을 상위 범주로 구분하여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말한다. 범주화를 위해서 개방 코딩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꾸준히 비교’ 해야 한다. 범주화 작업은 미리 자료들이 포함될 범주를 만든 후에 범주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위 범주를 구성하는 귀납적인 작업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방 코딩을 통해 코딩된 자료들을 서로 유사점 및 차이점에 따라 하위 및 상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주화 확인 단계가 이어진다. 범주화 확인은 범주화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 범주가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원 자료를 재확인하는 작업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자료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유기웅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범주가 적절하게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범주화된 내용을 원 자료와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내러티브는 인간의 경험과 의미를 탐구하는 질적 연구의 하나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이 연구 방법을 통해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과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내러티브 연구는 내러티브 속에 그려져 있는 인간의 경험을 탐구(Webster & Metova, 2007)하는 연구 방법으로 이는 연구 대상을 시간적 특성, 개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미, 물리적 환경이나 상황 등 3차원적 내러티브 연구 공간(Cladinin & Connelly, 2007)을 만든다.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내러티브로 표현할 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경험 속에 있는 3차원적 내러티브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연구를 접하는 독자는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내러티브의 3차원적 공간에 이동시키고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 연구 방법의 3차원적 공간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그림10]과 같다.



[그림 10] 내러티브 탐구 절차

먼저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연구 방법의 3차원적 공간 중의 첫 번째인 시간적 연속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자기가 경험한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건을 이와 관련 있는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 즉 경험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내러티브 안에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개인적-사회적 의미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는 자신의 삶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내러티브를 통해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는 과거를 돌아봄으로 현재 삶의 의미 및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즉,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존재하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존재한다.’ 라는 말처럼 연구참여자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게 되었다.

셋째,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물리적 환경 측면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인간

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를 사회와 따로 연구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참여자의 경험 속에 자기가 살았던 시대나 공간, 자기와 접하게 된 인물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역사적 사건이나 공간, 또는 그 당시 인물들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4.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성 고려

질적 연구 방법으로 된 연구의 첫 단계에서부터, 즉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까지 연구자의 윤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이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자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질적 연구 방법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심층인터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상황에 맞는 질문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를 불편하거나 창피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할 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의도와 다르게 분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자는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혼자서 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동료들과 의논해보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Diener & Crandall, 1978; 유기웅 외, 2012: 342)이다.

연구 대상으로서의 인간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인간 보호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Denzin & Lincoln, 최욱 외(역), 2014).

첫째, 인간 존중이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중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차원은 개개인은 자율적인 사람으로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차원은 자

울성이 약한 사람(미성숙자나 불구자)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둘째,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안정감을 보장해야 한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을 방지해야 하며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해악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정의의 원칙이다. 이는 연구의 혜택 및 부담의 공정한 분배를 의미한다. 부당성은 어떠한 집단이 용이한 조작이나 이용 가능성 때문에 연구 대상자를 과잉 이용할 때 발생한다.

이처럼 인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사전 동의, 사생활 보호, 속이지 않음 등의 윤리 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Denzin & Lincoln, 2014). 이 연구는 연구의 이러한 윤리 원칙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에 심층인터뷰 내용을 학문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더불어 심층인터뷰 중간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인터뷰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후에 연구참여자 동의서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서명하였다.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심층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전사한 후에 그 녹음 파일과 전사내용을 연구참여자들의 이메일로 보내고 그들의 검토를 받은 후 논문에 인용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에게 인터뷰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터뷰 시간에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161010-3AR이다. 심층인터뷰자료로 녹취된 파일 및 전사기록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3년간 보관할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윤리성과 타당성, 신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Lather(1991)는 타당성의 4가지 틀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의 첫째는 역설적 타당성으로 연구자는 문제를 통해 진실을 제시하는지를 의미한다. 둘째는 유사논리 타당성으로 이는 역설적이고 복잡한 것이며 이론화에서 벗어나 거의 중재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타당성의 세 번째 틀은 근본적 타당성이



다. 이는 근본적인 구조 없이 중복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발적 타당성이다. 이는 연구자가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또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Creswell, 2007).

신뢰도는 질적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다양한 코딩 담당자의 반응이 안정성에 해당하며, 외부 점검을 요구하는 질적 연구의 형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자들의 검토를 받았다. “동료 검토는 연구 과정에 대해 외부의 점검을 가능” (Lincoln & Guba, 1985; Creswell, 2007)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구실 발표회에서 본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지도 교수와 관련 연구자 동료의 코멘트에 따라 보완하였다.



## IV.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내러티브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어린 시절, 중·고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계획 등의 경험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가정·학교·사회 등의 사회와 기관 영역에서 분석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변화를 연구자의 말로 재구성하였다.

### 1. 연구참여자 A: 소통으로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마음

연구참여자 A는 인천에 있는 I대학교의 3학년 학생이다. 그녀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연구참여자 A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징

시간적 연속성				사회와 기관 영역		
어린 시절	중·고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계획 유학 후 계획	가정	학교	사회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기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	경쟁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음	새로운 기능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막내지만 독립적인 '나'	선·후배 간의 소통	소통을 통한 문화 습득

### 1. 시간적 연속성

#### 1.1. 어린 시절: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기

연구참여자 A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태권도에 다니면서 한국문화와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그녀는 한국과 한국문화에 큰 관심을 가졌다.

연구참여자 A는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정환경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작든 크든 그녀와 관련된 어떤 일이 생기면 그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식구들에게 받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인정에 대한 배움이, 연구참여자 A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할 때마다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 1.2. 중·고등 시절: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

연구참여자 A가 처음으로 타문화권 사람을 만나서 소통한 사람은 그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한국어 원어민 선생님이다. 그녀는 그 이전에도 타문화권 사람들을 만나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로 이야기해봤지만 실제로 만나서 소통한 경험은 이것이 첫 번째였다.

연구참여자 A가 중학생일 때 우즈베키스탄 Q대학교 내에 한국어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KOICA 선생님들이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줬다. 이 센터가 처음에 열렸을 때에는 누구든지 한국어 수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대학원생만 수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평소에 외국어에 관심이 많던 연구참여자 A는 이 센터 설립 직후부터 이곳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중학교 학생이던 그녀는 KOICA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연구참여자 A와 KOICA 선생님 간의 대화는 영어로 이루어졌다. 주요 주제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언어, 음식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KOICA 선생님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한 것이 처음이었고 이곳에서 2년 동안 계속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8년 이상 지속된 KOICA 선생님과 만남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봄이었어요. 위치는 내가 태어나고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도시의 대학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고 그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느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1.23)

그 당시 한국어 수업에 다니는 학생들 중 가장 어렸던 연구참여자 A가 타 문화권 사람과 만나서 처음으로 소통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연구참여자 A는 KOICA 선생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공감의 이루어졌다. KOICA 선생님은 20대 중반인 여자였다. 그녀는 10대 초반인 연구참여자 A를 어린 동생처럼 보고 챙겨주고 잘 해줬다. 거꾸로 연구참여자 A도 KOICA 선생님을 선생님뿐만 아니라 언니처럼 느꼈다. 또한 KOICA 선생님과 연구참여자 A는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서로 간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다. 연구참여자 A는 그때부터 컴퓨터와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KOICA 선생님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같은 분야에 대한 관심은 서로 간의 소통을 더욱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KOICA 선생님과 연구참여자 A 간의 소통은 서로 간의 문화를 알아가는 수단이었다.

“KOICA 선생님을 보고 매우 평범하고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KOICA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조국문화에 대해서도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선생님의 우즈베크문화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확한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우즈베크문화에 대해서 알아냈고 거꾸로 한국문화에 대한 궁금한 것을 선생님께 물어보면서 한국문화도 동시에 배웠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1.23)

연구참여자 A는 KOICA 선생님의 우즈베크문화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 우즈베크문화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우즈베크문화를 더 정확하게 공부하였다.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KOICA 선생님에게 받음으로써 한국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연구참여자 A는 KOICA 선생님과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한국어를

비롯하여 더 많은 외국어를 배우려고 결심하였다. 많은 외국어를 알면 더 많고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 경험 이후에 몇 가지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그 당시 더 많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는 꿈을 꾸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동기를 부여받았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1.23)

연구참여자 A에 따르면 어떤 나라의 언어만 알면 그 민족의 문화와 사고방식도 언어와 동시에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A는 KOICA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영어로 소통하였지만 그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배워서 나중에는 한국어로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KOICA 선생님과 첫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연구참여자 A에게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는 데 큰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통, 특히 상호문화소통은 연구참여자 A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얻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다. 상호문화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비롯하여 상대방이 태어나거나 자란 나라 및 문화, 사람들의 세계관 및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이나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거나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것을 원해요. 나는 항상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연구참여자 A, 2018.01.23)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KOICA 선생님과 이루어지는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연구참여자 A에게 한국, 한국의 언어 및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배움이였다. KOICA 선생님과 연구참여자 A는 큰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생님-학생, 언니-동생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가 되었다.

“... 그 선생님의 나이가 저보다 많기 (13살) 때문에 그 선생님에게 한국어와 동시에 삶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실패했을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끔 실패는 꼭 있어야 한다.’

라고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그 선생님에게 주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연구참여자 A, 2018.01.23)

따라서 어린 시절에 KOICA 선생님을 만나서 서로 간의 이루어졌던 첫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연구참여자 A에게 타문화, 타문화권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 및 인생 자체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필요할 때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단순히 선생님이었던 KOICA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서 그녀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이처럼 중학교 때 KOICA 선생님을 만나서 한 첫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연구참여자 A에게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함으로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이 태어난 도시에서 약 401km 떨어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다. 평범한 중학교를 졸업한 그녀가 우즈베키스탄의 고등학교들 중 최고로 여겨지는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가 진학하려는 고등학교는 영어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는 국제고등학교였다. 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일이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이를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냈다.

연구참여자 A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중학교 7학년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지속하였다.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던 태권도 및 다양한 동아리 수업을 그만두고 그 대신 가정교사를 통해서 영어와 수학을 열심히 배웠다.

연구참여자 A는 고등학교 진학 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익숙해졌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 등이 그렇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IT 전공으로 열심히 공부하였고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하였다.

### 1.3. 대학생 시절: 경쟁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음

연구참여자 A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고등학교에서 IT를 전공한 연구참여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IT가 발전되어 있다는 점과 한국이 교육열이 높고 교육 기관 안에서의 경쟁(상대평가 등)이 치열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A는 경쟁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다고 말하였다. 즉, 경쟁이 어떤 경우에는 좋은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A는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동기를 통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

“동기의 종류도 많잖아요. 어떤 칭찬이나 나쁜 것을 들을 때도 동기가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칭찬이나 경쟁, 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것이 있어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A, 2018.01.23.)

무엇인가를 잘 했을 때 부모님이나 교수님들에게 받은 칭찬과 좋은 성적 그리고 상대평가라는 경쟁은 연구참여자 A의 동기가 되어 왔다. 연구참여자 A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친구에게 한국의 높은 교육열, 상대평가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는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는 한국을 유학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

#### 1.4. 유학 후 계획: 새로운 기능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참여자 A는 현재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그녀는 자기 분야 전문가로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기능이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다.

“미래에 어떤 프로젝트나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많이 참여해 보고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 쪽이든 그런 쪽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것에도 코드를 쓸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는 것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A, 2018.01.23)

연구참여자 A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참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자습도 많이 하고 연구실에도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국내를 비롯하여 미국이나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으로 한 사람들을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찾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연구참여자 A는 타문화와 동시에 자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있다. 아울러 타문화권 사람들과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위한 역량, 즉 자아중심적인 마인드를 최소화시키고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개방적인 마인드, 타인을 자기와 동일한 자리에서 바라보는 마음 등을 더 발전시키고 있다.

## 2. 사회와 기관 영역

### 2.1. 가정: 막내지만 독립적인 '나'

연구참여자 A의 가족은 모두 다섯 명으로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그리고 연구참여자 A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의 가정은 우즈베크, 타타르, 러시아 등의 세 가지 피가 섞인 혼혈 가정이다. 연구참여자 A는 가족 중 막내딸이지만 오빠나 언니와 달리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독립적인 성격이었다.

연구참여자 A의 가족은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았다. 즉,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무엇을 좋아하면 그 일을 해라.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원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우리 가족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1.23)



연구참여자 A 가족의 사고방식은 자기가 하고 싶고 잘 하는 것을 하라는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가족 환경 속에서 자란 연구참여자 A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문제를 가능한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 왔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부탁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게 되었다.

즉, 가족 내에 존재하는 높은 자율권은 연구참여자 A을 더 독립적인 성격으로 성장하게 하였다. 물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상의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연구참여자 A의 생각과 행동이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A의 가족구성원들도 그녀를 믿고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자율권과 선택권을 그녀에게 주었다.

연구참여자 A는 누구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즉 가족이나 친구, 환경과 상관없이 똑같이 행동한다. 연구참여자 A는 매우 부지런하고 진실한 편이다. 연구참여자 A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이 담겨 있는 나의 말이 비록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저는 그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것이 항상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연구참여자 A, 2018.01.23)

많은 사람들이 연구참여자 A의 이러한 진실성을 존중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는 사람들이 그의 진실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연구참여자 A는 어떠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그때 고민하기 보다는, 그것을 지금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줬을 때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관심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다. 연구참여자 A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진실을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이다. 즉, 자기가 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한 연구참여자 A는 매우 부지런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계획을

세워서 연습과 복습을 매일매일 하고 계획을 잘 수행하면서 살아왔다.

## 2.2. 학교: 선·후배 간의 소통

공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연구참여자 A는 3학년 학생이지만 지난 1년 반 전부터 대학원생들이 있는 연구실에 다니고 있다. 그녀가 연구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연구실은 석·박사과정 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학부생은 그녀뿐이었다. 연구실에서 가장 후배이지만 대학원생 선배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논문을 쓰고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물론 학생이지만 지금 대학원 연구실에 다니고 있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부생만 아니라, 어떤 쪽으로 보면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국제 논문도 쓰게 되었고 그런 것이 (저를) 학교에서 학부생(이라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A, 2018.01.23)

연구참여자 A는 대학원생들이 다니는 연구실에 다니면서 자신이 속한 연구실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실 학생들과 진행되는 종합세미나에서 논문과 저서를 중심으로 발표해왔다. 연구실에 들어온 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는 대부분 선배인 석·박사들이 졸업하고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서 그녀는 세 번째 선배가 되었다.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 예전에 선배들이 그녀를 챙겨주었던 것처럼 그녀도 후배들을 챙겨주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모르거나 부탁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선배들에게 받았던 개방적이고 따뜻한 마음, 존중, 인정, 이해 및 공감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배인 그녀와 후배들 간의 관계는 상호이해나 상호존중, 또는 상호인정 및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3. 사회: 소통으로 이루어진 문화 습득

연구참여자 A는 학교에서만 모범생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역할을 한다.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브레이크 댄스 (break dance) 등 다양한 동아리에 참석해왔으며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 외에 영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편이다. 그리고 독일어도 중급 수준에 한다. 따라서 그녀의 주변인들은 나이가 많은 적든 그녀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그녀를 모범적으로 본다.

“사회에서는, 물론 자기 자랑 같지만, 다른 제 동료들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들도 ‘너한테 배울 점이 많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서 뭐 어떤 모범생(?) (웃음)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 자랑인 것 같지만...” (연구참여자 A, 2018.01.23)

연구참여자 A는 학교에서 ‘선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학업 및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으므로 남들에게 ‘모범적’ 역할도 한다.

아울러 연구참여자 A는 한국어를 고향에서 배우고 한국어능력시험 5급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유학 초기에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어휘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 파악하고 있었으나, 문화적 어휘에 맞는 대답을 찾기가 그녀에게 큰 과제였다.

“제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선배들이나 친구들에게 ‘수고해’, ‘고생해’ 등 표현들을 들으면 그 친구들이 왜 나의 고생을 바라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들을 때 다 이해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 다 전달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3.15.)

연구참여자 A는 한국유학 초기에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였다. “특히 고급 수준의 학문적인 용어들의 대부분은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들의 급수가 올라갈수록 어휘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표현하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커진다(김영순 · 갈라노바 딜노자, 2017: 55).” 뿐

만 아니라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를 잘 이해하지 않는 이상 언어의 내부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A는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들의 내부적인 의미를 탐색하여 배움으로써 한국문화를 습득하게 되고 한국사회와 학업 생활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

## 2. 연구참여자 B: 자기만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연구참여자 B는 초·중학교에서의 동아리 및 타슈켄트 국립동방고등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를 보다 실제로 배우기 위하여 한국행을 선택하였다. 그녀는 현재 서울에 있는 D대학교의 4학년 학생이다. 그녀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연구참여자 B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징

시간적 연속성				사회와 기관 영역		
어린 시절	중·고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계획	가정	학교	사회
어린 나이부터 높은 교육열	소통에서 미소가 담긴 따뜻함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로 생긴 소통의 어려움	소통으로 지식 공유	3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나'	혼자 있어야 안전함	소통은 민족보다는 성격의 문제

### 1. 시간적 연속성

#### 1.1. 어린 시절: 어린 나이부터 높은 교육열

연구참여자 B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 수업과 동시에 동아리나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자기 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계발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왔습니다. 경험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계발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교과서들을 통해서 스스로 배워갑니다.” (연구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국어 동아리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고려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한국어를 배우는 동아리를 만든 것이다. 그녀는 이 선생님과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다. 그녀는 한국어를 처음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존경과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 한국어 선생님은 연구참여자 B에게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 개최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고 심사위원으로 온 한국 사람들을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그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그녀는 참여자들 중에 가장 어렸다. 단상에서 아기 목소리로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어로 더듬더듬 하자 심사위원들은 방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연구참여자 B는 긴장 때문에 중간에 멈췄지만 심사위원의 눈빛과 미소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따뜻함과 응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연구참여자 B는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말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한국인 심사위원들의 표정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그 심사위원들은, (한국사람은) 처음으로 본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지를 보고 잠깐 멈췄다가 기억하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웃었지만 저는 3등을 받았어요.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웃음). 이를 떠올리면 아직도 웃음이 나요.” (연구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처음 참여하여 3등을 받게 되었다. 이는 한국 사람들과 가깝게 만났던 것이 처음인,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려고 결심하였고 한국 사람들과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1.2. 중·고등 시절: 소통에서 미소가 담긴 따뜻함

한국어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긴 연구참여자 B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타슈켄트 국립 동방고등학교 한국어학과에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한국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B가 타문화권 사람들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오랫동안 교류했던 것은 KOICA에서 근무했던 때였다. 연구참여자 B는 타슈켄트 국립 동방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2년 동안 KOICA에서 가이드로 활동하였다. KOICA 근무자들은 연령별로도 직업별로도 다양한 한국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KOICA 근무자들에게 우즈베크어를 가르치기도 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의 관광지를 구경시키기도 하였다. KOICA 근무자들은 그녀에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우즈베크어를 배웠고, 오후 문화 시간에는 문화를 익히기 위해 그녀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 즉 밖에 나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봉사 활동이나 박물관, 광장을 구경하였다.

연구참여자 B의 하루는 긴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매일 매일 한국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식사 및 산책하는 동안에도 우즈베크 언어와 우즈베크 문화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 그녀의 의무이자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저에게 위대한 경험입니다.” (연구참여자 B, 2018.01.16.)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KOICA에 취직한 그녀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실수를 하지 않도록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그래도 실수를 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실수를 고치면서 배워갔다.

“때로는 제가 구성한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나의 이러한 노력을 본 한국인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노력이 있는 곳에 실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실수를 할지라도 그 목표 언어로 말하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수줍음은 아직까지도 저를 따라 오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는 KOICA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국문화와 많이 접촉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녀는 한국 사람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KOICA 및 한국교육원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한국, 한국어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B는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이지만 KOICA 근무자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을 더 편하게 생각했다. KOICA 근무자들 역시 그녀를 자기의 막내딸처럼 여겨 잘 대해줬고 연구참여자 B는 즐겁게 근무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KOICA 근무자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한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초·중학교에서의 동아리 및 타슈켄트 국립동방고등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를 보다 실제적으로 배우기 위하여 한국행을 선택하였다. 어떤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더 잘 습득하기 위해 그 나라에 가서 배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한국사회 및 한국문화 속에서 살면서 한국인들과 접촉하여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한국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이 사회 구성원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면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돼요.” (연구참여자 B, 2018.01.16.)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B는 한국 정부 및 한국 대학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장학금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회가 생겼을 때 서류를 제출하고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사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을 때 한국에 유학으로 갈 수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명 내 친구들도 이러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한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배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구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는 2015년에 한국에 있는 D대학교의 학사 학위과정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그녀는 현재 이 대학교의 4학년 학생이다. 한국에 유학을 해서 한국에서 한국어와 동시에 한국문화도 배우는 것이 큰 동기가 되었던 그녀는 현재 한국문화와 접촉하면서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

### 1.3. 대학생 시절: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로 생긴 소통의 어려움

연구참여자 B는 페미니즘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녀는 여성이지만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놀라요. 너도 여성인데 왜 여성주의에 반대하냐고 말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의 90% 사람들이 나의 이 주장에 반대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주된 이유는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면서 느꼈던 경험을 통해 결정을 하는데 저의 이 결심도 저의 생활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즉, 생활하면서 여성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고 서로 간의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연구참여자 B, 2018.01.16.)

어렸을 때부터 세 명 오빠들과 같이 자라온 연구참여자 B에게 여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래서 그녀는 심리학책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심리, 그들의 삶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배움으로써 여성들과 어울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매우 내성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어



면 역할도 완벽하게 하는 여배우... 원래 ‘약자’ 라는 개념인 가면을 쓰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유명한 여배우로 봐요, 여성들을. 그래서 여성들에게 대한 믿음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여성들만 참여하는 모임을 피하려고 해요.” (연구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의 가족에는 딸이 그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오빠들과 함께 자랐다. 오빠들과의 긴밀한 관계는 그녀가 학교에 다닐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여성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듯하다. 예를 들면, 연구참여자 B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약자’ 라는 개념인 가면을 쓰고 남성들을 이용하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는 그녀에게 충격이었다. 현재 그녀는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여성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여성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삶에서 연구참여자 B의 제일 큰 어려움은, 성장 환경과 다른 현재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강한 남성주의적 사회이지만 한국은 이보다는 약한 수준의 남성주의적 사회이다. 또한 그녀는 남성들과 함께 성장했지만 지금은 가족과 단절되어 여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여성주의를 우선시하는 여성대학교라는 맥락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새로운 환경이었다.

그녀는 지금 여성들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의 세계관은 그녀에게 낯선 세계이고 그녀는 이 세계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태이다. 그녀는 지금 여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성들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얻었던 대부분의 도움은 주로 남성들에게 받아왔던 연구참여자 B는 한국에서 맞닥뜨린 여성주의에 반대한다.

“...아빠나 친오빠들, 미래의 남편... 그들은 나에게 친구이기도 하고 모든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기도 해요. 여자인 어떤 친구에게도 얻을 수 없었던 정신적인 도움을 그들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성들한테 받았던 많은 상처들 때문에 페미니즘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가 여성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성들에게 받았던 상처, 즉 그녀의 개인적 생활에 대한 것을 알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거나 헛소문을 내고 또는 뒷담화를 하는 것 등으로 그녀는 여성들에 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여성들에게 받은 상처는 그녀가 여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다. 연구참여자 B는 여성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 거꾸로 여자인 친구들은 그녀를 그들과 좀 다르다고 여기고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후회하느냐고... 내가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후회하느냐고... 그때 이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네’ 라고 대답했었어요. (웃음). 가능했다면 남자로 태어났을 텐데...” (연구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는 어떤 여자들을 만나거나 봤을 때 왜 내가 이들과 같은 구성원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내숭을 떨거나 표리부동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학교 수업 중 페미니즘과 관련된 수업을 듣지 않았다. 대학교에서의 ‘여성 스토리텔링’, ‘여성학이론’, ‘여성과 리더십’ 등의 과목들은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을 가르치는 과목들인데, 연구참여자 B는 여성들은 이러한 수업 없이도 이미 큰 리더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연구참여자 B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페미니즘이라 여기는 내숭을 떨거나 표리부동한 것은 오히려 페미니즘이 비판하는 모습이다. ‘페미니즘은 여성을 억압하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구조적 상황들을 파헤치고 그 억압된 상황에서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명선, 2005).’

“여성들이 겉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실제로는 매우 큰 리더예요. 민족이나 인종, 또는 종교나 문화와 관계없이 리더십은 모든 여성들의 피에 있어요. 어떤 나라에 가도 이것이 모든 여성들에게 똑같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럴 때 ‘역시 여자이구나.’ 라는 의식이 들어요. (리더십은) 민족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는 성장한 환경과 현재 삶의 환경이 매우 다르며, 이러한 환경에서 그녀는 성장한 환경에서의 가치관을 보다 선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남성주의가 강한 편인 우즈벡 가족에서 태어났고 자라왔지만 한국에 유학을 와서 성장한 환경과 다른 여성주의가 더 강한 환경을 느끼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B는 한국에서의 어떤 분야를 봐도 여성주의가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여성과 리더십’ 같은 수업을 통해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다.

한편으로 연구참여자 B의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것이 그녀의 상호문화소통에 영향을 미쳤다. 상대방과 소통할 때 상대방의 민족이나 인종, 또는 성별과 관계없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과 반대 입장에서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

#### 1.4. 유학 후 계획: 소통으로 지식 공유

자기 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연구참여자 B의 전공은 정치외교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서 이 전공으로 근무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녀는 외교관이 되어서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려고 한다. 그리고 교수가 되어서 한국어에서 배웠던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다. 그녀는 강의를 한국의 교육 시스템, 즉 토론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교수님만 강의하시고 학생들은 듣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토론이 무언지를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교수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교수도 잘못을 할 수 있다.’ 예요. 그래서 한국 교육 체계에 근거하여 강의를 하려고 해요. 아울러 심리학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뛰어난 학생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심리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리학을 더 많이 공부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한다.

## 2. 사회와 기관 영역

### 2.1. 가정: 3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나’

연구참여자 B는 우즈벡 민족인 가족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가족은 모두 다섯 명으로 어머니, 오빠 3명 그리고 그녀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B의 어머니는 장애인 유치원에서 선생님이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은퇴하여 연금 수령 중이다. 연구참여자 B에게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은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그녀가 닮고 싶은 사람이다. 가장 큰 오빠는 외무부 장관이고 막내 오빠는 경찰관이다. 그리고 작은 오빠는 항공 기술자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병으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가족에서 막내이자 유일한 여자아이로서 태어난 연구참여자 B는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랐다.

연구참여자 B의 가족은 남성주의에 해당되지만 이는 강하지 않다.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권과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우리 가족은 남성주의라고 하지만 매우 강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아버지에게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오빠들에게는 동생이기 때문에 오빠들을 따라야 해요. 모두 자기의 위치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의 가족은 남성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되지 않고 그들에게도 자유권이나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연구참여자 B의 가족은 상호존중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 2.2. 학교: 혼자 있어야 안전함

연구참여자 B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마음의 깊은 곳에 숨기고 이를 아무에게도 열고 싶어 하지 않

는 편이다. 연구참여자 B는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았을 때 안전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감이 없어져 불안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하는 개인적인 질문은 그녀를 매우 당황스러워 사람들과 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연구참여자 B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수가 적다’ 나 ‘차분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에게는 자신만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취미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형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을 스스로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보면서 배웠어요. 원래 뜨개질하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지만 나중에는 시간 관계로 계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런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이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뜨개질을 통해 인형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자기 계발을 위해 모든 사람은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나이가 저보다 많거나 어린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에게는 성실함을,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인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또래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재미있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혼자 하는 일을 즐겨한다. 그녀는 다양한 종류의 옷감으로 옷과 장난감을 만드는 것을 즐겨하고, 이렇게 만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주문을 받아 판매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연구참여자 B는 자기의 개인생활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각 개인에게 개인 생활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나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 이야기하고 선물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또한 연구참여자 B는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을 선호한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물건, 평범한 의상 등은 그녀의 취향을 나타

널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 B 자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녀는 화려함은 사람들을 눈부시게 하고 옳은 길을 잃어버리게 하며, 화려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반면에 평범함은 시간이나 공간을 고르지 않고 자연처럼 자기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그녀의 신념에 따라 연구참여자 B는 평범한 사람들과 조용히 사귀고 평범한 의상을 입고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 2.3. 사회: 소통은 민족보다는 성격의 문제

연구참여자 B에게 한국 유학은 ‘인생에 대한 큰 학교’였다. 인생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던 그녀는 해외에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면서 인생과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게 되었어요. 자기조절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은 나에게 인생의 큰 학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B, 2018.01.16.)

늘 가족들과 함께 살아온 연구참여자 B는 한국 유학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생 및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B는 유학을 와서 만난 사람들 중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또 누구를 믿으면 안 되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대해서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 이후에 없어지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다. 이러한 ‘친구’들에게 나의 상태보다 하려고 하는 부탁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 친해지지 않고 피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연구참여자 B는 우즈베크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한국 사람들 중에도 봤고 한국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우즈베크 사람들 중에서도 보았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든 사람일 경우 그녀를 자기 자녀로 보고 이해와 배려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국적이나 민족별로 다르지 않고 성

격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사람들 간의 차이점은 성격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다른 문화권 사람과 소통할 때도 ‘이 사람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이라서 그래’ 라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국적이나 민족과 관계없이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만 들어요.” (연구 참여자 B, 2018.01.16.)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녀는 개인의 문제는 민족성과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연구참여자 B는 사람들 간의 차이점은 민족이나 인종, 또는 문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B에게 자기의 정체성, 즉 ‘나’ 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그녀는 자기의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잘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필요할 때마나 한국 유학 오기 전에 꿔던 꿈,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나’ 를 지켜 왔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적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연구참여자 B는 누구도 그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 를 잘 지켜왔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내부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게 해요. 나 자신에게 있는 이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외부로부터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형처럼 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피하려고 해요.” (연구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는 한국에서 사는 동안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으며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에 잘못 얽혀서 인생의 길을 잘못 선택했음에 불구하고, ‘나는 옳은 길을 선택했다’ 고 소리를 치는 몇몇 젊은이들을 만났다. 그녀는 그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온 유

학생들 중에 이슬람 종교를 가졌지만 여기 와서 기독교에 믿게 된 젊은이들을 ‘종교적으로 자기의 길을 잃은 사람들’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슬람 종교에 따르면, 무슬림 부모의 자녀가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자녀가 커서 종교를 바꾸면 우즈베키스탄 사회 구성원들이 그 자녀를 같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제시킨다. 심지어 이슬람 종교를 다른 종교로 바꾼 자녀를 자기 부모도 용서할 수 없으며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이슬람 종교는 단지 종교뿐만 아니라 우즈베크 민족의 문화와 사상이 들어난 가치관이다. 즉, 우즈베크문화권 사람들에게 이슬람 종교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B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도 자신이 가진 이러한 종교적 정체성을 평생 지켜야 한다고 언급한다.

### 3. 연구참여자 C: 소통을 통해 공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연구참여자 C는 미래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기로 하였다. 그녀는 현재 서울에 있는 D대학교의 3학년 학생이다. 연구참여자 C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연구참여자 C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징

시간적 연속성				사회와 기관 영역		
어린 시절	중·고 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계획	가정	학교	사회
우정의 힘. 소통으로 성장한 ‘나’	한국어가 준 기회	인간은 늘 혼자임	하나님의 사랑	엄마에게 ‘시어머니’ 인 ‘나’	소통에서 농담 주의	한국에서 알게 된 소통의 가치



## 1. 시간적 연속성

### 1.1. 어린 시절: 우정의 힘. 소통으로 성장한 '나'

아버지가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6살밖에 안된 연구참여자 C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었다. 그녀는 유아 시절에도 그 이후에도 누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녀에게 어려운 과제였다. 이는 그녀가 초등학생이 된 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고 친구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우정은 더욱 강해졌다.

“저는 매우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친구는 매우 적극적인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늘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늘 같이 하자고 하면서 친하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C, 2018.03.16.)

연구참여자 C는 그녀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8학년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성장하였다. 아버지의 병과 죽음으로 인하여 소극적이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을 선호하였던 그녀는 적극적이고 사람들과 쉽게 사귀는 친구를 만나면서 성격도 행동도 변화되었다.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서 러시아어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녀는 그들과 함께 놀고 자라면서 성격도 태도도 우즈베크보다 러시아 사람에 더 가까웠어요. 저를 말하게 한 사람도 바로 그 친구예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준 사람이 바로 이 친구라고 하세요. 심지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같이 있을 거고 우리의 무덤이 옆에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또한 나중에 결혼하고 딸과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결혼시키고 서로에게 사돈이 될 거라고 결심했어요.” (연구참여자 C, 2018.03.16.)

자기 자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연구참여자

C는 적극적인 성격의 친구와 가까워지면서 소통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심지어 중학교 9년 때 그녀는 반장까지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우정 덕분에 연구참여자 C의 소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고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또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두려움이 없어졌고 매우 활발하게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게 되었다.

## 1.2. 중·고등 시절: 한국어가 준 기회

연구참여자 C는 타슈켄트 국립 재정고등학교에서 공부하던 2010년 여름 방학 때 한국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당시 여학생과 남학생 각 3명으로 구성된 한국인 대학생팀이 그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하여 2개월 동안 그들에게 IT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그때 처음으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국 음식도 만들어줬고 여러 가지 맛있는 과자도 가져 오고 한국 노래도 불러줬거든요. 그때 우리가 놀란 것이 한국 여자들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짧게 입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 여학생들이 예쁘게 보였어요. 너무 평범하지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 보였어요. 우리는 그 학생들을 우리와 같은 나이, 즉 17-18살 줄 알았지만 사실 그들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었어요. 24-25살인 대학교 3-4학년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매우 쾌활한 편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에 비하면, 굉장히 쾌활하고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발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때는 매우 열심히 했어요.” (연구참여자 C, 2018.01.16.)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C는 한국인 대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외모, 옷차림 그리고 행동에서 차이점을 느꼈지만 이는 그들과 친해지고 친구가 되는 것에 장벽이 되지 않았다.

한국인 대학생들은 2개월 동안 한국어와 IT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맛있는 한국 과자도 주었다. 그리고 한국 노래도 불러주고 기타 치는 방법도 가르쳐줬다. 2개월 동안 매일 오전에는 노래

를 부르는 수업이 있었고 그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IT와 악기를 배우는 수업으로 나누어져서 진행되었다.

그때 연구참여자와 수업은 받은 고등학생들은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대학생들은 러시아어를 조금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영어, 러시아어를 섞어서, 때로는 통역가를 통해서 소통하였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과 원하는 주제로 마음껏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하였다.

고등학교 여름방학 2개월 동안 매일같이 만난 한국인 대학생들은 그녀가 처음 만난 외국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외국인은 결코 낯선,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니었다. 수업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면서 우즈베크인인 연구참여자 C와 한국인 대학생은 국가나 민족, 언어를 떠나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이는 연구참여자 C를 비롯한 많은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행복함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처럼 ‘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C, 2018.01.16.)

연구참여자 C는 2개월 동안 한국인 대학원생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들과 자신은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우즈베크 사람들에게도 ‘정’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다른 나라 사람, 또는 다른 문화권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같은 인간, 즉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고 더 친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이지만 우리 사이에 이루어졌던 친구로서의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연구참여자 C, 2018.01.16.)

2개월이 지나서 한국인 대학생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후에 많은 고등학생들은 그들을 그리워했고 일부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였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 여름방학은 처음으로 다른 문화권 사람을 만난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한국인 대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간 지 한 달 후, 연구참여자 C는 그 대학생들과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우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한국교육원을 찾아갔다. 한국어교육원은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이 운명하고 있었으므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어교육원은 그녀가 사는 집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한국어교육원을 자주 오기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한국어교육원 대신 집 근처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녀가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운 것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때부터 한국어에 관심이 생겨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학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진행되었고 한복을 입고 춤도 쳤고...”  
(연구참여자 C, 2018.01.16.)

연구참여자 C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도 같이 배웠다. 그녀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매일 매일 배우면서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친한 한국인 대학생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언어와 그들에게 소중한 문화를 알아가면서 기쁨을 느꼈다.

### 1.3. 대학생 시절: 인간은 늘 혼자임

연구참여자 C는 타슈켄트 국립 재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래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유학을 가기로 하였다. 해외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 국가를 검토하던 그녀는 한국을 선택하였다.

“한국에 유학을 온 이유는 물론 좋은 직장 나중에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동기였지만 E 대학교 장학 프로그램에서 저를 뽑아주셨고, 그동안 재미있게 배웠던 한국어, 한국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참여자 C, 2018.01.16.)

한국어,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던 연구참여자 C는 드디어 한국에서, 한국

문화 안에서 살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E대학교의 국제통상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이것은 우연히 만난 한국과의 인연을 한국어 공부를 통해 필연으로 만든 그녀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즈베키스탄을 떠났다.

한국유학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던 연구참여자 C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두려움이 생겼다.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등의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두려워졌다. 그녀는 유학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은 채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었다.

“우선 한국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았어요. 낯선 문화, 어려운 한국 교육 시스템 등등. 그래서 처음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인생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공부하기가 쉬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죠.” (연구참여자 C, 2018.01.16.)

한국 대학의 높은 교육열이 해외에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국 유학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한국에 유학하러 온 연구참여자 C에게는 처음 접한 낯선 문화였다.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연구참여자 C는 옆에 부모님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자녀들이 있어도 인간은 늘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자녀를 언젠가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러한 아픈 헤어짐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다. 그러다 어떤 시간이 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인생의 법칙이다.

“우리 엄마는 아빠와 결혼했을 때 아빠가 세상을 일찍 떠날 줄 모르셨고 우리도 아빠가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 했었죠. 엄마가 아팠을 때도 느꼈던 것인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C, 2018.01.16.)

연구참여자 C는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독립적인 생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 그리고 아무의 도움이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등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C에게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운 ‘학교’이다.

#### 1.4. 유학 후 계획: 하나님의 사랑

연구참여자 C의 종교는 기독교이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C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그녀는 사람이 얼마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하였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구이고, 왜 태어났고, 삶의 의미는 뭐고, 사랑이 뭔지... 이를 알고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C, 2018.01.16.)

연구참여자 C는 여러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생과 죽음, 인간의 행동 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인간은 늘 행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가끔 행복하기 위해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나 시간을 잃는다. 이렇게 희생을 한 후에 행복이 올 것인가? 아니면 평생 기다려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연구참여자 C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게 한다.

“인생의 자체가 무엇이고 인생에서 사는 목적이 또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태어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태어나게 했을까? 지금 세상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이고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행복할 수 있을까?” (연구참여자 C, 2018.01.16.)

연구참여자 C에 따르면 인생에서 행복이 물론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없다. 그녀에게 있어서 세상은 고통이고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다. 연구참여자 C의 생각에는 원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등. 그래서 연구참여자 C의 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간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발전하는 것이다.

## 2. 사회와 기관 영역

### 2.1. 가정: 엄마에게 ‘시어머니’ 인 ‘나’

연구참여자 C의 가족은 모두 3명으로 어머니와 여동생, 연구참여자 C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

연구참여자 C는 어머니에게 사랑스러운 큰딸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음악가인 연구참여자 C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극장에 자주 데려가곤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C의 가족 사고방식은 개방적이고 어느 분야에서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 보통 전통 우즈벡 가정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자기의 개인적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달리 연구참여자 C는 어떤 주제든 부모님과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연구참여자 C는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왔다. 세 가족 중 어머니가 마땅히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연구참여자 C는 그녀의 성격이 그녀를 집안의 ‘시어머니’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가정에서 나를 ‘시어머니’라고 해요, (웃음) 엄마도, 여동생도. (제가) 집에서 리더 역할을 해요. 집에서 질서를 잘 지켰으면 해요. 집이 매우 깨끗해야 하고 음식이 맛있어야 하고... 예를 들면, 집에서 감자가 떨어졌으면 만트(\*만두와 같은 우즈벡 음식)를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마와 여동생이 감자 대신 호박으로 만들자고 해요. 그러나 이때 내가 항상 반대해요. 무언가를 할 때 완벽하게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이를 아

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웃음).” (연구참여자 C, 2018.01.16.)

연구참여자 C의 가정은 개방적인 분위기이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절차를 따라야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표준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으면 일단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재료를 완벽하게 구입해야 한다. 재료 준비에 부족함이 있다면, 재료 중에 하나만 빠지더라도 음식을 만드는 것은 시작될 수 없다.

이러한 그녀의 성격은 마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 완벽주의자에 가깝다. 그녀는 큰딸이고 동생에게 하나밖에 없는 언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이러한 완벽주의 성격이 형성되었다. 그녀의 이러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드러난다. 그녀는 무엇을 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한다.

## 2.2. 학교: 소통에서 농담 주의

연구참여자 C는 유학 초기에 한국문화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 한국 사람과 소통할 때, 특히 농담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었다.

“한국 친구에게 ‘머리카락이 긴 여자의 머리가 나쁘다.’ 라는 우즈벡 속담을 농담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너무 화났죠. 또 다른 한국 여자인 친구는 한 남학생에게 ‘못생겼다.’ 라고 하면서 늘 비웃곤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무서워하는 것이 가까이 온다.’ 라는 우즈벡 속담이 있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울어버렸어요. 이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이냐고 하면서 울었죠. 그때는 절대 아니라고 우즈벡문화에는 이런 속담이 있을 뿐이라고 많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농담이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이런 농담을 다시 하지 말라고 했었죠.” (연구참여자 C, 2018.01.16.)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C는 소통에서 농담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 유학으로 온 후에도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농담을 즐겨했다. 그러나 농담은 문화 및 사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한 문화와 사회 안에서의 사용이 가능한 농담이 다른 문화나 사회 속에서의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러한 미묘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참여자 C는 유학 초기에 한국인 친구들과 사귀고 소통할 때 실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를 통해 한국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배웠고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특히 농담을 주의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 2.3. 사회: 한국에서 알게 된 소통의 가치

연구참여자 C는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예전보다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고 세상에 대한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은 나에게 큰 수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과 늘 살다가 뜻밖에 해외에 나가 살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2018.01.16.)

그녀는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우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유학 생활은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의 가치, 고향은 무엇인지 등을 알게 해주었다.

“예전에 여동생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지만 내가 여기로 유학 온 후에는 매우 가까워졌고 매우 친해졌어요. 서로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어요. 어머니와 관계도 마찬가지로요. 다시 말하면, 상호존중이 높아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2018.01.16.)

연구참여자 C의 유학생생활은 특히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다. 유학을 온 지 2년이 지나서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듣고 바로 1년 휴학을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의사들에게 어머니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어머니의 상태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C는 휴학

하고 1년 동안 되도록 많이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였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자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졌고 그녀는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

#### 4. 연구참여자 D: 소통에 근거한 학문적 성향

연구참여자 D는 한국어를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서울에 있는 E대학교의 박사 5차 학생이다. 그녀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연구참여자 D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징

시간적 연속성				사회와 기관 영역		
어린 시절	중·고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계획	가정	학교	사회
편지를 통한 소통	소통으로 얻은 동기	소통으로 찾았던 가족	학문을 계속해서	큰딸로 태어난 '나'	수업에서 이루어진 소통	책임감이 강한 '나'

### 1. 시간적 연속성

#### 1.1. 어린 시절: 편지를 통한 소통

우즈벡, 타타르, 타지크 등 세 가지 피가 섞인 혼혈 가족에서 태어난 연구참여자 D는 주로 러시아문화권 사람들로 구성된 러시아 반 유치원에 다녔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유로 우즈벡어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집에서 주로 타타르어나 러시아어를 쓴 그녀는 우즈벡어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 초등학교에서의 첫날, 교실에 들어가서 러시아 사람처럼 생긴 학

생을 보고 안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 학생과 러시아어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을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제가 교실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을 빼고 모든 학생들이 까만색 머리인 우즈벡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친구들 중에서도 러시아어권 사람만 있어서 우즈벡어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저는 긴장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한 여학생의 노란색 머리를 보고 러시아 사람인 줄 알고 그 여자 옆에 앉았어요. 그 당시 입었던 그 여학생들의 교복에는 파란색 앞치마가 있었는데 그 학생의 앞치마의 한 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를 보고 제가 그녀의 앞치마를 예쁘게 제 자리로 올려줬고 그녀는 대답으로 러시아 말로 나에게 고맙다고 했었어요. 그 여학생이 러시아어로 한 대답을 듣고 러시아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매우 반가웠고 그녀와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D, 2018.03.17.)

연구참여자 D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만난 그 학생은 전통적인 우즈벡 가정에서 태어났고 주로 우즈벡어로 소통하지만 연구참여자 D를 처음 보았을 때 러시아문화권 사람인 줄 알고 그녀와 러시아어로 소통하였다. 그러므로 그 당시 그녀가 한 러시아어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친해졌다.

연구참여자 D는 그 친구와 사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여학생은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세부적인 내용보다 전체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는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속담을 많이 쓰는 편이었다. 그녀와 소통하면서 연구참여자 D는 자기도 모르게 속담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직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소통하였다.

“그녀에게 배웠던 가장 큰 것은 글을 마음을 담아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녀는 말을 할 때 개방적이지 않지만 글을 쓸 때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감동적으로 표현했었어요. 그녀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감동받고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해서 글을 쓰도록 노력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낼 때 일반적인 표현을 피하고 예쁜 표현들을 쓰도록 해요.” (연구참여자 D, 2018.03.17.)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D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사귄 친구 덕분에 우즈벡어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우수한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매일 매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의견이나 감정을 감동적인 글을 통해 전할하는 방법도 배웠다. 연구참여자 D는 그 친구를 만나 글을 통해서 마음으로 소통하게 된 것이다. 즉, 말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었다. 그녀는 현재까지도 이러한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1.2. 중·고등 시절: 소통으로 얻은 동기

연구참여자 D는 중학교 7학년 때 선생님과 같은 반 학생들과 같이 우즈베키스탄 유적지를 구경하기 위해 사마르칸트를 방문하였다. 그때 거기에서 처음으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당시 그녀를 포함해서 선생님과 2명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 그들이 어떤 유적지를 구경하고 있었을 때 옆에 있는 두 명, 즉 50세 서양 얼굴을 지닌 한 남자와 여자에게 눈이 갔다. 그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방긋이 미소를 지었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5-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한 첫 만남과 첫 소통이었어요. 그때는 매우 기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영어로 말한 것을 이해해서 아주 기뻐요. 우리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또 다른 데를 방문해야 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D, 2018.01.27.)

그때 7학년이었던 연구참여자 D는 그들의 외모나 옷 스타일, 대화하는 방식 등에서 차이점을 느꼈지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친절하게 대답하는 모습에서 서로 간의 공통점을 보았다.

연구참여자 D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사마르칸트 방문에서 미국 사람들을 봤을 때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느낌, 즉 행복함을 느꼈다.

“미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행복을 느꼈어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은 나에게 큰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느낌만 떠올라요.” (연구참여자 D, 2018.01.27.)

연구참여자 D가 미국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던 담임 선생님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하였다. 연구참여자 D가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영어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문화권 사람들과 만남은 연구참여자 D에게 영어를 더 열심히 배우게 한 큰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이 공부하고 있었던 학교 학생들 사이에 개최된 영어 올림픽에 참여하여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 만남 이후에 어떤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잘하면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연구참여자 D, 2018.01.27.)

미국문화권 사람들과 만남은 연구참여자 D에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녀는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상호존중 및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타문화 사람들과 소통 경험으로 인하여 그녀는 언어학을 전공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언어는 마음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연구참여자 D가 공부하고 있었던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고려인이었는데 그는 학교 안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아리를 개설하였다.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긴 연구참여자 D는 한국어를 배우러 그 동아리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생겼으면 좋겠냐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때는 여학생들이 어떤 남학생에게 학교 안에서 한국어 동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라고 시켰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은 이런 동아리가 우리 학교에 이미 있다고 알려주셨죠. 그 이후에 친구 두 명과 같이 학교 안에 있는 한국어 동아리에 다니

기 시작했어요.” (연구참여자 D, 2018.01.27.)

연구참여자 D는 학교에서의 한국어 동아리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국어를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한국교육원에도 다니기 시작하였다.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을 몇 번 만나 봤지만, 한국어를 아직 잘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한국교육원 최고급 반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하였다. 그때 수업이 끝난 후에 그녀는 원어민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다. 그녀가 한국 사람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처음이었다.

연구참여자 D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타슈켄트 국립 동방고등학교의 한국어 전공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타슈켄트 국립 세계언어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거기에서 제1 언어로 영어와 제2 언어로 아랍어를 배웠다. 그녀는 처음부터 제2 언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한국어 반이 열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랍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D는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배우기로 하였다.

### 1.3. 대학생 시절: 소통으로 찾았던 가족

연구참여자 D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고려인들의 조국인 한국은 공간적으로 멀지만, 마음으로 가깝게 느껴졌다.

“... 그래서 한국을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유학하러 오기로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학사만 공부할 줄 알았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석사도 하고 싶어졌고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박사도 하고 싶어서 박사 과정에 들어왔어요. 결국 9년 동안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게 된 거죠.” (연구참여자 D, 2018.01.27.)

연구참여자 D는 대학교 1~2학년 때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계속 지

원해왔고 결국 3학년 때 합격하게 되었다. 합격한 뒤에 한국에서 유학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반대하여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딸의 공부하고 싶은 열정을 이해하고 허락해주셨다. 그녀는 우즈베키스탄 대학을 휴학하고 한국에 유학생으로 들어왔다.

연구참여자 D는 학사 학위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울에 있는 Y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였다. 그녀는 한국의 Y 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했을 때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중국인 학생을 만나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중국에 가 있어도 경우에도 연구참여자 D에게 연락하곤 하였다. 그들은 어학당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Y대학교의 같은 전공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4년 동안 같이 공부하였다. 고향에서 늘 부모님과 살고 해외에 나가 본 적이 없었던 연구참여자 D는 그녀와 사귀면서 학교생활 및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녀 덕분에 유학생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및 문화에 적응하는 데 그녀의 도움이 커요. 물론 처음에 우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오해가 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네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이후에 오해가 다 풀렸어요. 그녀와 친해지면서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중국 음식을 즐겁게 먹게 되었어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아는 중국 사람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대접을 잘 하고 직접적인 소통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이에요. 중국인 친구와 사귀면서 중국이라는 나라와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존중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D, 2018.03.17.)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 D는 어학당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와 친한 친구가 되면서 한국의 사회 및 문화에 잘 적응하고 중국문화 및 중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또한 그녀는 타문화권 사람과 소통에서 다양함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게 소통하는 것을 배웠다. 또한 연구참여자 D는 그 친구가 중국에서 진행한 결혼식에도 참석하여 그녀의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에게 이 친구는 단순히 친구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기도 한다.

#### 1.4. 유학 후 계획: 학문을 계속해서

언어학 및 외국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참여자 D는 국어문학과를 전공하기로 하였다. 대학교 수업 때는 다른 학생들이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잘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른 학생들을 신경 쓰지 않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 자기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그녀에게 수업은 상호작용 및 상호 소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학사 학위를 마친 그녀는 공부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석사에 들어가서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자기가 공부하고 있던 Y대학교에서 석사를 하려고 했지만 전체 장학금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전체 장학금을 주는 서울에 있는 E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녀는 현재 이 대학교에서 국어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D는 박사 학위를 마치고 이중언어교육, 이중문화교육, 소수민족 및 소수집단,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고 한다. 충분히 연구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언어학을 가르치는 것이 그녀의 꿈이다. 아울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1-2년 동안 선생님이로 근무해본 다음에 다문화 강사나 언어(우즈베크어 및 러시아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중에 잘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 가서 언어를 가르침으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 D의 가장 큰 꿈은 인간미를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학자들이 많지만 인간미를 가진 인간다운 학자들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로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회도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이 되고 싶죠. 경험을 통해 말하자면, 가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그 뒤에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날 때 되도록 답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답하도록 해요. 자기 계발을 위해서 아직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D, 2018.01.27.)

연구참여자 D는 학문을 계속하여 현장 연구도 하고, 그녀의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기도 한다. 아울러 교수가 되어서 경험했던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꿈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인생에서 인간은 의무가 있는데, 이는 가지고 태어난 인간미를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D는 상호이해, 상호존중과 상호인정 등을 통해서 인간미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 2. 사회와 기관 영역

### 2.1. 가정: 큰딸로 태어난 ‘나’

연구참여자 D는 우즈벡, 타타르, 타지크 등 세 가지 피가 섞인 혼혈 가족의 큰딸이다. 연구참여자 D의 가족은 모두 4명이며 아버지, 어머니, 그녀와 28살인 남동생을 포함한다.

연구참여자 D는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깊이 느낀다. 또한 그녀는 지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가족에서의 큰 자녀로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그녀를 지도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적 성격 때문에 그녀는 대학교에서 반장이었다.

“남동생만 있고 여동생이 없어서 남동생을 믿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남동생과 상담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남동생과 상담하면서도 해결해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남성의 지지가 필요할 때 동생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연구참여자 D, 2018.01.27.)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D는 가정에서 큰딸, 누나로서 책임이 크고 어떨 때는 부모님-자녀, 누나-동생 관계를 벗어나 서로에게 친구가 된다. 다시 말하

면, 그들의 관계는 권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인정, 상호존중 그리고 상호 이해에 기반을 둔 친구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D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녀는 어떤 일이든 잘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찾아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 2.2.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진 소통

연구참여자 D는 Y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E대학교에 지원해서 석사로 들어왔다. 그녀는 석사 과정에서 공부했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그룹 스터디에 참석해보았다. 그녀가 참석한 그룹 스터디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도와주기도 하고 종합시험을 같이 준비하기도 하는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세미나 방식 수업에서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섞여 앉아서 서로를 도와줬다. 그룹 스터디는 보통 10-15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다. 그룹 스터디에 처음에 한 번 참석해본 연구참여자 D는 학생 한 명이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이 듣기만 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공부 방식이 그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수업이나 스터디에서 질문하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질문의 대답을 얻지 못하여 그냥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발표하고 있던 학생이 그녀의 의견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자기주장만 하였다. 모든 스터디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져야 스터디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녀는 그 스터디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원하는 스터디는 우리 집에서 읽고 와서 토론하는 것이예요. 집에서 다 읽고 왔으니까 발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을 내가 집에서 읽고 왔으니까 이에 대한 발표를 들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었죠. 그 이후에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 건 내 생각이예요.” (연구참여자 D, 2018.01.27.)

연구참여자 D는 그 이후에 석사 과정에서 다른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기로 하였다.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온 유학생들을 위해 진행된 스터디는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마쳤던 그녀에게 시간 낭비로 느껴졌다. 연구참여자 D는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아서 다른 학생들과 서로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때 공부에 도움을 줬던 자습을 선택한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

열심히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 학위를 마친 연구참여자 D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박사 학위로 들어갔다. 박사에 들어간 후에 연구참여자 D는 스스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 그녀의 스터디 그룹은 그녀 외에 한국인 학생 3명과 중국인 유학생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터디 그룹 구성원들이 주제를 함께 정하고 순서대로 한 사람이 주제에 맞게 생각해야 할 점을 찾고 일주일 전에 자료를 나누어준다. 그들이 자료를 집에서 읽고 와서 스터디 때 각각의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면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들이 연습 문제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비디오도 보고 이를 같이 논의하기도 한다. 그룹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 한 사람이 나가서 발표한다. 그들이 각 주제에 깊이 들어가서 문제점을 이해하고 답을 찾으려 한다.

“우리가 했던 스터디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내요. 내가 현실적인, 실제적인 것을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요즘 모두 학위논문 쓰느라 바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어요. 학생들의 나이는 나보다 좀 많아요. 스터디는 한국어로 진행해요.” (연구참여자 D, 2018.01.27.)

연구참여자 D는 스터디를 하면서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을 읽고 보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료들을 찾으면서 학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발전하였다.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그를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 그룹 구성원들이 자기가 쓴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서로의 보고서를 보고, 서로에게 코멘트도 해줬다. 그러므로 이러한 협동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를 응원해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학생이자 친구가 되었다.

아울러 예전에 작든 크든 어떤 일이 생기면 감동을 많이 받는 편이었던

연구참여자 D는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차갑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자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할 때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상대방과 공유하고 싶어서 말한다. 그러나 남자들은 보통 이런 공감 공유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9년 동안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뭔가를 말하면 이를 공감 공유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찾아서 제시하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D, 2018.01.27.)

이처럼 연구참여자 D는 자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 가족 중에서도 독립적인 편이었지만 그녀는 유학생을 와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더욱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다. 더불어 그룹 스터디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자신감과 상호존중, 상호인정 및 상호이해가 더 높아졌다.

인문학과 언어학에 관심이 많은 연구참여자 D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중언어교육, 이중문화교육, 소수민족 및 소수집단,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고 한다. 충분히 연구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언어학을 가르치는 것이 그녀의 꿈이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1-2년 동안 교사로 근무해본 다음에 다문화 강사나 언어(우즈베크어 및 러시아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한다. 그리고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 가서 언어를 가르침으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 D의 가장 큰 꿈은 인간미를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학자들이 많지만, 인간미를 가진 학자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사람들을 이

해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회도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 말하자면, 가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그 뒤에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날 때 되도록 답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답하도록 해요. 자기 계발을 위해서 아직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D, 2018.01.27.)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연구참여자 D는 학문을 계속하여 현장 연구도 하고 학술지에 논문을 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수가 되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꿈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태어난 후 인간에게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지고 태어난 인간미를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D는 상호이해, 상호존중과 상호인정 등을 통해서 인간미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본다.

### 2.3. 사회: 책임감이 강한 ‘나’

연구참여자 D는 모든 일을 자기가 맡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 그녀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 없거나 포기하면 그녀가 대신 일을 맡아서 그 일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D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아한다. 그러나 가끔 무리하게 그녀가 많은 일을 맡아서 힘든 경우도 있다.

연구참여자 D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잘 도와주는 편이다.

“내가 보기에 내가 여성보다 남성들이 가진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적이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가 맡는 편이에요. 그리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일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하도록 노력해

요.” (연구참여자 D, 2018.01.27.)

연구참여자 D는 자기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구별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한다. 그녀는 불만을 내는 것보다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더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한다. 아울러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연구참여자 D는 가끔 자기의 이러한 성격, 즉 남을 도와주려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다.

“...이 성격 때문에 가끔 고생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나 아주 사소한 질문도 나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자기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보고 그때 안 되면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답을 쉽게 얻으려고 해요. 그때 짜증나죠.” (연구참여자 D, 2018.01.27.)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연구참여자 D는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을 부드럽게 잘 하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기 일은 자기가 해라!’ 라고 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너도 할 수 있다.’ 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네가 매니저나 비서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웃음).” (연구참여자 D, 2018.01.27.)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면 연구참여자 D는 참고 참다가 계속 참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화를 내기도 한다. 그래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말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도 한다. 화를 내기도 하지만 빨리 제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이 성격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 그녀는 그때 자기 조절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연구참여자 D는 어떤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잘하는 편이다. 이런 점은 큰딸로 태어나 가정에서 배웠던 책임감이나 리더십은 그녀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참여자 D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나쁜 일을 하면 그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지 않는 점을 자기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한 경우, 10년 동안도 기억할 수도 있다는 예외도 있다.

연구참여자 D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며 어떨 때는 남동생이나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면 5-10분 뒤에 분노가 사라지는 편이다. 그래서 남동생이 그녀를 화나게 만들면 5분 후에 다시 전화할 거라고 하고 연락을 끊고 5분 뒤에 다시 전화한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말하면 화로 인하여 남동생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D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심이 많으며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 조절을 잘 수행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끔 하는 편이다.

## 5. 연구참여자 E: 친절한 소통으로 열리는 마음의 문

연구참여자 E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학교를 마친 후 그녀는 서울에 있는 S 대학교의 국제경영학과 전공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다. 그녀는 현재 이 대학교의 석사 4차 학생이다. 연구참여자 E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참여자 E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징

시간적 연속성				사회와 기관 영역		
어린 시절	중·고 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계획	가정	학교	사회
드라마 속의 '한국'	선택과 집중	한국은 내 가슴에	국제적인 인재로서 성공	소통에서 온 기쁨	소통으로 문제 해결	소통으로 알게 된 속어

## 1. 시간적 연속성

### 1.1. 어린 시절: 드라마 속의 ‘한국’

연구참여자 E는 초등학교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즈벡어로 처음 방송된 ‘별은 내 가슴에’ 라는 한국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 특히 그 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이 자기의 콘서트를 하는 중에 여자주인공에게 고백하는 장면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줬다. 아울러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러 장면을 보면서 한국은 예쁘고 깨끗하며, 사람들이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코리아’ 라고 하면 왠지 북한이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겨울 연가’ 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나는 한 번이라도 한국에 갔다 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연구참여자 E, 2018.01.31.)

한국드라마를 통해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참여자 E는 한국어를 스스로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교육원에 다니려고 했지만, 그 당시 아직 중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유하셨고 결국 연구참여자 E는 자습을 시작하였다.

### 1.2. 중·고등 시절: 선택과 집중

연구참여자 E에게 가장 가까운 분은 어머니이다. 그녀는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E의 어머니는 그녀가 의사가 되기를 원해서 의학 고등학교에 같이 가서 입학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고집이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편인 연구참여자 E는 어머니가 간 후에 같이 제출했던 입학서류를 다시 돌려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전문외국어 고등학교의 영어영문가이드 전공으로 지원하였다. 이 고등학교에는 4가지 전



공이 있는데 역사, 우즈베크어, 영어, 수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부터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던 그녀는 그중에서 영어를 선택하였다. 그때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이 학교밖에 없어 일단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기로 결정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

“의학교등학교에 안 들어가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가끔 만약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 길을 선택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그래도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웃음).” (연구참여자 E, 2018.01.31.)

이처럼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연구참여자 E는 어머니가 선택한 의학교등학교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원하였다. 딸의 행동으로 어머니는 처음에 화를 내고 섭섭해 하셨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였다. 이 선택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 E의 인생길은 전환되었고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인정, 상호존중 그리고 상호이해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고등학교에서 영어영문과를 전공하면서 영어를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가끔 학교 선생님과 미국대사관을 방문하곤 하였다. 학생들이 거기에서 영어로 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미국대사관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도서관으로 향하였다. 대사관에 들어갈 때도 도서관에 들어갈 때도 타문화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냥 옆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잠시 후 복도에서 한 미국인 여자를 만났는데 연구참여자 E는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이는 그녀가 타문화권 사람과 했던 첫 소통이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내가 매우 긴장했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했지만, 미국 사람이랑 이야기해 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좀 긴장했고

‘이 사람은 알아들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E, 2018.01.31.)

위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 E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로 수업 받고 있었으나 원어민을 만나서 실제로 영어로 대화해본 적이 없었다. 미국대사관에서 미국 여성과 진행한 대화가 그녀의 첫 번째 경험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까 봐 걱정도 하고 긴장을 하며 다가간 연구참여자 E는 타문화권 사람과 첫 소통에서 성공하였다. 미국 여성은 그녀에게 자기와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고 그녀를 인정하고 존중을 유지하면서 친절하게 대답해줬다. 이 만남은 그가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E가 미국대사관에서 만났던 미국 여성은 그녀의 질문에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줬기 때문에 그녀는 그때부터 타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여자의 밝은 얼굴, 미소, 친절한 말투,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및 공감 등이 연구참여자 E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그녀도 그 사람에게 이런 태도 및 행동으로 대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내가 친절하게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뭘 물어볼 때나 나한테 요청할 때 나도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도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구참여자 E, 2018.01.31.)

연구참여자 E는 미국문화권 여성과의 소통을 통해 느꼈던 개방적인 마인드, 친절한 말투, 상대방에 대한 인정, 존중 및 공감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1.3. 대학생 시절: 한국은 내 가슴에

#### (1) 소통에서 언어예절의 중요성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소통에서 언어예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S 대학교의 국제경영학과 학생인 연구참여자 E는 한국유학 초기에 자국과 다른 한국의 소통 방식으로 인하여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 실수를 하였다.

“지도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을 읽고 교수님이 너무 화나신 거예요. 내가 매주 교수님 수업을 녹음을 했어요. 내가 외국인 유학생이기 때문에 몇 번 들어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이야기하시니까. 수업마다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집에서 핸드폰을 두고 가버린 거예요. 교수님도 본인의 수업을 녹음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이메일 보내드렸어요. “교수님, 좀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교수님 수업을 매주 녹음했는데 이번에 제가 녹음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교수님 녹음하신 파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기말고사까지는 제가 열심히 배우고 시험을 잘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교수님한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파일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만 보내줄 거고 다음에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도교수님께 받았던 첫 이메일이었고 많이 놀랐어요. 나중에 이에 대해서 다른 한국인 친구랑 이야기해봤어요. 그때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했던 거는 부탁하는 입장이 아니라 명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화나셨다는 것을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대화하거나 이메일을 할 때 말을 돌려서 부드럽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했으니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이제 괜찮지만 그때는 처음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연구참여자 E, 2018.01.31.)

연구참여자 E는 한국유학 초기에 한국의 언어예절 문화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지식으로 교수님과의 소통에서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다. “소통에서 언어예절을 갖춘다는 것은 상대방을 적절히 대우하는 것, 즉 언어를 통해 상대방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구현정·전영옥, 2017: 223). 즉, 언어예절이란 언어에서 반영하는 특정한 문화를 의미하며 이는 각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타문화권 상대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예절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요구된다.

‘별은 내 가슴에’에서 봤던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드라마에서 들

었던 한국말을 한국 사회구성원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의지로, 연구 참여자 E는 대학교에서 영어문학을 전공하면서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였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드라마에서 봤던 곳들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사람들이랑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한복도 입어보고, 한식도 먹어보고 싶었죠.” (연구참여자 E, 2018.01.31.)

위와 같은 결심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 E는 대학교의 여러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하였고 1학년 때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여기에서 4개월 정도 공부하였다. 그때는 그녀가 꿈꿨던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고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먹고, 가고 싶었던 곳을 다 가보았다.

“그때는 고향에서 이미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을 들었지만 한국에 오기 전까지,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나도 안 믿었어요. 이거는 진짜인가? 꿈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와서 하늘에 날아가는 것 같았고,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얼굴이 예쁘고... 처음에는 진짜 연예인 같았어요.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고 기숙사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들과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때는 아주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E, 2018.01.31.)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녀는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도 한국에서 하려고 결심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었다. 그녀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면서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여러 경험을 쌓기도 하였다.

“유학생생활 경험은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첫 번째는 외국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더 힘을 준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첫 번째 꿈도 이루어졌고 문이 열렸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면 계속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구참여자 E, 2018.01.31.)

연구참여자 E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감도 높아지고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생겼다.

#### 1.4. 유학 후 계획: 국제적인 인재로서 성공

연구참여자 E는 자기 계발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사를 졸업하고 그녀는 박사 학위에 지원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족의 며느리, 아내, 어머니가 되어 여자로서의 행복을 꿈꾼다. 또한 자신의 전공 분야로 전문가, 즉 국제적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어 성공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다.

“일단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웃음). 모든 분야에서. 첫 번째, 여자로서의 성공이 가족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공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고 좋은 일자리를 잡고 좋은 데에서 일하고 좋은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연구참여자 E, 2018.01.31.)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 E는 석사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모든 사람들과 솔직하고 친절하게 이야기 하며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그녀는 타문화권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소통하며 새로운 것을 알아내고 세계관을 넓히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 2. 사회와 기관 영역

### 2.1. 가정: 소통에서 온 기쁨

연구참여자 E의 가족은 모두 다섯 명이며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연구참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는 큰딸이기 때문에 동생들이 힘들어 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동생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해야 한다. 연구참여자 E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어머니이며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좋을 때는 옆에 사람들이 많지만 어려울 때는 진짜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식구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가족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가족도 행복해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E, 2018.01.31.)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E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녀는 가족과 자기를 분리하지 않고 가족의 행복을 자기의 행복, 거꾸로 자기의 행복을 가족의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 연구참여자 E의 가족 관계는 상호작용은 상호존중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2. 학교: 소통으로 문제 해결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사범대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연구참여자 E는 서울에 있는 S대학교의 국제경영학과 전공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다. 그녀는 굉장히 활발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잘 소통하는 편이다. 그녀는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은 밝은 얼굴과 미소로 바라본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소통을 시작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이러한 성격을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제 성격이 너무 급하고... (웃음) 두 번째는 활발하다고 해요. 최대한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성격이에요.” (연구참여자 E, 2018.01.31.)

연구참여자 E는 인간 간의 네트워킹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없으면 혼자서 외롭기도 하고 삶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무슨 일이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 간의 잘 설치한 네트워킹은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연구참여자 E는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 아울러 자기 계발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석사를 졸업하고 그녀는 박사 과정에 지원하려고 한다.

### 2.3. 사회: 소통으로 알게 된 속어

연구참여자 E는 한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한국문화권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해 여러 나이 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하는 태도 및 행동,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까지 배우고 있다. 특히, 그녀는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많이 쓰는 어휘나 표현 방식, 그리고 속어까지 알게 되었다.

“소통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알게 됐고 생각을 알게 됐고 행동을 많이 알게 됐고 성격을 알게 됐고 문화, 언어도 많이 알게 됐어요. 밖에서 쓰는 언어랑 여기 학교 안에서 쓰이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10대 사람들이 ‘깜놀’이라고 하잖아요. (웃음). 처음에는 몰랐어요. ‘깜놀’이란 ‘깜짝 놀랐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웃음).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단어도 많이 배웠죠.” (연구참여자 E, 2018.01.31.)

연구참여자 E는 한국문화권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소통을 통해 한국문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사회 속에서 흔히 쓰이는 속어를 배우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해진 속어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속어(俗語) [명] ①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 =비속어. ②=상말02①  
 (2) 비속어(卑俗語) [명] =속어(俗語)①.  
 (3) 비어(卑語/鄙語) [명] ①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 =비언02(鄙言). ㉞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비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대상을 낮추거나 낮잡는 뜻으로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2018; 이선영, 2016).

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속어는 언어의 순수함을 떨어지게 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따라서 일상 언어생활에서 사용하기 힘든 표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문 기사 및 비속어와 관련된 논문에서도 사용을 자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적지 않다(이선영, 2016). 그러나 실제로 어떤 사회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속어의 사용 비율은 높다. 사회언어학 관점에서 보면 속어는 어떤 특정한 시대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E가 한국인 친구들을 통해 배웠던, 최근 한국 사회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속어는 그녀가 현재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 6. 연구참여자 F: 적극적인 소통에서 온 기쁨

한 민족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먼저 그 민족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믿는 연구참여자 F는 국어문학과 전공으로 한국에서 유학하였다. 그녀는 현재 인천에 있는 I대학교의 석사 2차 학생이다. 연구참여자 F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연구참여자 F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징

시간적 연속성				사회와 기관 영역		
어린 시절	중·고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계획	가정	학교	사회
어릴 때부터 한 ‘한국어’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	소통을 통한 문화 습득	훌륭한 인재가 되기	상호 신뢰성에 기초한 우리가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배움	명량하고 적극적인 ‘나’



## 1. 시간적 연속성

### 1.1. 어린 시절: 어릴 때부터 한 ‘한국어’

연구참여자 F는 제2 언어로 중국어 및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학교에 다녔다. 그래서 그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국어는 다른 과목들처럼 한 과목일 뿐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중학교 7학년 때 한국어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를 단순히 학교의 한 과목이 아니라 한 나라의 언어로서 보게 되었고 이 언어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

“루바 (\*박 루보브)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고 그 후부터 한국어를 재미있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루바 선생님은 한국어에 대한 내 능력을 알고 한국어 수업 후에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따로 가르쳐주셨거든요. 그래서 7학년까지는 한국어를 한 나라의 언어로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의 한 과목으로 봤지만 7학년 이후에는 한국어를 언어로 보게 되었고 이 언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연구참여자 F, 2018.02.01.)

연구참여자 F는 어린 나이부터 한국어를 배워왔지만 7학년 때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중학교 8학년이 되었을 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그녀는 한국어를 더 자세하게 배우기 위해 한국교육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 F는 다른 언어로 책을 읽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한국어로 된 동화, 만화책 등을 읽으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그녀는 어렸을 때 배웠던 한국어로 된 시나 동화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 1.2. 중·고등 시절: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

연구참여자 F는 타문화권 사람을 한국교육원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그녀는 중학교 9학년 학생이자 한국교육원에서 1급 학생이었다. 연구참여자 F는

입문반을 가장 높은 점수로 졸업하였다. 한국교육원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한국교육원 원장님이 수료증을 직접 수여한다. 연구참여자 F는 한국교육원 원장님께 수료증을 직접 받게 된 것이다.

“한국교육원의 원칙에 따르면 각 반을 높은 점수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원장님이 직접 주셨거든요. 그때 입문 반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 내 점수가 가장 높아서 수료증을 한국교육원 원장님께 직접 받았거든요. 한국교육원 원장님이 매우 착하셨는데, 우리에게 수료증을 주실 때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것처럼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해요” (연구참여자 F, 2018.02.01.)

연구참여자 F는 한국교육원 원장님께 수료증을 받으면서 원장님의 눈에서 ‘수고했다’라는 말을 읽었다. 이 말은 그녀에게 큰 격려가 되어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언어만 다르지 한국 사람들도 우즈베크 사람들처럼 정이 많은 것을 깨달았고 마음속으로는 한국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F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어를 더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타슈켄트 국립 동방고등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의학교등학교에 지원하였다.

“원래 내가 동방고등학교 한국어학과에 지원하려고 했을 때 아빠는 동방고등학교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처럼 한국교육원에 다니면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의학교등학교에 들어가면 거기서 평생 필요한 지식을 받을 수 있고 어디에 있든지 자기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학교등학교에 지원해서 거기에 다녔어요.” (연구참여자 F, 2018.02.01.)

연구참여자 F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의학교등학교에 지원하였다. 의학교등학교를 선택해서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때 얻었던 지식은 지금까지도 유용하다. 의학교등학교에 들어간 후에 물론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지만, 나중에 많은 것을 배우면서 좋아하게 되었다.

의학교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의학이 좋아진 연구참여자 F는 한국에서 의학 전공으로 공부하려고 하였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의학 전공으로 학부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듣고 의학은 여기에서 마치고 한국에서 다른 전공으로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 1.3. 대학생 시절: 소통을 통한 문화 습득

연구참여자 F는 중학교 8학년부터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계속 공부해 왔으며 거기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서 유학한다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리고 한국에 유학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교육원에서 많이 들으면서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당시 그녀는 중학교 9학년 학생이었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겠다고 결심한 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F는 의학교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한국교육원에 다니면서 한국어 공부를 지속하였다. 그녀는 한국에서 의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듣고 한국에서 국어문학과를 전공하기로 하였다. 초·중학교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교육원에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연구참여자 F는 한국 문화권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족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민족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국어문학과 전공으로 한국에 유학을 오기로 했어요.” (연구참여자 F, 2018.02.01.)

연구참여자 F는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한국,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 언어는 그 민족에 대한 거울이기 때문에 한 민족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먼저 그 민족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믿는 연구참여자 F는 국어문학과 전공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연구참여자 F는 개방적이고 매우 적극적이며 먼저 다가가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그녀는 수업 중에 질문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 하는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그녀는 나이나 사회적인 지위

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F는 한국유학 초기에는 대부분 한국어 학습자들이 하는 실수인 높임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에 유학을 온 지 얼마 안 된 무렵에 우리 대학교 총장님과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에서 온 사람들 간의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에서 통역원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양쪽 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나이도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한국어로 통역할 때는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한 거예요. 한국인 친구들이랑 반말로 많이 이야기해서 존댓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가끔씩 반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때 옆에 있던 국제팀 직원들에게 이 실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때 좀 창피했지만 언어를 배울 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F, 2018.02.01.)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F는 한국 유학생 생활 첫 단계에서 높임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 높임법이란 화자, 청자, 주체 등의 사회적 지위와 연령, 친분 관계나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높임 및 낮춤의 정도를 구별하고 표현하는 방식, 또는 체계를 말한다. 박덕유 외(2013)는 높임표현은 주체높임법, 상대높임법 그리고 객체높임법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F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지식으로 인하여 한국유학 초기에 이러한 실수를 했으나 지금은 한국문화권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특히 높임표현을 주의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 1.4. 유학 후 계획: 훌륭한 인재가 되기

연구참여자 F는 가족 중 작은 딸이라서 하는 역할이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하는 역할도, 그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내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심히

히 공부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좋은 인재가 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F, 2018.02.01.)

연구참여자 F는 가족이 원하는 본인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모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이 그녀의 큰 꿈이다. 따라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 F는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녀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을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자기 인생의 주요 목표로 보고 있다.

## 2. 사회와 기관 영역

### 2.1. 가정: 상호 신뢰성에 기초한 우리가족

연구참여자 F의 가족은 모두 6명, 즉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그녀와 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F 가족의 가치관은 가족 식구들 간의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다. 가족들이 서로 멀리 있어도 서로 간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먼 공간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깝게 대한다.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식구들 간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서로 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족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식구들 간의 사랑 없이는 가족이 존재할 수 없다고 봐요.” (연구참여자 F, 2018.02.01.)

연구참여자 F의 가족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서로 간의 믿음이 생기기 위해 서로를 인정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해야 믿음이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시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F의 가족 간의 믿음은

상호인정,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2.2. 학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배움

4년 동안 공부하고 국어문학과 학사 학위를 마친 연구참여자 F는 석사를 자기 전공과 아예 다른 분야로 지원하였다. 한국에서 유학생생활하면서 그녀는 자기 전공과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학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나이와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늘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것을 배울수록 아예 배우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구참여자 F, 2018.02.01.)

연구참여자 F는 유학생생활 경험을 통해서 인생 및 인간 자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녀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늘 학생이고 생활하면서 만난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간다. 아울러 그녀는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간다.

## 2.3. 사회: 명랑하고 적극적인 ‘나’

연구참여자 F는 명랑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과 쉽게 친구가 되고 잘 어울리는 편이다. 게다가 그녀는 성격이 급한 편이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한다.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F, 2018.02.01.)

연구참여자 F는 인생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기에는 매우 짧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녀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간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이러한 성격을 용감하다고 평가한다.

“나와 상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는 용감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웃음). 그리고 그들에게 어렵게 보이는 것을 내가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연구참여자 F, 2018.02.01.)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면서 산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F의 경우에는 사람과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다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 7. 연구참여자 G: 소통을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연구참여자 G는 인천에 있는 I대학교의 3학년 학생이다. 그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연구참여자 G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징

시간적 연속성				사회와 기관 영역		
어린 시절	중·고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계획	가정	학교	사회
소통을 위한 시도	인생에서 제 자리를 찾기	한국어로 소통 도전	나의 인생길을 위한 투자	상호이해의 중요성	숫자 중심 경영학과	신중하게 사람 사귀기

## 1. 시간적 연속성

### 1.1. 어린 시절: 소통을 위한 시도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던 연구참여자 G는 초등학교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스포츠를 접하였다. 그는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거의 모든 스포츠 종류를 해봤으며 그중에서 제일 오래 한 스포츠는 로잉이었다. 스포츠는 그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주는 수단이다.

연구참여자 G는 경기로 인해 폴란드에 2~3번, 독일에 3번 정도, 한 번은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러시아어나 우즈베크어로 대화가 안 되는 타문화권 사람을 2005년에 폴란드에서 만났다. 그는 그때 국가대표 팀에서 로잉하고 있었다. 그는 경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폴란드에 갔다. 연구참여자 G는 그때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다. 폴란드 공항에 도착한 후에 그의 팀을 마중하러 나온 사람은 폴란드 사람이었고 그는 모국어가 러시아어도 아니고 우즈베크어도 아닌 다른 언어로 된 대화를 처음으로 들어보게 되었다.

“폴란드에 도착해서 우리 팀을 마중 나온 사람은 폴란드 사람이었고 내가 모르는 외국어로 말하는 첫 사람이었어요.” (연구참여자 G, 2018.02.02.)

연구참여자 G는 그 당시 매우 어려서 그들을 마중 온 사람에게도, 다른 폴란드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사람보다는 폴란드에 있는 건물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1년쯤 지나서 경기를 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G는 폴란드를 두 번째로 방문하였다. 그때도 그들을 마중하러 나온 폴란드 사람과 특별히 대화하지 않았다. 그의 코치만 그 사람과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서 그들끼리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폴란드 사람은 남자였고 그에게는 아내, 아들 그리고 할머니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G는 팀 구성원들과 함께 그 사람의 집에 머무르며 거기에서 2주 정도 살았다. 그때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영어도 잘 몰랐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G는 그 폴란드 가족 식구들과 대화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 그는 13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다.

“그때는 서로 간의 유사한 점을 아예 느끼지 않았어요. 거기는 아예 다른 세상으로 보였어요.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다른 가정을 방문해 봐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른 가족에서의 형제들끼리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행동은 나에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연구참여자 G, 2018.02.02.)

연구참여자 G는 10일 동안 폴란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폴란드어나 영어를 잘 못해서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 없었지만 어린 마음으로 식구들 간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비언어적인 소통을 하였다. 그는 폴란드 식구들 간의 사랑, 상호존중 및 상호이해를 보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그를 버리고 다른 가족에 가버린 때의 아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등이 기억이 나고 그 가족 식구들을 부러워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폴란드 가족과 함께 10일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폴란드 방문은 연구참여자 G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밖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고 우즈베키스탄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G는 폴란드 방문 후에 8학년 무렵에 로잉 경기로 인하여 독일을 방문하였다. 그때는 주로 팀 구성원들과 이야기했고 언어적 한계점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나 다른 국적인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였다.

“독일은 매우 옳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책에 쓰여 있는 원칙 및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G, 2018.02.02.)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G는 경기로 인하여 독일을 방문하고 그 당시 만났던 독일문화권 사람들과 언어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비언어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는 만났던 사람들을 보고 관찰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켜 가는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G는 그동안 폴란드, 독일을 2~3번 정도 방문했지만 영어를 배우거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해보는 데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을 방문했을 때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중국에는 팀 구성원들 중에서 한 선배와 함께 우리 둘만 갔었어요. 그는 영어를 잘 하니까 공항에서도 다른 모든 곳에서도 영어로 많이 대화했어요. 그 선배가 혼자서 외국에 가서 영어를 통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영어를 더 열심히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이는 영어를 배우게 된 큰 계기가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G, 2018.02.02.)

연구참여자 G는 그동안 10명의 팀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폴란드 및 독일을 방문했지만 중국에 갔을 때에는 같은 팀 선배와 둘뿐이었다. 선배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주변 사람들과 영어로 소통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그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언어적 한계 때문에 자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선배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소통에서 오는 즐거움을 보여 매우 부러웠고 영어를 열심히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연구참여자 G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잘 못하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영어로 소통에 도전하였다.

“중국에 갔을 때에는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과 영어로 소통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영어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때 나만 빼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것은 영어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영어로 대화하도록 노력했어요.” (연구참여자 G, 2018.02.02.)

위에서 본 것처럼 연구참여자 G는 중국에 방문했을 때 영어로 소통에 도전하였다. 경기로 인하여 중국에 온 로잉 선수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는 옆에 앉아 있었던 그리스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었지만, 그가 자기처럼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연구참여자 G의 질문에 그도 친절하게 대답해주면서 서로 간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다가 몇 명 사람들과 모여서 다녔지만 그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고 혼자 다녔기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관심이 생겨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식사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연구참여자 G, 2018.02.02.)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G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타문화권 사람과 영어로 소통해 보았다. 그가 그 당시 만났던 그리스 사람과 한 대화는 영어를 배우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돌아온 후에 영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영어 학원에 다니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G는 로잉 경기 참여로 폴란드, 독일, 중국 등 다양한 나라들을 방문하였다. 그는 그때 타문화권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호존중 및 상호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1.2. 중·고등 시절: 인생에서 제 자리를 찾기

연구참여자 G는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인기가 많은 전문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이 러시아어로 이루어지는 러시아반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학기가 시작하고 고등학교에 간 첫날 러시아반이지만 교육이 우즈베크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가족은 가족끼리도 모두 러시아어로 대화하고 중학교까지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아 왔다. 그는 우즈베크어로 된 한 과목만 듣고 한 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인기가 많은 이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지만 교육이 러시아어로 이루어지고 친구들이 많은 섬유고등학교의 회계과 전공으로 지원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로 떠났다. 모스크바에서 사는 친구에게 거기에서 같이 일하자는 초대를 받고 그는 모스크바로 떠났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친구와 같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그들은 갈 데가 없었지만 나갈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연구 참여자 G의 친구의 아버지와 누나가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어서 그녀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녀는 모스크바 아래의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타지크 가정의 사는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술집(\*bar)에는 일자리가 있었지만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연구참여자 G가 거기에서 일하기는 불편했기 때문에 거기에 취직하지 않았다. 그 당시 그가 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 타지크 가정의 식구들이 근무하는 가구 공장에 일자리가 생겼고 결국 그는 거기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공장 규칙에 따르면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신입 직원이었다는 그는 아직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월급이 아주 적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그는 타지크 가족 대신 새로 들어온 남자 룸메이트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들이 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것을 하기도 하니까 이웃들의 불만으로 결국 그들도 그 집에서도 나갈 수밖에 없었다.

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연구참여자 G에게 예전에 같이 살았던 타지크 가족이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여름에 사는 집에서 살 수 있게끔 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거기로 이사하고 매일 거기에서 직장까지 걸어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 당시 직장에서 소파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그는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해서 매우 피곤한데다가 돈도 부족하였다. 그는 그때 매우 힘들게 생활하였다.

“밥을 만들 수 있는 힘마저 없을 정도로 피곤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온 후에 잠만 잤어요. 이러한 상황은 한 달 동안 계속 되었고 그 이후에는 참을 수 없어서 삼촌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살았거든요. 삼촌들에게 전화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연구참여자 G, 2018.02.02.)

연구참여자 G는 집과 일자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삼촌들에게 일자리를 찾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삼촌

들은 모스크바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다. 삼촌들은 그들이 사는 집에 연구참여자 G을 불렀고 그는 그들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거기는 잘 지어진 집이었고 따뜻하고 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찾아서 거기에서 일했어요.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러시아에서 살았죠.” (연구참여자 G, 2018.02.02.)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G는 1년 동안 모스크바에서 일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다시 돌아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시 러시아에 돌아가서 6개월 정도 일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로 러시아에 갔을 때 거기에서 사는 제일 친한 친구가 한국에 있었다. 그 친구와 연락할 때마다 그는 연구참여자 G에게 한국에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행 비행기 표는 매우 비쌌고 그때 그렇게 큰 돈은 연구참여자 G에게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 대학에 지원하고 거기에서 공부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막 지원하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겨서 지원하지 못했고 예전처럼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친구가 자주 말하던 한국행을 시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새해 무렵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갈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도전에서 그는 그의 생일날에 거절을 당하였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는 매우 실망하였으나 한 달 이후에 다시 도전해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전했을 때 한국에 갈 수 있었다.

“비자를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몰랐어요. 그때 당연히 기뻐지만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없는 성격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고 여기에서 친구가 마주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하기를 시작했었죠.” (연구참여자 G, 2018.02.02.)

이처럼 연구참여자 G는 고등학교 때 해외에 나가서 여러 주택, 일자리 및

인간관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에서의 자기 길을 찾기 위해 한 노력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어린 시절에 그에게 인생의 깊은 것까지 보게 하였다. 보통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인생 및 인간의 앞모습만 본다. 그러나 러시아에서의 해외 경험은 그에게 인생 및 인간의 실제 모습, 즉 뒤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였다.

### 1.3. 대학생 시절: 한국어로 소통 도전

한국으로 이사한 친구에게 한국에 대해서 좋은 것을 많이 들었던 연구참여자 G는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심하였다. 한국어를 한국어능력시험 1급 정도를 배우고 한국에 들어온 그는 친구와 같이 어학당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어학당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한국어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같은 목적, 즉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한국어로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랑 많이 만났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우즈벡 문화라든가 사회라든가 등등” (연구참여자 G, 2018.02.02.)

연구참여자 G는 한국유학 초기에 어학당에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그들의 문화 및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사회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학당에서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인천에 있는 I대학교에 경영학과 전공으로 입학하였다.

### 1.4. 유학 후 계획: 나의 인생길을 위한 투자

연구참여자 G는 자기에게 맞고 정말 원하는 것을 아직 못 찾았지만 자기 계발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지속해서 발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앞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그 분야에서 발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연구참여자 G는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달리 경제적인 여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로 떠나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부족함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봐서 그런지 그는 돈만 있으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돈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돈만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G, 2018.02.02.)

그의 말에 따르면, 돈이 있으면 건강하고 옆에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경영학과를 선택하였고 수학이나 회계학과 관련 수업이 많아도 계속 참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로 보아, 연구참여자 G의 러시아에서의 근로자 경험은 경영학과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데 큰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사회와 시관 영역

### 2.1. 가정: 상호이해의 중요성

연구참여자 G는 우즈벡 가족에서 태어났지만 식구들 간의 대화는 러시아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모국어는 러시아어이고 우즈벡어, 영어 및 한국어를 제2 언어로 하고 있다. 가족은 어머니와 연구참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그를 버리고 다른 가족에게 가버렸다. 이는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G는 가족에서 외아들로서 가족을 이끌어가고 인생에서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엄마와 외할머니, 이모와 같은 가족식구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게끔 목적을 이룸으로써 제 자신을 보여줘야 해요. 앞으로 그들이 잘 살기 위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가족에게 해야 할 역할이에요.” (연구참여자

G, 2018.02.02.)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G는 가족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되어야 가족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계발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G에 따르면 가족 식구들 간의 상호이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가족 식구들이 입장을 바꿔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게끔 노력해야 가족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2.2. 학교: 숫자 중심 경영학과

경영학과에 지원한 연구참여자 G는 1학기 초에 몇 개 과목들을 들어본 후에 이 전공은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학과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특히 무역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었지만 학교에서의 대부분 수업은 수학이나 회계학과 관련된 과목들이었다.

“원래 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잘 배우기 위해 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학과에서 비즈니스 수업보다 수학과 및 회계학과 관련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좀 다른 수업을 배우고 싶었는데... 내가 숫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잘 벌 수 있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수 있는지 등 인생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G, 2018.02.02.)

연구참여자 G는 경영학을 깊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경영학과를 선택하였지만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의 대부분은 숫자와 관련된 수학이나 회계학 등의 과목들이었다. 그래서 좀 실망했지만 그래도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오면서 이제는 3학년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G는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더욱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계발을 더 열심히 하고 자기 발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 2.3. 사회: 신중하게 사람 사귀기

어렸을 때 급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던 연구참여자 G는 자라가면서 자기조절력이 생기고 인내심이 강해졌다.

“참고 참다가 안 되면 그때 화를 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있고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G, 2018.02.02.)

또한 연구참여자 G는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잘 숨기는 편이다. 그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넬 수 없는 성격을 고치고 싶지만 이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아요. 사람들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을 몇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워요.” (연구참여자 G, 2018.02.02.)

연구참여자 G는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숨기고 친구를 사귄 때 조심스러워한다.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연구참여자 G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숨기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봐요. 그러나 이는 맞지 않아요. (웃음). 아마 그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웃음). 잘 몰라요. 아마 어떨 때 저는 제 자신을 매우 좋아해요.” (연구참여자 G, 2018.02.02.)

연구참여자 G는 주변 사람들의 그에 대한 평가를 듣고 어느 정도 자기 반성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세계관으로 평가하는 것에 그다지 신경쓰

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연구참여자 G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해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를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면 말로 치료해준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G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도와주는 편이라고 표현한다.

## 8. 연구참여자 H: 웃음에 기초한 소통에서 온 즐거움

연구참여자 H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에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현재 인천에 있는 I대학교 경영학과의 3학년 학생이다. 그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연구참여자 H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특징

시간적 연속성				사회와 기관 영역		
어린 시절	중·고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계획	가정	학교	사회
소통의 기쁨	소통으로 마음 치료	‘징기스칸’의 후손들과 첫 소통	자아 찾기	가족에서 얻은 사랑	소통으로 얻은 인기	미움 받을 용기

### 1. 시간적 연속성

#### 1.1. 어린 시절: 소통의 기쁨

우즈베키스탄에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만 7살이지만 아이의 능력에 따라 조금 일찍, 즉 6살 때도 갈 수 있다. 연구참여자 H는 이러한 학생 중의 하나이다. 대학생들 사이에 나이가 한 살이나 두 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 차이의 영향력은 꽤 큰 편이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6살 때 한 것과 7살 때 한 것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은 물론이고 대인관계, 즉 소통 능력도 다를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 H는 다른 동료친구들에 비해서 좀 일찍 초등학교에 갔지만, 뛰어난 적응능력을 소유한 데다가 소통을 좋아하고 즐거워한 덕분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성공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H는 매우 사교적인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는 내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연구참여자 H, 2018.02.02.)

연구참여자 H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는 잘생긴 외모에다가 뛰어난 사교성과 유머 감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초등학생 때 농담을 많이 해서 동급생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 그는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오락부장’ 역할을 하였다.

“학교에서 농담을 많이 함으로 상황을 재미있게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분위기 메이커(Атмосферный человек)’ 역할을 하죠.” (연구참여자 H, 2018.02.02.)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구참여자 H는 학교에서 단순히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해주는 역할도 해왔다. 따라서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 많았다.

## 1.2. 중·고등 시절: 소통으로 마음 치료

연구참여자 H는 초·중·고등학교를 다양한 곳에서 다녔다. 초등학교를 우즈베키스탄의 지역 중의 하나인 나만간에서 다녔고 중학교를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녔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슈켄트에 가서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중요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연구참여자 H는 타슈켄트 국립 기상학 고등학교에 지원하였다. 그가 이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기상학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그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나만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거기에서 1년 동안 공부했다가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와서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타슈켄트에 가서 거기에서 수문기상 고등학교(Hydrometeorological College)를 졸업했죠. 고등학교 전공으로서는 내가 ‘기상학자예요’ (웃음).” (연구참여자 H, 2018.02.02.)

고등학교에서 동료친구들이 자기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팀을 만들었는데 연구참여자 H는 자기의 뛰어난 사교성이나 소통능력 덕분에 모든 팀 구성원들과 잘 어울렸다.

“우리 반에 여학생들끼리 공부 잘하는 팀, 화장을 잘 하고 예쁘게 다니는 팀, 성격이 남자들과 잘 어울리는 팀 그리고 남학생들끼리 공부 잘하는 팀과 공부 못하는 팀이 있으면 나는 모든 팀 학생들과 친구였고 잘 어울렸어요. 그러나 한 명과 늘 싸웠어요. 그는 별자리가 사자 자리였는데 사자 자리인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는 한 팀의 학생들이랑 친구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다른 팀과 잘 어울리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모든 팀 학생들과 잘 소통할 수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현명한 이야기를 하고 화장을 좋아하는 팀과 다른 것에 대해서 소통하고... 나의 첫 사랑은 화장을 좋아하는 팀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를 피우는 팀과도 잘 어울렸어요. 그러나 그는 나처럼 모든 팀과 어울리지 못하고 나를 늘 질투했었어요.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타슈켄트 출신에다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그보다 제가 인기가 훨씬 많았어요. 그

리고 어느 날 그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 친구들이 나를 ‘사랑의 의사’라고 부르고 있었고 어떤 학생이 여자 친구와 사이가 안 좋으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그 당시 나를 미워했던 그는 사랑에 빠져서 울고 밥을 잘 못 먹고...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랑 이야기해 달라고 자기는 죽을 것 같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그날 아침까지 통화했었어요. 이후에 그는 매일 전화하거나 우리 집을 찾아와서 여자 친구랑 싸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곧 그녀의 생일인데 선물로 무엇을 주면 되냐고 하면서... 그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와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그를 도와줘서 좋았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와 통화했는데 모두 나를 보고 싶었다고 멀리서 나와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H, 2018.03.18.)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H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료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 그 이유를 그의 소통 역량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상대방의 관심이나 수준을 고려하여 이에 맞춰서 소통을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소통하기에 앞서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이럴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등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는 그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현명한 이야기를 하고 화장을 좋아하는 팀과 다른 것에 대해서 소통한다.” 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둘째, 연구참여자 H는 자기와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고 접근하는 편이다. 예를 들면, “나도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를 피우는 팀과도 잘 어울렸어요.”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셋째,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사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는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들과도 잘 소통할 수 있어서 대부분 남학생들이 여자친구와 사귄 때 그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잘 도와주는 편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은 그의 “그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와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그를 도와줘서 기뻐요.” 라는 말에서 잘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H는 고등학교에 간 첫 날부터 지금은 친한 친구가 된, 동급생들과 사귀면서 서로에게 배운 점이 많다고 언급한다.

“첫 번째로 검소함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는 매우 검소해요. 그리고 지혜로움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는 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편이었어요. 그는 한 번만 실수하면 그 실수를 절대 두 번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보니까 눈 밑에 멍이 생겼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는 중학교까지 공부했던 학교에 가서 거기 있는 9학년 후배들을 보고 우즈베크어로 반말로 ‘Salom(살림)’ 이라고 했대요. 서로를 모르는 사이에서 갑자기 반말을 했으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Assalomu alaykum(아싸러무 알라이쿰)’ 해야 한다면서 서로 싸웠다고 설명했었어요. 저는 그 당시 그 9학년 학생들이 너를 때렸으니까 같이 가서 그들이랑 싸우지 그랬냐고 했지만, 그는 실수를 그들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수에 따라 벌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의 실수를 해석하고 자기가 한 실수를 이해했었어요. 그 당시 그는 15살밖에 안 된 어린이었지만 복수 대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 거예요. 저는 이 점을 배우기로 결심했었어요.” (연구참여자 H, 2018.03.18.)

우즈베크 속담 중에서 “친구가 누구인지를 말하면 네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다.” 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다. 이는 어떠한 친구와 사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나’ 를 가리킨다. 연구참여자 H는 친한 친구와 사귀면서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한 평가력이나 판단력이 더 확장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H의 친구 역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로 교제하는 것. 나는 그에게 여자들과 사귀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는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여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그가 사귄 여자들과 그 친구의 이름으로 통화한 적도 있고요. 그는 여자들과 소통하는 법을 몰랐거든요.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줬죠. 뿐만 아니라 그의 옷 입는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까지 내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안경을 벗었고 티셔츠를 입기 시작했어요. 많이 변했죠. 이외에 지하철에서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녀에게 가서 말을 걸지 못했던 그 친구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심지어 그때 이런 식으로 만났던 여자랑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H, 2018.03.18.)

소통은 언어적으로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도 이루어지지 마련이다. ‘비언어적(非言語的)’ 이란 ‘언어가 아닌’ 의사소통 방식을 가리키며

Samovar와 Porter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에게 인간과 환경에 의해 전달되는 언어를 제외한 자극이라고 정의하였다 (갈라노바 딜노자·강미영, 2017: 9). 이러한 비언어적인 소통은 언어적 소통의 시작점이나 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H는 그의 친구의 외모나 옷차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를 더 좋은 쪽으로 바꿔주려고 하였다. 이후 그는 친구의 부끄러운 점을 고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연구참여자 H는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가르치고 배운 것이다.

연구참여자 H는 상대방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는 상대방과 소통할 때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소통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연령 등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소통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스타일을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연구참여자 H, 2018.02.02.)

연구참여자 H는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이 되어 소통하는 것보다 자기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면서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야 이러한 관계가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1.3. 대학생 시절: ‘징기스칸’의 후손들과 첫 소통

연구참여자 H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모든 가족들은 2003년에 한국에 이사하였으며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에 어머니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다.

연구참여자 H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하나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2013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밖에 잘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그때 그의 어머니가 남동생을 낳았고 그는 8개월 동안 집에서 남동생을 돌보았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가 한국 대학교에서 유학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친구와 같이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어학당에 같이 등록하였다.

“친구(연구참여자 G)는 제가 한국에 오기 두 달 전에 한국에 갈 거라고 나에게 문자 보냈어요. 우리는 5살 때부터 서로를 알고 있는 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여기로 온 후에 인천에 있는 어학당에 같이 가서 한국어를 배우자고 해서 이렇게 어학당에 다니고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갔죠. 그래서 한국에 온 지 8개월이 지난 후에 친구와 같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연구참여자 H, 2018.02.02.)

연구참여자 H는 한국에 들어온 지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친한 친구와 같이 어학당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 H는 한국에 와서 어학당에서 공부했을 때 여러 문화권 사람들, 즉, 몽골, 베트남, 중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특히 몽골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

“아마 여기 어학당에서 공부했을 때 타문화권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몽골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중국, 베트남 사람들이 있는지 알았지만 몽골 사람들은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났죠. 살아 있는 ‘징기스칸’ 들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연구참여자 H, 2018.02.02.)

연구참여자 H는 한국에 와서 어학당에서 공부하면서 몽골 사람들을 처음으로 거기에서 만났다. 몽골 사람들이 쓰는 글자는 러시아 글자와 동일하게 키릴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H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도 그 반에서 하나밖에 없는 러시아 쪽 남자인 연구참여자 H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몽골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러시아 쪽이니까 그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왔어요. 우리는 같이 다니면서 몽골이라는 나라와 몽골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대부분 30대인 몽골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나보다 더 잘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우즈베크어와 영어 등을 외국어로 배운다면<sup>18)</sup> 그들이 외국어로 러시아어와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연구참여자 H, 2018.02.02.)



연구참여자 H는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거기에서 같이 공부하는 50명 정도인 몽골 사람 중에 10명과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 간의 소통은 한국어로 이루어졌다. 그는 몽골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몽골 민족은 옛날에 존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였다. 연구참여자 H와 몽골 학생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즉 두 나라가 쓰는 키릴 문자와 두 나라에서 배우는 러시아어 등으로 인하여 빨리 친해지고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1년 동안 어학당에 다니면서 몽골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문화 및 몽골이라는 나라, 몽골 문화, 몽골 사람들 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몽골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고 특히 몽골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에 몽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전에는 몽골 사람들이 날 좋아했다면 지금은 그들과 소통한 경험이 있으니까 날 매우 사랑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H, 2018.02.02.)

연구참여자 H는 몽골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몽골 문화권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배웠다. 그러므로 예전에도 높은 사교성을 가진 연구참여자 H는 몽골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사교성이 더 증가하였다.

몽골 사람들과 모든 주제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연구참여자 H는 이러한 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

“몽골 사람들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들과 마음껏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여자 친구는 몽골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가정은 어떻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예 상관없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는데 몽골 사람들이 약속을 아예 안 지키더라고요. 이것 빼고는 다 좋아요.” (연구참여자 H,

---

18) 우즈베키스탄의 초·중·고 교육은 주로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어로 교육이 된 학교에서 우즈베크어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우즈베크어로 교육이 된 학교일 경우에는 러시아어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다.

2018.02.02.)

연구참여자 H에게 몽골 사람들과의 소통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호인정, 상호존중, 상호이해를 지니며 서로 간의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몽골 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자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몽골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있다. 그는 어학당에서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운 후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취득하고 인천에 있는 I대학교에 입학하였다. 대학생 시절 때 그의 다양한 문화권 친구들이 많았지만 몽골문화권 중 한 사람이 그에게 특별히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연구참여자 H는 한국사회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친구는 몽골 친구예요. 그는 자기의 한국인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시켰고 노래방도 데려 가고 술 게임도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아는 사장님들과 소개시켰고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술을 많이 먹는 편이라서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죠. 그래도 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늘 나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는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나는 그것을 평생을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할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할머니에게 배웠어요. ‘고마운 마음’ 이 가장 중요해요. 그는 2013년에 나에게 일자리를 찾아줬고 도와줬는데 저는 이것을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잊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그가 나에게 엄청난 나쁜 일을 하더라도 그가 준 도움을 잊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마음속으로 아프지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연구참여자 H, 2018.03.18.)

소통은 성공과 마음의 열쇠이며 이를 통해서 모든 문이 열린다. 연구참여자 H는 소통을 통해서 몽골 친구와 사귀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자리도 잡고 한국의 사회나 문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H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마운 마음’ 을 제시한다. 상대방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이해하고 그대로 인정해주게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마운 마음은 배려심이나 신뢰성을 높이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H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를 언어적이나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 1.4. 유학 후 계획: 자아 찾기

연구참여자 H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아를 찾는 것을 인생의 주요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한 인간으로 발전하고 인생에서 자아를 찾는 것이 이 세상에 그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물론 먼저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 이후에 자아를 찾을 거예요. 나는 자아를 찾고 싶어요. 나의 목적은 자아를 찾는 것이에요.” (연구참여자 H, 2018.03.18.)

아리스토텔레스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했다. 자신을 찾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의 근거이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 최고의 파트너, 부모 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이상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아를 찾는 것’ 이나 ‘자아를 아는 것’ 은 성공적인 소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연구참여자 H는 제일 좋은 자동차를 구입해서 세계여행을 다니는 것을 꿈꾸고 있다. 그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H는 어디에 여행 가더라도, 어디에서 살더라도 자기 정체성을

지킬 것이라고 한다. 해외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그는 자신의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2. 사회와 기관 영역

### 2.1. 가정: 가족에서 얻은 사랑

연구참여자 H의 가족은 모두 6명이고 할머니, 어머니, 이모, 그와 2명 남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우즈베크인과 러시아인의 피가 섞인 혼혈 가족에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 H 가족의 가치관은 모든 가족에게 주어진 자율권이다. 모든 식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및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H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기 가족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건강과 행복이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들의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 2.2. 학교: 소통으로 얻은 인기

현재 연구참여자 H는 인천에 있는 I대학교 경영학과의 3학년 학생이다. 그는 연구참여자 G와 마찬가지로 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H는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경영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싶었지만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수학과 회계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배우고 있다.

“2년 동안 통계학만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학과는 경영학과지만 수학과 통계학과 관련 과목들을 듣고 있어요. 이런 과목들이 경영학과에 왜 그렇게까지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심리학과나 연극학과로 바꾸려고 했지만 벌써 2년 동안 공부해왔으니까 아깝죠.” (연구참여자 H,

2018.02.02.)

연구참여자 H는 경영학과에서 경영학보다는 수학이나 회계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학과를 심리학이나 연극학과로 바꾸려고 했으나 경영학과에서 2년 동안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H는 대학교에서, 특히 여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 그의 농담을 잘 하고 상대방을 웃게 하는 성격 때문에 그는 여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여자들이 ‘오빠’, ‘땀<sup>19)</sup> 오빠’ (여성스러운 목소리로)라고 많이 해요. 내가 농담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웃고. 학생들이 날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농담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웃게 하니까.” (연구참여자 H, 2018.02.02.)

연구참여자 H는 여자들 사이에 ‘땀 오빠’, ‘오빠’ 등으로 불리며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 2.3. 사회: 미움 받을 용기

연구참여자 H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 농담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와 소통하는 사람은 기쁨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요. 10명의 사람들 중에 9명이 날 좋아해요. 나머지 한 명은 정말 날 싫어해요. 그래서 그와 자주 싸워요.” (연구참여자 H, 2018.02.02.)

---

19) 연구참여자 H의 이름을 짧게 말하면 ‘땀’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부를 때 ‘땀’이라고 부른다.

연구참여자 H는 농담을 잘 하고 소통을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그는 매우 개방적이고 뛰어난 사교성을 지녔다. 그래서 그와 소통해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를 좋아하게 된다.

연구참여자 H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예전에 그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잘 이해해요. 예전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했고 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미움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중에 9명은 나를 좋아하고 1명은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나는 그 1명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미움을 가라앉혀요. 그 사람을 욕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요.” (연구참여자 H, 2018.03.25.)

연구참여자 H는 미움을 좋게 받아들으면서 마음이 더 편해졌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다고 한다. 개인마다 다른 사고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 개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그를 모든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연구참여자 H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H는 매우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

## 9. 소결

본 장에서는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그들의 경험을 어린 시절, 중·고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시절 등의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초·중학교에서 한국어 동아리 및 한국교육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으로 상호문화소통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한국 사람을 만나서 소통을 통해 한국, 한국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이 만남과 소통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도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상대방의 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자기의 문화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사회 및 기관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온 가정환경이나 가정의 사고방식, 또는 개인적 성격은 타문화권 상대방을 만나서 상호문화소통을 할 때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상호이해 및 상호존중, 서로에 대한 관심 및 공감, 또는 개방적 마음 등이 가족들 간의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는, 타인을 만날 때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즉,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인정 및 이해로 인하여 존중하게 받아들였다. 거꾸로 자아중심주의 인식이 강한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은 타인의 자기와 다른 점을 ‘틀림’으로 보고 비판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통할 때 있어서 각 개인마다 다른 특정한 성격의 역할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 및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성격은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며 이 눈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소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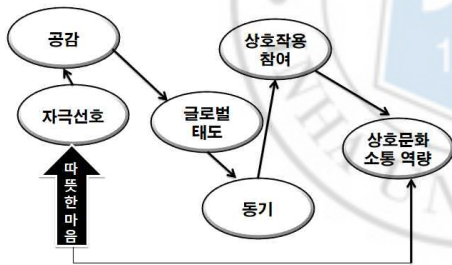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한국 사람들과 한 소통은 한국유학생활, 한국사회 및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한국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 V. 상호문화소통 역량 내용 분석

본 장에서는 Arasaratnam과 Banerjee(2010)의 자극선호와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을 활용하여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분석하였다. 아시아 문화와 이슬람 종교가 우즈베키스탄 문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Arasaratnam과 Banerjee(2010)의 자극선호와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동양 문화와 이슬람 종교를 고려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모델을 분석기준으로 선정하였다. Arasaratnam은 2006년에 개발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에서 측정하지 못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감정적 측면, 즉 ‘자극선호(sensation-seeking)’를 추가하여 2010년에 자기의 동료와 함께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Arasaratnam & Banerjee, 2010). 이에 따르면 자극선호(Sensation seeking)가 연구참여자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그들에게 자극선호란 따뜻한 마음과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에 세분화된 내용은 다음 [그림 11]과 [그림 12]와 같다.



[그림 11]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따뜻한 마음’ 모형을 통한 상호문화소통 역량 함양 과정



[그림 12]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새로운 경험’ 모형을 통한 상호문화소통 역량 함양 과정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 함양 과정은 그들이 타 문화권 사람과의 소통에서 무엇을 찾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따뜻한 마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부모님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아왔고 해외에서 혼자 살아본 경험 없이 한국에 유학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을 우선적으로 찾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

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극선호가 ‘따뜻한 마음’ 일 경우 그들이 공감(정서적)을 통해서 글로벌 태도를 얻고 동기를 가지고 상호문화에 참여하면서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향상하고 있었다.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두 번째 자극선호는 ‘새로운 경험’이며 그들은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찾고 있었다. 자극선호가 ‘새로운 경험’ 일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공감 없이도 글로벌 태도로 접근하여 상호문화 참여를 통해서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세분화 내용은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상호문화소통 역량 내용 분석

구분	내용
자극선호 (Sensation seeking)	따뜻한 마음
	새로운 경험
상호문화소통 공감 (Empathy)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other cultures)	상호 관심
	개방적 마음
	비판적 사고
상호문화소통 동기 (Motivation)	외로움 극복
	세계관 확대
	언어 발달
상호작용 참여 (Interaction involvement)	정보 교환
	감정 교환
상호문화소통 역량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상호 존중
	상호 이해
	상호 배려
	상호 칭찬
	상호 신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6개의 과정을 통해서 함양되었다. 그중에서 첫째 단계는 자극선호이며 이는 그들이 타문화권 사람과의 소통에서 찾거나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6개의 단계 중에서 제일 먼저이고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자극선호가 ‘따뜻한 마음’과 ‘새로운 경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단계는 ‘상호문화소통 공감’이며 이는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 등을 포함한다. 셋째 단계는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이고 이는 ‘상호 관심’, ‘개방적 마음’, ‘비판적 사고’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 단계는 ‘상호문화소통 동기’라고 부르며 이는 ‘외로움 극복’, ‘세계관 확대’, ‘언어 발달’ 등 하위주제를 포함한다. 다섯째 단계는 ‘상호문화소통 참여’이며 이는 ‘정보 교환’, ‘감정 교환’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상호문화소통 역량’이라고 부르며 이 단계는 ‘상호 존중’, ‘상호 이해’, ‘상호 배려’, ‘상호 칭찬’, ‘상호 신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각각의 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자극선호

### 1.1. 따뜻한 마음

The purpose of life is to increase the warm heart.

- Dalai Lama -

하늘에 빛나는 해는 세상의 모든 생물을 생명이나 기쁨, 또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해와 마찬가지로 만나는 각 사람마다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대하면 즐겁고 상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거꾸로 냉랭하고 쌀쌀 맞은 기분으로 서로 마주하면 세상은 마치 황량한 사막과도 같을 것이다(백세영, 2014).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따뜻한 가정환경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얻은 따뜻한 마음을 한국에 유학하러 와서 선배들이나 친구들에게서 찾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유학생생활에서 만난 같은 문화권이나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의 소통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받아온 ‘따뜻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의식적으로보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났다. 인간은 특히 낮은 환경 속에서 혼자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독일인 친구를 사귀면서 우정이라는 개념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생일 때나 명절 때 서로에게 작고 평범한 선물을 진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고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요. 즉, 우리에게 선물의 가격이나 크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소중한 친구에게 받은 어떤 선물인지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연구참여자 B, 2018.03.16.)

“베트남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들에게 배운 점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밥을 만들면 부르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나라마다 자기감정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애교를 좋아하고 손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다른 민족이라도 모든 사람이 인간이니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한테 시간을 내고 서로 고민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뜻이죠.” (연구참여자 C, 2018.03.25.)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제시한다. 이는 문화와 상관없이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참여자 B는 서로에게 자주 연락하고 크든 작든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C는 아무리 바빠도 상대방을 위해 시간을 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며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보는 것에서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찾을 수 있고 언급한다.

연구참여자 H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지 3년째이다. 그는 친구를 통해 한국과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와 소통하면서 다양한 세상, 이러한 다양한 세상에서 사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인생과 인간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통찰하게 되었다.

“한국 친구에게 배운 것이 많아요. 그는 늘 나를 이해해줬어요. 어디에

같이 가면 네가 해외에서 살고 있어서 힘들 거라고 하면서 그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 자기도 아르바이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자기가 냈어요. 그래서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H, 2018.03.25.)

연구참여자 H는 한국 사람을 만나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인하여 서로의 단점을 장점으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점을 다양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그들이 중요시하는 ‘정’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밥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문화... 이를 한국어 어휘 표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맛있는 거 사줄게’ 등이 그래요. 한국문화의 이러한 점을 정말 좋아하고 존중해요. 한국 사람들이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노는 것도 같이 해요. 어디에 가도 같이 가고 같이 놀고...” (연구참여자 C, 2018.03.25.)

연구참여자 C는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한국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노는 것, 즉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같이 밥을 먹는 문화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모든 일을 이렇게 같이 하는 문화는 예전에 책을 통해서 읽었던 ‘정’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밥은 인간 생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소중한 것을 사주거나 같이 먹으면서 감정 공유도 하고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

## 2.2. 새로운 경험

인간은 태어나기 이전,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주어진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자란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게 된다. 상대방이 자기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경우 그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자문화에 대해서 성찰하기도 하고 타문화에 대해서 배우기도 한다. 또한 상호문화소통은 ‘우물 안에 개구리’ 인식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 넓은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세상’, 즉 ‘새로운 경험’을 찾고자 하였다.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 또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궁금해요. 또한 타문화권 사람들의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요. 각 나라에서의 소수민족 정책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같은 관심을 지닌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공유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요. 예를 들면, 타문화권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각자 다양하고 독특한 의견을 내요.” (연구참여자 D, 2018.03.17.)

“인간은 한 가지만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것을 해보고 알아보아야 해요.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의 장점 중의 하나는 이러한 소통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나라나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태어난 나라를 대표하고 ‘나’를 중심으로 나의 나라와 문화, 사람들이 평가받는 거죠. 즉, ‘나’는 내가 태어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연구참여자 E, 2018.03.18.)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양식, 사고방식, 문화 등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터키, 중국, 일본, 프랑스, 몽골, 핀란드,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인 친구와 제일 가까워요.” (연구참여자 F, 2018.03.17.)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같은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 자기와 다른 사고방식 등 ‘새로움’을 찾았다. 이는 Arasaratnam과 Banerjee(2011)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에서의 자극선호가 ‘다양함’ 및 ‘새로움’이다. 그들은 한국 유학생생활에서 만난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며 서로가 지닌 차이점을 존중하는 것을 배웠다. 또한 소통하는 데 자신이 지닌 문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화 관점에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아울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세상을 또 다른 방식으로 바라봄으로써 세상 및 소통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들에게 상호문화소통은 다른 문화권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판단, 즉 세상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연구참여자들에게 상호문화소통은 곧 ‘세상과 소통’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러한 소통을 통해 자아도 찾고 타인도 찾을 수 있었다.

## 2. 상호문화소통 공감

### 2.1. 인지적 공감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특히 ‘새로운 경험’을 찾는 경우 인지적 공감 능력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그들의 자극선호가 ‘다양함’, ‘새로움’이기 때문에 그들은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게 하는 ‘공감’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공감이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또는 경험 등을 인지하면서 소통하는 역량을 의미한다(김영순 외, 2017). 아울러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입장을 바꿔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상

대방에게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면서 보여줘야 한다. 화자가 말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공감을 보여줬을 때 그는 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서로 간의 소통이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

“대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베트남인 룸메이트의 부모님과 매일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베트남어를 안 좋게 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즈벱어도 그 친구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C, 2018.03.25.)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C는 다른 문화권 사람과 소통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봄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다. 타문화권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와의 원만한 소통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Lustig와 Koester(2006)에 따르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문영인, 2017: 22)이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향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내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상대평가로 형성되는 심한 경쟁주의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그의 원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리 반 학생들은 서로에게 경쟁자예요. 예를 들면, 같은 방에서 공부하거나 심지어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있어도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알아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알려주고 싶어도 결과를 생각하면서 아마 알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를 나만 알아야 한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면 좋은 성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지금은 애는 내 친구가 아니라 내 경쟁자이다. 그래서 알려주면 안 된다.’ 라는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심한지를 물론 몰랐죠.” (연구참여자 B, 2018.01.16.)

위에서 본 것처럼 연구참여자 B는 한국에서 경쟁이 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같은 반 학생들이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없으며 친구가 될지라도 수업에서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쟁은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B는 이 치열한 경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는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나도 대학교에서 누군가들을 경쟁자로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갈등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를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옳지 않다고, 바뀌어야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연구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는 한국에서의 강한 경쟁을 비판하며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문화는 사회의 조건 및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 사회에 맞는 태도나 행동은 다른 사회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틀리다’가 아니라 ‘다양하다’로 받아들여야 한다.

## 2.2. 정서적 공감

공감은 관찰, 기억, 지식 및 추론을 결합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통찰력을 산출하는 복잡한 형태의 심리적 추론이다(Ickes, 1997). 따라서 감정 이입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상태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과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제 또는 유추된 감정 상태에 대한 정서적인 경험을 포함한다. 정서적 공감은 인간 상호작용의 불가결한 부분(Schulkin, 2004)이며 이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 신호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게 함으로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특히 중요하다.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특히 ‘따뜻한 마음’을 찾은 경우에는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느낌을 자기에서 빗대어 그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할 때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농담을 통해 표현하였다. 그러나 농담 역시 한 민족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 또는 원칙이나 규칙을 포함하기 때문에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이러한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내가 농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가끔 오버(over)할 수도 있어요. (웃음). 우즈벡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농담을 많이 해요. 그러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농담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농담을 오해하여 나를 비웃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마다 농담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2018.03.16.)

“친구들을 만나면 농담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상대방이랑 잘 맞으면 저는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당연히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점이 없으면 그냥 듣는 스타일이고. (웃음).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진짜로 그 사람이랑 만나서 나는 이야기하고 즐거운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든 그 사람이랑 소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연구참여자 E, 2018.03.18.)

연구참여자들은 상대방과 감정 공유를 위해 농담을 활용하고 있었다. 소통에서의 유머는 열린 분위기를 제공하며(Greatbatch & Clark, 2002)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좋아지게 한다. 그러나 적절한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유머로 인하여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따라서 특히 타문화권 상대방과 소통할 때 유머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 유머는 한 나라의 생활양식 및 사고방식과 연관되어 있어서 각 문화마다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 3.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

#### 3.1. 상호 관심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stop questioning. Curiosity has its own reason for existing.

- Albert Einstein -

타문화권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따뜻함 마음’을 찾는 연구참여자들도 ‘새로운 경험’을 모색하는 연구참여자들도, 다른 문화권 사람을 만날 때 타인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모든 관계나 성공의 첫 단계이다. 개인은 타인을 만났을 때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미움보다 더 부정적인 것이다. 개인은 마음 속으로 미움은 느낄 수 있지만 무관심은 느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미움 간의 거리는 매우 가깝고 둘 감정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지만 무관심은 마음 속에 아무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타인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무관심하게 소통하면 서로 간의 따뜻함 대신 공백이 생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참여자 D는 개인이 타문화권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고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으로 서로 간의 공통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동아리나 스터디 등에서 만나게 되면 같은 것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하다가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같은 관심을 갖는 영화도 같이 보고... 같이 식사도 해보고... 상대방과 처음으로 소통할 때는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즉, 서로 간의 유사점을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죠.”  
(연구참여자 D, 2018.03.17.)

연구참여자 D는 개인이 타인을 만났을 때 서로가 지닌 유사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상대방과 같은 관심사를 찾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봄으로써 친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있다는 뜻으로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언급한다. 상대방이 한국 사람일 경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 그리고 그 표현을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워야 하고 강조한다. 아울러 타문화권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문화적 지식도 요구된다.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그의 문화적 배경, 즉 문화적 가치 및 사고방식에 대한 지식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한다.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한국어를 알아야 되고 한국문화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며 존댓말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써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면 안 되는지... 높임말을 적절한 상황에서 써야 되고 누구에게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하면 되고 또 누구에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 문화에서는 손가락질을 하면 안 돼요.” (연구참여자 A, 2018.03.25.)

“우리는 한 살 차이가 나도, 두 살 차이 나도 다 친구잖아요. 이름 부르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한 살이나 두 살 나이 차이가 있어도 ‘언니’, ‘오빠’ 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존댓말과 반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는 돌려서 말하는 편이라서 저도 이야기할 때도 문자 보낼 때도 돌려서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E, 2018.03.18.)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소통한 경험에 근거하여,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한국 어휘 및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고 특히 나이 및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언어보다도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강조한다.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할 때 언어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소통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자문화에서 친구들 사이에 사용이 가능한 동작이라 하더라도 다른 문화에서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 표정은 공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스처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제스처를 한국인 친구에게 잘못 사용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겼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나는 농담으로 했지만 친구의 얼굴은 갑자기 차가워졌던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때 친구는 엄청 화났어요. 나중에 이야기했죠. 우리문화에서 이 동작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다고. 그래서 친구는 앞으로 이걸 사용하지 말라고 했죠. 머리에 검지를 놓고 돌리는 동작을 우리는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쓸 수 있지만 이 동작은 한국에서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E, 2018.03.18.)

연구참여자 E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할 때 비언어적 소통에 대한 지식도 요구된다. 어떤 제스처를 쓰려면 그 제스처가 타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똑같은 제스처라도 부여하는 의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언어적인 지식 다음에 문화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문화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양식,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관을 포함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지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타문화권 사람과 실제로 만날 때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점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의견도 표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잘 드러낸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모든 인간관계의 첫 걸음, 즉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 3.2. 개방적 마음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소통에서 서로 간의 차이점을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하고 있었다. 개방적 사고는 다양성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김영순 외, 2017).

이런 마음을 가져야 타문화권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중요하다.

“개방적인 마음으로 접촉하고 이러한 자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나와 소통할 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이야기해요.” (연구참여자 B, 2018.03.16.)

“예전에 매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잘 먹어요. 방학 때 우즈베키스탄에 갈 때 라면과 비빔밥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가끔 밤 12시에 매운 라면이나 비빔밥을 먹는 것을 보면 어머니는 놀라요.” (연구참여자 C, 2018.03.25.)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좋은 점만 보고 좋은 점만 배우고 부정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찾아요.” (연구참여자 E, 2018.03.18.)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타문화권 상대방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었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것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람들이 소통할 때 개방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B, 2018.03.16.)

“소통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게 됐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린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알게 됐고 문화, 언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죠. 밖에서 쓰는 언어와 여기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 (연구참여자 E, 2018.03.18.)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다. 다시 말하면, 개방적인 마음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지시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그들의 문화, 언어 그리고 그들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 또는 소통방식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 3.3. 비판적 사고

실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 Albert Einstein -

인간이라면 크든 작든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명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므로 실수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실수를 하였지만 그 실수는 그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고방식을 알게 해주는 교훈이 되었다.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때 한 실수는, 나이나 많으신 분들이 나에게 뭔가를 사줬을 때 엄청 많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든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인가를 사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아무 불편함 없이 받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이는 한국문화라고 하셔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한국문화를 습득했죠.” (연구참여자 B, 2018.01.16.)

“어떤 한국 친구랑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우리 둘과 관련된 것을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혼자서 결정했을 때 (친구가) 삐졌어요. 그때는 거의 한 시간 동안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우즈베크문화권 사람들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자기가 결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알려준다고 상대방이 이 의견에 반대하면 반대라고 하고 찬성하면 찬성이라고 한다고 설명해줬어요. 한 시간 동안 설명한 후에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원래는 이는 실수가 아니라 자기 의견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죠.” (연구참여자 D, 2018.03.17.)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유학와서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우즈베크문화와 다른 소통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실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이후에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때에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B는 한국문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후배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부담감을 느꼈지만 나중에 이 관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D의 경우 한국인 친구와 사귀면서 한국문화에서 어떤 것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한국문화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대한 존중, 인정 그리고 공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참여자 G는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상대방의 가족이나 월급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할 때 가족이나 월급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에게 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놀랐죠. 알고 보니까 한국문화에서는 가족이나 돈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화적인 실수를 해 본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이 나이가 좀 많은 편이어서 우리는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았고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G, 2018.03.18.)

연구참여자 G는 한국 사람과의 소통에서 문화적으로 실수하였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해서 배웠다.

이처럼 미시적인 관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에 유학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한 실수는 그들에게 한국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4. 상호작용 동기

### 4.1. 외로움 극복

“We are born alone, we live alone, we die alone. Only through our love and friendship can we create the illusion for the moment that we are not alone.”

- Orson Welles -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고 낯선 사회와 문화에 온 제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초기적응에서 외로움을 제일 많이 느꼈다. 그들은 이러한 외로움을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응원을 받고 자신감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는 그들에게 상호문화소통 동기가 되었다.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과 소통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신을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 자신을 낮게 보고 낮게 평가하는 편인데 타문화권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요. 그들은 나를 늘 응원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상대방을 응원해주고 칭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연구참여자 B, 2018.03.16.)

“나에게 소통하는 동기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같은 문화권사람인지 다른 문화권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소통에서 바라는 것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연구참여자 A, 2018.03.25.)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 B는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응원을 얻었고 자신감이 높아졌다. 또한 연구참여자 A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통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사례를 다른 연구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해외 및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우울, 불안, 외로움, 사회적 어려움 등이 그들의 스트레스의 변인으로 나타났다(송원영 · 리난, 2008; Sawir E. 외, 2008; 임수진 · 한규석, 2009; Smith & Khawaja, 2011; Zhang & Goodson, 2011; 이선희, 2012; 문영하 · 김현진, 2014). 예를 들면, 다양한 문화권 나라에서 호주에 유학 온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의 2가 외로움을 경험하였다(Sawir E. et al., 2008). Weiss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두 가지 외로움을 경험한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외로움으로 이는 가족과 떨어져 있으므로 발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외로움이다. 이는 거주하는 사회에서 친구들이 없으므로 나타난다. Weiss는 유학생들은 특히 초기 적응 시절에 두 가지 외로움을 모두 경험한다고 주장한다(Weiss R., 1973). 마찬가지로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도 개인적 및 사회적 외로움을 경험하였고 이는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큰 동기가 되었다.

#### 4.2. 세계관 확대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문화, 즉 인간이 사는 사회,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지식, 생활양식, 사고방식, 행동, 태도 그리고 믿음이 형성된다. 각 문화는 보편성을 지닌 반면에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문화는 주어진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독특한 음식과 의복 문화를 형성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각각 다른 자연환경과 역사·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나름의 생활양식을 개발시켜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 사회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선택함으로써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한다(김영순 외, 2017).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문화다양성이 발생한다.

인간은 타문화권 사람과 소통을 통해 다른 자연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과 세상에 대한 폭넓은 가설을 배운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의 시각을 통해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사람들을 인식한다(Hansen, 1979). 그러므로 타

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환경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배우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종교, 민족, 생활 조건은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은 똑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종이나 종교, 생활 조건이 이 민족의 성격과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참여자 B, 2018.01.16.)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의 시각이 타문화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타문화를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와 같은 태도는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위한 기반이 된다. 그렇게 개인은 다른 문화의 특정한 맥락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변화할 수 있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돌이켜 보고 반성하는 능력으로부터 비롯한다. 무엇보다도 서로 다름에 대한 배려와 존중,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김영순 외, 2017). 아울러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현상에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 ‘다양성’을 발견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경험하여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세계관이 넓어졌어요. 문화를 보는 눈, 사람들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등이 변화되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3.15.)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기면 어렸을 때 부터 배웠던 딱 하나의 길만 보고 이것이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다양한 문화권 친구들을 사귀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와 다른 사고방식 및 세계관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또한 다양한 생활양식,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연구참여자 D,

2018.03.17.)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려움을 겪으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하는 것, 서로의 입장이 되어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배웠죠.” (연구참여자 E, 2018.03.18.)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 이론에 따르면 훌륭한 코미디언과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한다. 우스갯소리가 나온 책을 읽고 웃기는 이야기를 모으고 코미디 이론에 통달했다고 하여 청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코미디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한희원, 2011). 아울러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고마운 편지를 쓰는 습관처럼 고맙다는 편지를 자주 쓰다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미덕이 갖든 행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몸에 배어 미덕을 갖춘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사회, 조직에서의 정의는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실천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실천해서 아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4.3. 언어 발달

제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는 또 다른 동기는 외국어능력 함양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기의 외국어능력을 검토하고 목표 언어와 관련된 언어·비언어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였다.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나에게 있는 실수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행동적으로도 그래요.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소통 방식을 검토하는데다가 다양한 소통 방식도 배워가요.” (연구참여자 B, 2018.03.16.)

“우리는 소통할 때 서로의 언어를 배우도록 해요.” (연구참여자 C,

2018.01.16.)

“한국 유학생황에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면서 세상 및 인간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소통을 통해 언어를 문화와 같이 배웠어요. 언어만 잘하고 문화를 모르면 서로 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연구참여자 E, 2018.03.18.)

언어는 경험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인간’의 특성을 계발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사고를 공식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돕는다 (Fantini, 1997). 아울러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문화는 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와 그의 사용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Gudykunst, 2004). 예컨대,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문화에 비해서 간접적인 대화 방식을 경험하였다. 처음에 이러한 소통 방식에서 의미를 추측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적응이 되었다.

“한국은 더 간접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속에 못 오는 경우에는 똑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찌지?’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의 소통 방식이 ‘나는 이야기하지만 너는 대답을 찾아라.’예요. 그리고 눈치를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 2018.01.31.)

“한국 사람들이 우즈베크문화권 사람들보다 간접적인 대화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나 이는 상대방과 관계, 즉 친밀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끼리는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라면 간접적인 대화를 하죠.” (연구참여자 G, 2018.02.02.)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면서 한국 사람들이 직접적인 소통보다 간접적인 소통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대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은 처음에 한국인인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한국인 화자의 말하는 의도를 깨달았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한국문화에 있어서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실 상대방과 소통할 때 비언어적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 이전에 상대방과 소통할 때 아무 신경 안 썼거든요. 얼굴, 표정, 시선 등등. 어느 날 학교에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가 끝난 후에 어떤 언니가 나를 찾아와서 ‘000, 네 표정이 왜 이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놀라서 ‘왜 내가 말할 때마다 네 표정이 어두워져요?’ 라고 다시 되물어봤는데 그때 엄청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내가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내 표정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상대방에게 신경을 쓴다고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얼굴 표정에도 신경을 써서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C, 2018.01.16.)

“그러나 한국에 처음 왔었을 때 소통하는 데 스킨십이 매우 적어서 놀랐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여자 친구들과 친한 남자 친구들과 인사를 할 때 포옹하거나 악수를 하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문화에서 스킨십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연구참여자 D, 2018.01.27.)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Sapir는 인간은 상징을 통해 자기의 생각, 감정, 그리고 욕구를 표현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상징’은 ‘수단’ 이라면 여기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에는 음성언어(spoken language)와 신체언어(body language)가 있다. 어휘적인 측면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을 분석해 보면, ‘비’ + ‘언어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비언어적’이라는 개념은 ‘언어가 아닌’ 의사소통 방식, 즉 신체언어를 지시한다(갈라노바 딜노자·강미영, 2017: 9).” 그러므로 비언어적 소통에 얼굴 표정, 몸짓, 목소리, 시선 등이 포함된다.

연구참여자 C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굴 표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녀는 자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이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시선 또는 몸짓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언어적 소통 방식은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 따라서 문화는 언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언어 학습은 상호문화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 5. 상호문화소통 참여

### 5.1. 정보 교환

언어는 사회 기능의 기본 도구이다. Gudykunst(2004)에 따르면, 우리는 세 가지, 즉 정보, 표현 및 지시 때문에 언어를 사용한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면서 감정 및 태도를 표현한다. 셋째, 언어를 사용하여 일종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지시한다.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 간의 소통은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우리는 주로 정보를 교환해요. 어떤 정보를 알면 이를 상대방에게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알려줘요. 또 어떨 때에는 감정을 교환하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A, 2018.03.25.)

“대부분 타문화권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학교나 수업, 또는 한국이나 자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연구참여자 E, 2018.03.18.)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서로 공통점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로 이 나라의 사회나 문화,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를 배우고 교환하고 있었다. ‘지식 공유’는 타인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통이나 문서를 통해 이루어진다(Cummings, 2004; Pulakos et al., 2003). 따라서 이러한 소통은 유학생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 5.2. 감정 교환

감정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이고 우리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고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감정은 세계와 관련한 우리의 지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Buck, 1984). 또한 감정은 행동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도 중요하다. 심리학에서의 감정 이론의 아버지인 Sylvan Tomkins은 감정은 동기 부여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Tomkins, 1962, 1963). 마찬가지로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다양한 문화권 친구들과의 소통에서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할 때 자유를 느껴요.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나에게 큰 동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느끼면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서 매우 편해요.” (연구참여자 C, 2018.03.16.)

“첫 번째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타문화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비교하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찾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요. 또한 한 개념은 각 문화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러므로 차이점을 찾으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배워요. 문화 차이, 생각 차이, 소통 방법 등을 배워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을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표현해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참여자 E, 2018.03.18.)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타문화권 친구들과 소통할 때 유학생생활이나 학문적인 지식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감정까지 교환하였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감정 교환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상호문화소통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인 감정 도입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을 점검할 수 없다면 문화적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Matsumoto D., Leroux, J., & Hee Yoo S., 2005).”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감정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하였다.

## 6. 상호문화소통 역량

### 6.1. 상호 존중

칸트에 따르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와 관계없이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 칸트의 인간존중의 원리에 따르면 인간존중은 인간인 이상, 즉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이며, 인간 모두에게 비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적 능력에 대한 존중이다. 인간존중은 인간이성에 대한 존중이다. 결과적으로 칸트의 인간존중의 원칙은 보편인권원칙과 통하는 것이다. 사람 모두에 대한 사랑, 모두에 대한 공감만이 칸트의 말하는 온당한 인간존중이 된다.

“칸트의 보편적인 인간존중에서 귀결되는 칸트의 인간관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방이 지구상의 어디에 살든, 우리가 상대를 얼마나 잘 알든, 그들의 성별, 나이, 국적, 피부색, 인종, 종교, 신념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존중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 그들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희원, 2011: 221).

모든 관계는 존중에 기초해야 하며 존중이 없으면 우정도 사랑도 또 다른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들은 타문화권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때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틀림’으로 아니라 ‘다양함’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있다.

“제일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고 다음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자기 의견을 낼 때 직접적으로보다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인 상호문화소통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로 간의 존중을 유지하면서 대화해야 성공한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B, 2018.03.16.)

연구참여자 B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한국 속담처럼 상대방을 존중해야 상대방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존중이란 성공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필수적 요  
소로 대상자는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존중되어야 한다(보건  
복지부, 2011: 23).” 존중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 단계이다.

연구참여자 D의 경우 9년 동안 한국에서 학사·석사·박사를 하는 동안  
만난 대부분의 룸메이트들이 한국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우즈베크문화권 사람  
들처럼 그녀도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인 믿음은 한국 사람들  
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D는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하  
지 않도록 하고 사고방식도, 말하는 방식도 종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함은 한국인 룸메이트와 친구가 되는 데 아무 문제가 되  
지 않았다. 서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여 존중해왔기 때문이다.

“우즈베크문화권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통 풍습과 종교가 한국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문화에 따르면 밤에 방 청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 청소를 내가 해야 하는 날에 늦게 오게 되면 룸메이트에게  
우즈베크 풍습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방 청소를 내일 하겠다고 해요.  
이럴 때 룸메이트가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전통 풍습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  
고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적 배경  
을 가진 사람과 소통할 때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기의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D, 2018.03.17.)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은 같은 목적과 같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차이점을 ‘틀리다’가 아니라 ‘다양  
함’으로 받아들이면 서로 간의 소통이 갈등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연

구참여자 D에 따르면 타문화권 사람을 만나서 소통할 때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자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것을 통하여 더 효과적인 소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가치관에 대해서 알고 이를 존중하고 인정하여 서로 간의 다양함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이해할 수 있다.

## 6.2. 상호 이해

“The biggest communication problem is we do not listen to understand. We listen to reply.”

- Stephen R. Covey -

소통이란 단순히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대답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듣고 있다는 것이 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감적 듣기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들어갈 수 있으며, 상대방을 이해한 경우에는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1: 23).”

“같은 수업을 들었던 몇 명 한국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배웠던 점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이 점을 정말 존중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해요. 상대방이 입을 열자마자 ‘잠깐만’ 라고 해서 자기 의견을 말해요. ‘대화’ 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만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의 의견,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과 진행하는 대화는 달라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방식이 매우 마음에 들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위해 끝까지 참고 들어주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러한 점을 매우 존중해요.” (연구참여자 B, 2018.01.16.)

연구참여자 B는 한국에 와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소통하면서 우즈벡 문화권 사람들과 진행하는 대화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소통 모델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우즈벡문화권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와 달리 한국문화권 친구들과 진행된 소통은 일단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공감적으로 들어준 다음에 자기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B는 문화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잘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즈벡문학의 ‘아버지’인 알리셰르 나보이는 자신의 ‘함사’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한다. “단어는 영혼이고, 정신은 그의 고풍이다. 몸에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항상 단어를 필요로 한다. 세계의 모든 영혼들의 상자에 담긴 광석이고 모두의 입에 있는 소중한 보석이다. 혀가 강철 췌기인 경우, 단어는 진주이다. 혀가 정원에서 열린 튜립이라면 단어가 그 위에 있는 이슬이다. 한마디는 죽은 사람의 몸에 깨끗한 정신을 선사한다. 또 한마디는 몸의 살아있는 영혼을 망칠 수도 있다.” 한마디의 가치가 매우 크다. 상대방과 소통할 때 우리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연구참여자 D의 경우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소통하면서 자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다양하게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우즈벡문화권 사람들의 대화가 주로 서술문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람들의 대화는 주로 의문문형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예의더라고요.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및 공감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느라 좀 시끄럽게 해서 미안함을 표현할 때 우즈벡문화권 사람들이라면 보통 ‘아침에 000이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라고 해요.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너무 시끄러웠죠? 미안해요.’ 라고 먼저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미안함을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상황에서도 우리문화권 사람들이 소통할 때 보통 서술문형식으로 하고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의문문형식으로 해요. 다른 상황에서도 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D, 2018.03.17.)

연구참여자 D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어떤 것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 배우고 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우즈베크문화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보통 먼저 자기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반대한다고 말하고 서로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D는 한국인 친구들과 소통을 통해 이러한 소통 방식에 대해서 배워가고 활용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소통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나 어휘를 배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경험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소통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배웠던 것을 실천에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 E는 한국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태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때 언어적으로든 비언어적으로든 잘 듣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말할 때는 머리를 끄덕끄덕하거나 ‘아, 그렇구나’, ‘네’ 라고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방과 소통할 때 서로 간의 배려심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천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모국어가 아닌 한국말로 할 때는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외국인이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천천히 똑바른 발음으로 하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 2018.03.18.)

연구참여자 E는 한국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는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맞는 자세를 가지고 언어나 비언어적으로 잘 듣고 있다는 의미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소통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유학 와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소통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우즈베크문화권 사람들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소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 6.3. 상호 배려

세상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는 배려를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차이’를 ‘틀림’이 아니라 ‘다양’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선을 뜻한다. 이 역량은 여러 가지 문화가 한 사회 속에서 평화롭게 살뿐만 아니라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역할이 크다(김영순 외, 2017).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자아중심주의 인식에서 벗어나게 한다. 자아중심주의 인식이란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보는 시선을 말한다. 그러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요구된다.

“대학 생활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하나를 예로 들면, 1학년 2학기 때 자율자동차와 관련된 팀 프로젝트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전자공학과, 기계공학 등 공학 학생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율자동차를 같이 만들었어요. 자율자동차 안에 카메라 또는 기계적인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기계공학은 하드웨어를 잘 이해하니까 제가 그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때 서로를 많이 도와주고 선배는 후배를 잘 배려해줬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3.15.)

연구참여자 A는 한국인 동료들과 팀 프로젝트에 참석하면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배들에게도 배려를 받았다. 같은 공학과 학생들이지만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서로를 많이 배려해준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양보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외국인이니깐 가끔씩 실수할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해도 잘못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미안하다.’ 라고 먼저 양해를 부탁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거꾸로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자주 하는 존댓말이나 반말 같은 실수와 다른 실수들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E, 2018.03.18.)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E는 한국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기에 앞서 자기가 다른 문화권 사람이기 때문에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소통할 때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서로에 대한 양해는 원활한 소통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해는 특히 타문화권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및 양해는 자아중심주의 의식에서 벗어나게 한다.

#### 6.4. 상호 칭찬

칭찬이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관점을 장점으로 보고 이를 상대방에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칭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는 외모(생김새 또는 옷차림)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다. 칭찬이 들어간 대화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상황과 맞지 않는 칭찬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옷차림만 집중하여 칭찬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해온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들을 보지 않고 다만 ‘옷차림’만 좋게 본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할 때 칭찬을 하려고 한다면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상황에 맞춰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지닌 문화적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칭찬할 줄 알아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칭찬을 좋아해요. 그리고 성실함, 순수함, 겸손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예요.” (연구참여자 B, 2018.03.16.)

“한국 사람들과 원만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밝은 미소와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C, 2018.03.25.)

칭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외모나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 및 업적에 관한 것이다. 누구에게 어떠한 종류의 칭찬을 할 수 있는지는 각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타문화권 사람과 소통할 때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칭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지닌 문화에 대한 지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칭찬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각 문화마다 가치관 및 규범이 다르기 때문이다. Li Feilin과 Yu Gaofeng(2005)의 미국과 중국문화권 사람들의 칭찬 활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문화에서 외모나 지닌 것에 대한 칭찬은 보통이다. 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할 수 있다. 여성의 나이, 사회적 지위, 직업에 관계없이 그녀의 외모는 영원한 칭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여성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문화권 사람과 소통할 때 이러한 미묘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 6.5. 상호 신뢰

상대방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상호 신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신뢰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다. 상호 신뢰를 가지기 위해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인정이 필수적이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실감과 솔직함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



할 때 이러한 진실함과 솔직함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심이에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진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해요. 진심이 있어야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시작해요.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연구참여자 C, 2018.03.16.)

신뢰의 차이는 Richard D. Lewis가 정의한 다양한 문화적 범주, 즉 선형 활성(linear-active), 다중 활성(multi-active) 및 반응성 문화(reactive culture)로 구분된다. 각 범주는 사람들이 주로 믿는 바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신뢰를 쌓는다. 선형 행동 문화(독일인, 스위스인,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는 성과와 기관 및 가치 요소를 신뢰한다. 다중 활성 문화(라틴 아메리카인, 아랍인, 파키스탄인, 인디언)는 주로 집단 내 친인척을 신뢰하며 연민, 친밀감 및 관계를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반응성 문화(일본인, 중국인, 핀란드인, 한국인)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호하고, 호의를 보답하며, 예견 가능한 예의를 표하는 관점에서 정중한 행동을 통해 신뢰한다(Ihnatova Z., 2017).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타문화권 친구들과 사귀면서 상대방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를 얻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경험하였다.

## 7. 소결

본 장에서는 Arasaratnam과 Banerjee(2010)의 자극선호와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을 활용하여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극선호(Sensation seeking)가 그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 형성 및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자극선호에 ‘새로운 경험’을 넘어서 ‘따뜻한 마음’도 포함하였다. 예컨대, Arasaratnam A., Banerjee C., Dembek K.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자극선호가 동일하게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그러나 이는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에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따뜻함 마음’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자극선호가 ‘따뜻함 마음’일 경우 ‘공감 → 글로벌 태도 → 동기 → 상호작용 참여’를 통해 그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이 함양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감이란 인지적 공감보다 정서적 공감에 더 가깝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따뜻한 가정환경을 벗어나 낯선 나라와 문화에 왔기 때문에 소통에서도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찾고 자신과 맞는 상대방을 만나면 감정을 교환하기도 하고 유학생들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기도 하였다.

둘째,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자극선호가 ‘새로운 경험’일 경우 ‘글로벌 태도 → 상호작용 참여’는 그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향상하는 데 충분하였다. 물론 ‘공감 → 글로벌 태도 → 동기 → 상호작용 참여’ 등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함양한 연구참여자들도 있기는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적은 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공감’은 인지적 공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소통에서 ‘새로운 경험’을 찾는 연구참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나 관심, 또는 서로 간의 차이점을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신장할 수 있었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자연환경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문화, 즉 인간이 사는 사회, 그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지식, 생활양식, 사고방식, 행동, 태도 그리고 믿음이 형성된다. 각 문화는 보편성을 지닌 반면에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문화는 주어진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유학을 와서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배우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여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다.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유학 와서 한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고 있었다.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는 따뜻한 마음에 기초하며 인간이 인생을 사는 목적은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따뜻한 마음 없이 인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식물이나 동물도 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따뜻한 마음에 근거한다. 세상에서 따뜻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따뜻한 마음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고 인간미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 VI. 결론

### 1. 요약

2000년 초반부터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강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한국 문화와 접촉한다. 유학생들에게 한국에서 공부하는 시기는 “자기가 공유하는 문화를 가지고 사회로 이주하여 그 사회의 문화를 배우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시기”(김영순 외, 2016)이다.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총 163,041명으로, 이들 중 유학(D-2)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이들은 107,371명, 한국어연수(D-4·1)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이들은 55,661명이다. 이들 중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총 7,750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유학생들의 국적으로 따지면 4위에 해당하며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0)</sup>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이고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는 한국어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창한 언어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육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함께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소통 교육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문화소통은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넘어 어떤 사회나 문화 속에서 문화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성공하는 데 발판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함양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교육

---

20) 2018년 11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에 따르면 국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중국(한국계 포함)과 베트남, 몽골에 이어 4위이다. 총 7,750명 중에서 유학(D-2)은 4,389명, 한국어연수(D-4-1)는 3,361명이다(<https://immigration.go.kr>, 2018.12.21. 검색)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문화소통 교육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위해 요구되는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의미한다. 상호문화소통 교육은 자국 및 타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여 배려할 수 있는 지식, 능력, 태도 및 인식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국내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중에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가 3급에서 6급까지인 8명의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을 인터뷰하였다.

연구 방법은 내러티브 연구로 연구참여자들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느낀 한국-우즈베크 간 문화 소통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1차 질문지를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답변을 받고, 연구자가 범주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2차 질문지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질문지를 전송하였다. 이후에 연구자와 1:1 인터뷰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사건과 경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연구참여자에게 편한 언어, 즉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및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심층인터뷰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층인터뷰 내용을 전사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어린 시절, 중·고등 시절, 대학생 시절, 유학 후 시절 등 시간별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초·중학교에서 한국어 동아리 및 한국교육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으로 상호문화소통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한국 사람을 만나서 소통을 통해 한국, 한국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이 만남과 소통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한국 사람들과 한 소통은 한국 유학생생활, 한국사회 및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한국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유학생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도도 높일 수 있었다.

다음으로 Arasaratnam과 Banerjee(2010)의 ‘자극선호와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통합 모델’을 활용하여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극선호(Sensation seeking)가 그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형성하고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두 가지 과정을 포함한다.

첫째, 자극선호가 ‘따뜻한 마음’이었던 연구참여자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공감 → 글로벌 태도 → 동기 → 상호작용 참여’ 등 과정을 통해서 함양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따뜻한 가정환경에서 낯선 나라와 문화에 왔기 때문에 소통에서도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상대방을 만나면 감정을 교환하기도 하고 유학생들의 어려움 및 외로움을 극복하기도 하였다.

둘째, 자극선호가 ‘새로운 경험’이었던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글로벌 태도 → 상호작용 참여’를 통해서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향상시켰다. 그들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나 관심, 또는 서로 간의 차이점을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위에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들은 한국에 유학을 와서 느꼈던 외로움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호문화소통은 유학생들이 한국의 사회나 문화, 또는 학업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타문화권 사람과 상호문화소통하면서 인간 및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각, 같은 주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 등을 배웠다. 또한 상호문화소통은 연구참여자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그들의 외국어능력 발달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

다. 따라서 이러한 소통은 유학생이 앞으로 글로벌 인재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향상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상호문화소통은 인간 자체 및 본질에 대한 교훈이었다. 그들은 상호문화소통을 통해 유사한 점이나 차이점을 찾고 이러한 다른 점을 ‘틀림’으로 아니라 ‘다양함’으로 인식하고 다양성을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볼 때 연구참여자들에게 상호문화소통은 곧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타문화권 사람을 만나 상호문화소통하면서 자문화나 타문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인간과 동식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곧 세상에 대한 이해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인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과 소통은 곧 세상과의 소통이다.

##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의 함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자극선호가 필수이다. Arasaratnam A., Banerjee S., Dembek K.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의 자극선호가 높을수록 그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극선호와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참여자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 형성 및 함양은 그들의 자극선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가지려면 먼저 자기의 자극선호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상호문화소통 역량 함양을 위해 이러한 소통에서의 참여 경험이 요구된다. 상호문화소통 참여는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실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소통 지식은 자기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나 문화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타인, 즉 소통하고 있는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Byram, 1997)을 모방한다.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수반한다. 따라서 한국에 유학하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게 한국문화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선행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학생들은 상대방의 지위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의 인사예절과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이미정 외, 20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에게 국내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어려우며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관계 맺기가 어렵다(강현민 외, 2014).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생활경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집단주의, 고정화된 성역할, 모순된 호칭, 경쟁과 생활서비스(남부현 외, 2014)로 인하여 인간관계를 맺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과제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타문화권 사람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상호문화소통 기술과 상호문화소통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상호문화 기술은 자국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량이고 태도는 타인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감과 호기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역량(Byram, 1997; Fantini, 2006)이므로 상호문화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타문화권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로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넷째, 한국문화권 상대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상호문화소통 인식이 요구된다. 상호문화 인식은 타인에 대해서 배웠던 지식이나 태도를 통해 발생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이며 이러한 정체성을 통해서 형성되는 고유문화와 타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Byram, 1997; Fantini, 2006, Deardoff, 2006). Byram(1997)은 상호문화소통 역량 중에 ‘태도’ 및 ‘지식’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Fantini는 ‘인식’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된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자국문화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타문화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느꼈던 차이점을 존중하며 이런 상황에 맞게 적절한 태도를 보여주고 자기와 타문화 간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유전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다.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은 상호문화소통 교육이라고 칭하며 이 교육의 목적은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넘어서 학습자를 세계시민으로 키우는 데 있다. 따라서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 함양을 위해 상호문화소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는 외국어를 습득할 때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자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정영근, 2000)에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다문화 수업 속에 상호문화교육 원리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문화를 기술하는 낮은 수준의 이해에 머물러 있어서 상호문화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상호문화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조윤정, 2013). 상호문화교육의 철학은 ‘상호문화성’이라는 용어에 기반을 두는데 이는 사람들 간의 심리적 관계, 즉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상호문화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진다. 즉, 상호문화교육이란 ‘더불어 더 잘 살기’라는 지구촌 시대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이다(장한업, 2016).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들에 잘 적응하고 한국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내용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상호문화와 만남 상황에서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므로 상호문화소통 교육은 우선적으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자문화 및 타문화에 대한 공부는 언어적·비언어적, 사회적·문화적 등의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나는 누구인가?’, ‘타인은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어떻게 타문화권 상대방의 문화는 어떠한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가정환경 및 사회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을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타문화권 상대방이 태어나고 자란 가정환

경이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래야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자기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호문화소통 교육 안에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한 이해 부분이 있어야 한다. 즉,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Clement C., 2001, 장한업 (역), 2015)이 필요하다. 타문화권 사람과 소통할 때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느끼는 차이점을 ‘틀림’이 아니라 ‘다양함’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해서 배운 지식을 상호문화와 만남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공감이나 감정이입 능력을 함양시켜서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과 더불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Clement C., 2001, 장한업 (역), 2015).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의 입장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내용은 두 나라 문화와 생활양식 및 사고방식, 서로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는 것, 예를 들면 두 나라의 다양한 전통음악, 공연 활동, 서로 언어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또 한 가지 내용으로 이러한 소통의 의미를 인식하게 하는 가치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상호문화소통 교육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알기 위한 배움, 행하기 위한 배움, 함께 살기 위한 배움, 존재하기 위한 배움(21세기 교육에 관한 국제 위원회)이므로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한국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하면서 한국 유학생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해서 알고 이에 따라 행동하고, 함께 살아가고 존재하기 위해 배워야 한다.

다섯째,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과 한국 사람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 유네스코가 제시한 상호문화교육 분야에서 국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특정수의 반복적인 원칙(문화적 정체성 존중; 문화적 지식, 태도 및 기술; UNESCO, 2013)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소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 함양을 위해 상호문화소통 교육을 제언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활용해보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유학생화에 잘 적응하며 한국 사람들과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하면서 유학생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유학생화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갈라노바 딜노자·강미영(2017).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 방식 연구」. 문화교류연구, 6(3), 5-27.
- 강현민·니고라혼·홍유나(2014).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4), 215-240.
- 구현정·전영옥(2017). 『의사소통의 기법』. 서울: 박이정.
- 국립국어원(201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효숙(2006). 「문화적 학습양식과 뇌 발달」. 뇌교육연구, 1(1), 35-58.
- 김선태(2005).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재검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1-39.
- 김순임·민춘기(2014). 「‘상호문화능력’ 학습을 위한 교양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교양교육 연구, 8(5), 517-555.
- 김영순(2010). 「다문화 사회와 시민교육: ‘다문화 역량’ 을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18, 33-59.
- 김영순·갈라노바 딜노자(2017). 「제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방안」. 인문사회 21, 8(3), 547-564.
- 김영순·오영훈·정지현·김창아·최영은·정소민·최승은·조영철(2016).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 서울: 북코리아.
- 김영순·최승은(2016). 「상호문화학습의 실천적 내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어와 문화, 12(2), 1-27.
-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옥선(2011). 「상호문화 의사소통능력의 내용과 평가」.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28, 5-29.
- 김오숙(2014).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예측모델: 대치-적응 문화맥락적 모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의수·이정현(2017).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의 성과 분석에 대한 연구」. 教育發展論叢, 38(1), 295-315.
- 김진석(2015).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김태연(2016).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과 타지키스탄이슬람부흥당(IRPT)의 발생 조건과 요인 비교연구」. 러시아연구, 26(2), 71-109.
- 김태현(2017). 「메타포 관점의 인포그래픽 유형이 문화적 사고 차이에 따라 정보처리와 정보 수용 태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해욱(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에피스테메.
- 김현진·김영준(2015). 「제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문화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어 사용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4), 201-225.
- 나랑가라브(2016).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에 비판적 검토: <Study Korea 2020 추진

- 계획>에 나타난 생활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임순(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남부현·김옥남·남기석(2014). 「외국인 유학생 생활경험 속에 투영된 한국인과 한국문화」. 사회과학연구, 25(1), 105-126.
- 마달레나드 카를로, 장한업 역(1998). 『상호문화 이해하기』. 서울: 한울 아카데미
- 문영인(2017). 『글로벌 시대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한국문화사.
- 민영하·김현진(2014). 「정부초청 장학생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및 설계 방안」. 이중언어학, 55, 51-82.
- 문효진·박성현(2012). 「한류 인기 요인과 호감도 및 국가이미지와와의 관계 연구: 일본, 미국, 프랑스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6(4), 247-280.
- 민춘기(2015). 「상호문화 학습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요구 분석」. 22(4), 251-275.
- 박덕유·이옥화·송경옥(2013). 『한국어 문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문사.
- 박미숙·김영순·홍유나(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0, 110-141.
- 박민정(2006).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적 순환」. 아시아교육연구, 7(4), 27-47.
- 박시홍(2011). 「한국 대학의 국제화 추진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경(2011).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113-139.
- 박인철(2015).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서울: 아카넷.
- 박장순(2012). 「신 한류시대의 메인스트림 K-pop의 확산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16(4), 1-24.
- 백세영(2014). 『세상을 딛고 서는 세상 수업』. 서울: 그림책.
- 변중현(2013). 「다문화사회에서의 갈등해결교육: 상호문화주의적 접근」. 윤리교육연구, 32, 33-57.
- 보건복지부(2011). 『의사소통의 실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 서상문(2013). 「교육에서 내러티브의 가치와 성격에 대한 철학적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1(1), 97-115.
- 서영지(2015).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접근법 적용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종남(2013).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자사.
- 서지영(2014). 『청소년의 상호문화능력과 평가-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2014 하반기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공동학술대회, 36-46.
- 송원영·리난(2008).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학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5(2), 159-173.

- 신경림·조명옥·양진향(2010).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심미경·한동호·박창배(2015).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원 경험연구」. *다문화 교육연구*, 8(4), 137-159.
- 양춘희·권용만·황규일·신형재·오창환(2012).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성남: 북코리아.
- 오세경·김미순·백보예바 아이쿨(2015).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위한 여가 경험의 의미」. *여가학연구*, 13(4), 79-99.
- 오세경·오영훈(2017). 「상호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 멘토링 캠프 프로그램 개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3), 805-812.
- 오영훈(2009). 「다문화교육으로서 상호문화교육: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5(2), 27-44.
- 오영훈·김창아(2015). 「교육연극을 활용한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Schulz-von Thun의 의사소통 모델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67, 23-42.
- 오영훈·방현희(2016). 「독일의 상호문화교육 사례에 대한 연구: 베를린 EU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11), 81-90.
- 원승룡(2007). 『문화이론과 문화철학』. 경기도: 성광사.
- 유권중(2014). 「마음에 관한 연구와 상호문화 이해의 확산」. *철학탐구*, 35, 1-31.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2).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수연(2012). 「상호문화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이론과 실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30, 81-101.
- 윤영(2016).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재 개발 방향」.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0, 2-27.
- 윤용선(2006). 「이문화간 의사소통 이론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2), 161-192.
- 윤희진(2014). 「지역 향수의 다성적 내러티브와 고향에 대한 사회적 리얼리티의 재구성: 영종도 신흥민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성, 주재홍, 김영천(2013).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질 및 이론적 배경 고찰」. *다문화교육연구*, 6(1), 51-72.
- 이명선(2005). 한국 간호학문에서의 페미니즘. 「대한간호학회지」. 35(5), 914-923.
- 이미정·우루쿤치예브 아들백·박수정·아이고자에바 아이게립(2015).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21(5), 283-307.
- 이선영(2016). 「속어의 형성 방식에 대한 일고찰」. *언어(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1(4), 619-635.
- 이선희(2012). 「제한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정에서의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101-116.
- 이성범(2015). 『소통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이소연(2017).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고려한 한국문화 교수요목 설계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범(2004). 「문화 간 대화의 이면: 비영어권 화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커뮤*

- 니케이션학연구, 12(5), 123-138.
- 이은(2016). 「다문화미술교육에서의 상호문화미술교육으로의 전환: ‘상호문화성’에 관한 현상학적 사유를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30(1), 29-54.
- 이종일(2014). 『다문화사회와 타자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이철우·상매·초연(2016). 「중국 소비자의 한류지각과 화장품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기업과 국가이미지를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2(3), 99-120.
- 이현정(2003).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화도(2011). 「상호문화성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의 이해」. 비교교육연구, 21(5), 171-193.
- 임지혜·최경화(2009). 「미디어 이용 실태와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국내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5(2), 183-206.
- 장석연(2014). 「외국인 유학생 상담을 통해 본 다문화상담의 목회신학적 연구: 체계적 상호문화 접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4), 257-283.
- 장애리(2011).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한업(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광주: 교육과학사.
- 장한업(2016). 「상호문화교육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2), 33-54.
- 전재은·장나영(2012). 「니하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생과의 교우관계: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인식」. 한국교육학연구, 18(1), 303-326.
- 정기섭(201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본 상호문화 역량」.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3), 133-149.
- 정기섭·오영훈·김영순·이문기·변경원(2014). 『상호문화 교육의 이해』. 서울: 북코리아
- 정수경·강현식(2015). 「내러티브 개념의 다양성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23-45
- 정영근(2001). 「세계화시대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와 과제 -한국의 세계화교육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독교육학연구, 6(1), 1-20.
- 정영근(2006). 「상호문화교육의 일반교육학적 고찰」. 교육철학, 37, 29-42.
- 정영근(2007). 「‘사이’의 세기와 상호문화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12(1), 257-272.
- 정영근(2011). 「독일 초등학교의 상호문화교육 -교육 내용, 교수방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적 이론과 실천, 16(2), 55-77.
- 정영근·한영란(2006). 「다문화 사회의 학교와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 교육연구, 1-18.
- 조윤정(2013). 「다문화수업의 상호문화이해 유형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5(1), 81-108.
- 조인숙(2014). 「내러티브의 본질과 학교교육에의 실천적 함의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2(3), 49-68.
- 조해정(2014). 「말(Ram Adhar Mall)의 상호문화적 해석학과 문화적 중첩」. 법한철학, 74, 501-531.
- 주관승(2016). 「상호문화철학의 비전」. Journal of the DaeDong, 76, 268-289.
- 주동범·김향화(2013).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
- 주휘정(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 연구소, 36, 135-159.
- 최승은(2015).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교사의 음악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재식(2006). 「상호문화성의 현상학: 문화중심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성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30, 1-30.
- 최현덕(2009). 「경계와 상호문화성: 상호문화 철학의 기본 과제」. 코기토, 67, 301-329.
- 한경숙(2012).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한국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영식(2000). 「간문화 학습의 이론적 기초와 학습 과정」. 사회과교육학연구, 4, 82-102.
- 허영식(2015). 『다양성과 간문화』. 서울: 박영 story.
- 홍종열(2013). 「상호문화능력으로서 문화지능의 개념에 관한 고찰」. 문화산업연구, 13(1), 69-76.
- 황해영(2018). 「제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 탐구: 인정투쟁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dullah-Preteille, M. (1999). *L'éducation interculturelle*. 장한업 역(2010).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서울: 한울.
- American Council on International Intercultural Education. (1996, November). *Educating for the global community: A framework for community colleges*.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convened at Airlie Center, Warrenton, VA. Retrieved August 21, 2003, from <http://www.theglobalcommunitycollege.org/reports.html>
- Arasaratnam, L. A. (2004).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Development and empirical validation of a new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Arasaratnam, L. A. (2005). Sensation seeking and international students' satisfaction of experienc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34(3), 184-194.
- Arasaratnam, L. A. (2006). Further testing of a new mode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3(2), 93-99.
- Arasaratnam, L. A. (2009). The development of a new instrumen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0.
- Arasaratnam, L. A., & Banerjee, S. C. (2007). Ethnocentrism and sensation seeking as variables that influence intercultural contact-seeking behavior: A path analysi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4(4), 303-310.
- Arasaratnam, L. A., & Banerjee, S. C. (2011). Sensation seeking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 model tes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2), 226-233.
- Arasaratnam, L. A., Banerjee, S. C., & Dembek, K. (2010a). The integrated model of



-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MICC): Model test. *Austral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7(3), 103.
- Arasaratnam, L. A., Banerjee, S. C., & Dembek, K. (2010b). Sensation seeking and the integrated mode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39(2), 69-79.
- Arasaratnam, L. A., & Doerfel, M. L. (2005).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dentifying key components from multicultural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2), 137-163.
- Bennett, M. J. (1993).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R. M. Paige (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2nd ed., pp. 21-71).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Carlo, M. de (1998). *L'interculturel*. 장한업 역(2011). 『상호문화 이해하기: 개념과 활용』. 파주: 한울.
- Clandinin, D., & Connelly, F. (2004). *Narrative Inquiry*. 소경희 역(2007). 『내러티브 탐구』. 파주: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2007).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강현석·소경희 역(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파주: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_Bass.
- Chen, G. M. (1993, November). *Dimension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Miami Beach, FL.
- Chen, G. M., & Starosta, W. J. (1996).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 synthesis. *Communication Yearbook*, 19, 353-383.
- Chen, G. M., & Starosta, W. J. (1999).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awareness. *Human Communication*, 2, 27-54.
- Collier, M. J. (1989). Cultur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Current approache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3, 287-302.
- Council of Europe (2007). *Autobiography of Intercultural Encounters*. <http://www.coe.int/t/dg4/autobiography>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2015).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Deardorff, D. K. (2006). Identification and asse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Studies in Intercultural Education*, 10(3),

241-266.

- Deardorff, D. K. (2009). *The Sage Handbook of Intercultural Competence*. Sage Publications.
- Denzin, N. K., & Lincoln, Y. S. (2011).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최옥 역(2014). 『질적 연구 핸드북』. 서울: Sage 아카데미프레스.
- Fantini A. E. (2000). A central concern: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About our institution*, 25-42.
- Fantini, A. E. (1997). *New Ways in Teaching Culture*. Alexandria, VA: TESOL Inc.
- Ghemawat, P., & Reiche, S. (2011). National Cultural Differences and Multinational Business. *Globalization Note Series*, 1-18.
- Gudykunst, W. B., & Kim, Y. Y. (1992). *Communicating with strangers: An approach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Vol. 19). New York: McGraw-Hill.
- Gudykunst, W. B. (2004). *Bridging Differences: Effective Intergroup Communication* (4th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ammer, M. R., Gudykunst, W. B., & Wiseman, R. L. (1978). Dimensions of intercultural effectiveness: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 382-393.
- Hewitt, J. P. (1976). *Self and Society*. 윤인진 외 공역(2001). 『자아와 사회』. 서울: 학지사.
- Ihnatova, Z. (2017). Trust as a Cultural Factor in Communication. *Journal of Zhejiang Wanli University*, 30(1), 4-10.
- Kerzil, J., & Vinsonneau, G. (2004). *Principes et realites a l'ecole*. 장한업 공역(2013). 『상호 문화: 학교의 원칙과 현실』. 파주: 교육과학사.
- Kim, Y. Y. (1992).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 systems-thinking view. In W. B. Gudykunst & Y. Y. Kim (Eds.), *Readings on communicating with strangers: An approach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p. 371-381). New York: McGraw-Hill.
- Koester, J., & Olebe, M. (1989). The behavioral assessment scale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ffect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2, 233-246.
- Li, Feilin, & Yu, Gaofeng (2005). Cultural Differences in Compliments. *Canadian Social Science*, 11(1), 68-72.
- Mitchell, R., & Nicholas, S. (2006). Knowledge Creation in Groups: The Value of Cognitive Diversity, Transactive Memory and Open-mindedness Norms. *Electronic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 Morgan, S. E., & Arasaratnam, L. A. (2003). Intercultural friendships as social excitation: Sensation seeking as a predictor of intercultural friendship seeking behavior.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32, 175-186.
- Nadeem, M. U., Mohammed, R., & Dalib, S. (2017). Religion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Journal of Philosophy, Culture and Religion*, 28(3), 25-29.
- Samovar, L. A., & Porter, R. E. (Eds.). (2001).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4th ed.).

- Belmont, CA: Wadsworth.
- Samovar, L. A., Porter, R. E., McDaniel, E. R., & Roy, C. S. (2015).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Nelson Education.
- Sawir, E., Marginson, S., Deumert, A., Nyland, C., & Ramia, G. (2008). Lonelines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n Australian Study. *Journal of International Education*, 12(2), 148-180.
- Spitzberg, B. H. (1997). A mode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9, 375-387.
- Spitzberg, B. H., & Changnon, G. (2009). Conceptualizing intercultural competence. *The SAGE handbook of intercultural competence*, 2-52.
- Spitzberg, B. H., & Cupach, W. R. (1984).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Vol. 4): SAGE Publications, Incorporated.
- UNESCO (2013). *Intercultural Competence*. Paris. France: Place Fontenoy.
- Webster, L., & Mertova, P. (2007). *Using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 London & New York: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 Weiss, R.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Williams, R. (1983).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London: Fontana.
- Wiseman, R. L. (2002).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n W. B. Gudykunst, & B. Mody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07-224.
- Wiseman, R. L., & Koester, J. (1993).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Sage Newbury Park, CA.

#### 웹 사이트

- 국립국제교육: [www.niied.go.kr](http://www.niied.go.kr)
- 대한민국 교육부: <http://www.moe.go.kr>
- 대한민국 법무부: <http://m.moj.go.kr>
- 연합뉴스: <http://yonhapnews.co.kr>
- 인하대학교: [www.inha.ac.kr](http://www.inha.ac.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주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http://uzbekistan.or.kr>
- 출입국관리사무소: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http://studyinkorea.go.kr>

# ABSTRACT

## A Study on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Uzbekistan Students in Korea

Dilnoza Kalanova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

Prof. Youngsun Lee

Inha University

February,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xperiences of Uzbekistan student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narrative and to explore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cultivated through these experiences.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is is because education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knowledge, skills, attitude and awareness to fully understand one's own culture and culture of other countries as well as to respect diverse languages and cultures.

The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experienc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mong Uzbekistan students in Korea? Second, what is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achieved these experiences? In order to 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we selected 8 Uzbekistan students in Korea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conducted in - depth interviews. Then, the

contents of the in - depth interviews were analyzed through narrative research method which 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16 to October 201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the experienc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mong Uzbekistan students in Korea during several time periods including childhood, middle and high school, college and after studying abroad.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learned about Korean culture and society by communicating with Korean people before coming to study in Korea and had a warm heart to people. These experiences have motivated them to study Korean language harder. In addition, the experienc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with Korean people helped research participants to adapt to life, society and culture in Korea.

Next, we analyzed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the Uzbekistan students in Korea using Arasaratnam & Banerjee(2010)'s model of "Sensation Seeking and the Integrated Mode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ccording to this, sensation seek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and improvemen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First,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hose "stimulation preference" was "warm heart" turned to be cultivated through processes such as "empathy → global attitude → motivation → interaction." Most of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graduated from high school and came to a foreign country and culture by leaving their warm home environment. Therefore, they exchanged their feelings when they were able to find such a "warm heart" in communication with other people in a foreign country.

Second, Uzbekistan students in Korea, whose preference for stimulation was "new experience", improved thei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through "global attitude → participation in interaction." They

were able to expand thei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n a shorter period of time since they already had an attitude to show sympathy, interest in communication with partner or to accept the difference between them open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during the initial adaptation stage of Uzbekistan international students. It also suggests that such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ducation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since awareness of self culture and other cultures is essential in meeting situations of different cultures, primarily, it is necessary to focus on educating about such knowledge. The contents of such education should include verbal, nonverbal, social and cultural knowledge about self culture and other cultures.

Seco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ducation should include a part of understanding. It is because they need open mind to accept, respect the difference that they feel when they meet with people from other cultures, not as “mistake” , but as “diversity.”

Third, intercultural educa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attitudes that can be utilized in the context of other cultures and encounter situations. In any situation, it is easy to understand partner in communication if looked by not only from own perspective, but from perspective of partner as well.

Fourth, education about values that make sense of the significanc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hould be conducted. The main goal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ducation are learning to learn, learning to do, learning to live together, and finally learning to exist. Therefore, to meet these goals, Uzbekistan students in Korea should communicate successfully with Korean people and be aware of own and other cultures and learn to act accordingly to adapt well to their life in Korea.

In this way, the experienc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mong Uzbekistan students in Korea was examined from the narrative point of

view.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ven though there was a limit in practicing, the direction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ducation was suggested.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assist Uzbekistan students to communicate smoothly with Koreans, overcome difficulties and have a successful study life abroad in Korea.

**Key Words:** Uzbekistan international students, narrativ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ducation



## <부록 1> 연구안내 및 참여 동의서

###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 ■ 연구제목

제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관한 연구

#### ■ 연구기관/부서 및 주소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학과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서호관 304B)

#### ■ 연구자 성명, 소속 및 연락처

연구책임자: 갈라노바 딜노자(다문화교육전공 박사과정 /010-4301-5578/  
dilnoza.temurovna@gmail.com

공동연구자: 김영순(사회교육과 교수/010-2807-7471/ kimysoon@inha.ac.kr)

#### ■ 연구 참여 권유

본 연구자는 귀하에게 “제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관한 연구”의 심층면담 대상자로 참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본 연구 참여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위험(불편함)이나 이익,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 양식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연구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을 잘 듣고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0년 초반부터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강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한국 문화와 접촉합니다. 유학생들에게 한국에서 공부하는 시기는 “자기가 공유하는 문화를 가지고 사회로 이주하여 그 사회의 문화를 배우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시기” (김영순 외, 2016)입니다.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이고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는 한국어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창한 언어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육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함께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소통 교육이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호문화소통은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넘어 어떤 사회나 문화 속에서 문화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성공하는 데 발판이 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함양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대해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호문화소통 교육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원활한 상호문화소통을 위해 요구되는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상호문화소통 교육은 자국 및 타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여 배려할 수 있는 지식, 능력, 태도 및 인식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국내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중에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가 3급에서 6급까지인 8명의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을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연구 방법은 내러티브 연구로 연구참여자들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느낀 한국-우즈벡 간 문화 소통 경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선 1차 질문지를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답변을 받고, 연구자가 범주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2차 질문지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질문지를 전송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연구자와 1:1 인터뷰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사건과 경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심층인터뷰는 연구참여자에게 편한 언어, 즉 우즈벡어, 러시아어 및 한국어로 진행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 불편감과 위험 및 이익가능성

본 연구는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프라이버시 존중 및 익명성 보장, 면접내용의 비밀 준수 등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며 인터뷰자료는 학술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인터뷰도중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편함은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할 것입니다. 인터뷰도중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인터뷰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본 연구를 위하여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터뷰 1회시마다 소정의 문화상품권(1만원)을 제공합니다.

#### ■ 연구참여자와 중지

저의 연구에 참여는 자발적이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구자는 귀하의 중단 권리를 존중하며 언제든지 연구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연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정보 및 비밀 보장

본 연구를 위해서 귀하의 면담내용 및 개인정보 등이 수집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의 신원이 드러나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되고,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귀하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되고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윤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한다.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술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면담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 ■ 연구관련 문의

연구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된 동의서 1부는 연구자가, 1부는 연구 참여자께서 수령합니다.

- 연구실: BK+21 글로벌 다문화교육 사업팀 교수연구실(인하대 서호관 220호)

- 연락처: 갈라노바 딜노자(010-4301-5578)

-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32-860-7154 / e-mail :

irbedu@inha.ac.kr

(본 기관에 연락하실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 권익에 관한 내용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 귀하와 연구자는 본 설명 및 동의서를 아래 부분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은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합니다.

■ 연구참여자 성명: \_\_\_\_\_ (서명)

서명: \_\_\_\_\_

■ 연구자 성명: \_\_\_\_\_ (서명)

서명일: \_\_\_\_\_

